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NEWCOMERS' NURSING
THROUGH LAITY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JANGSEOK CHURCH**

written by

YOUNG JUN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Namsik Kim



Euiwan Cho

December 18, 2018

**AN EFFECTIVE STRATEGY FOR NEWCOMERS'
NURSING THROUGH LAITY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JANGSEOK CHURCH**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 JUN PARK

DECEMBER 2018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훈련 방안 연구:
장석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남 식 교수

박 영 준

2018년 12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Newcomers' Nursing through Laity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Jangseok Church

Young Jun Park

Doctor of Ministry

201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dissertation examines an effective strategy for newcomers' nursing by training layperson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a practical method of training lay workers, disciples who train disciples, as the main agents, especially in the area of newcomers' nursing.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how to build up a layperson training system in the newcomers' department, how to develop positive changes in lay workers' consciousness and behaviors, and how to apply specific methods for building church community. This study also examines pastoral implications of layperson training through survey results of lay workers' actual religious life.

There are seven chapters in this dissertation. Chapter 1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ewcomers' nursing, identifies several difficulties in having an effective strategy, and discusses the need to study laity training for newcomers' nursing. Chapter 2 examines the meaning, necessity, and role of laity training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it discusses various types of layperson training in several churches, considering their pros and cons.

Chapter 3 deals with principles and methods of newcomers' nursing through biblical contemplation and compares various types of programs for incorporating newcomers in different church circumstances. Chapter 4 introduces the newcomers' nursing system of Jangseok Church, analyzes its nursing and settlement

status reports from a pastoral viewpoint, and discusses how to select and train lay workers effectively.

Chapter 5 suggests specific methods of laity training for newcomers' nursing: how to prepare a laity training course, set specific goals, and manage a newcomers' nursing program. Furthermore, this chapter introduces methods of staff training in a newcomers' department and an intensive course on newcomer nursing that provides further strategies to handle difficult cases.

Chapter 6 analy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raining laypersons for newcomers' nursing: first, by examin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lay workers' individual religious lives, and second, by discussing the results of the study's laypersons training for newcomers' nursing and their pastoral implications. The final chapter synthesizes the discussions throughout the paper in order to suggest methods for training laypersons to carry out newcomers' nursing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Korean church.

Theological Mentors: Namsik Kim, PhD

Euiwan Cho, PhD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회에서 본질적인 평신도 사역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고, 제자사역을 토대로 새신자 목회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 작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동행을 통한 전도를 가르쳐 주시고 평신도 사역의 통찰력을 이끌어 주신 김남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의 영성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저의 삶에 큰 영향을 주셨던 조의완 교수님, 부심으로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마치기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풀러 한인목회학박사원 논문관장 신웅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목사의 사역 중에도 풀러 목회학 박사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장석교회 함택 담임목사님과 새신자 목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시고 가르침을 주신 이용남 원로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신자 목회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새신자부장 박영록 집사님과 접견부장 안명숙 권사님, 양육부장 이훈모 집사님, 정착부장 문인식 집사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새신자위원회 모든 스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위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모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동역자인 사랑하는 아내 이현순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대가 있었기에 이 논문을 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쁨인 사랑하는 딸 시현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키워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이 논문을 두 손에 드립니다.

2018년 12월 박영준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4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6
제 2 장 평신도 사역 이해	7
제 1 절 평신도에 대한 이해	7
1. 평신도의 개념	7
2.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	9
3. 사역 동반자로서의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	10
제 2 절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이해	11
1. 평신도 사역의 의미	11
2. 평신도 사역자의 필요성	13
3.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	14
제 3 절 평신도 사역자 선정 및 자격	15
1. 평신도 사역자 선정	15
2. 평신도 사역자 자격	16
제 4 절 평신도 사역자 훈련	18
1.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	18
2. 제자도와 평신도 훈련	21
3. 평신도 사역자 훈련의 유형	22
가. 충신교회 평신도훈련원	23
나. 상도중앙교회 지도자양성	24
다. 사랑의교회 사역훈련	25
라. 선한목자교회 제자훈련	26

4. 사역자훈련의 유형에 따른 분석	28
제 3 장 새신자 양육 이해	32
제 1 절 새신자 양육의 개념	32
1. 새신자의 정의	32
2. 새신자의 유형	33
3. 양육의 의미와 필요성	37
제 2 절 양육의 성경적 이해	39
1. 구약성경에 나타난 양육	39
2. 신약성경에 나타난 양육	44
3. 양육의 범위와 한계	46
제 3 절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49
1. 새신자 양육의 문제	49
2. 새신자 양육의 원리	51
3. 바울서신에 나타난 새신자 양육의 모형	54
가. 데살로니가전후서	54
나. 고린도전후서	55
다. 로마서	56
4. 새신자 양육의 방법	57
제 4 절 새신자 목회	59
1. 새신자 목회의 의미	59
2. 새신자 목회의 중요성	62
3. 새신자 양육과 제자훈련	62
제 5 절 새신자 양육의 유형	64
1. 온누리교회 새가족부(일대일)	64
2. 무학교회 새가족부(바나바)	69
3. 한소망교회 새가족부(알파)	74
4. 새신자 양육의 유형에 따른 분석	82

제 4 장 새신자 양육을 위한 목회 전략	87
제 1 절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 진단	87
1. 교회 주변 상황	87
2. 장석교회 소개	90
3.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과 정착 현황	91
가. 새신자 양육체계	91
(1) 새신자위원회 조직	91
(2) 새신자 양육과정	92
나. 새신자 양육수료식 및 환영잔치	94
다. 정착부 활동과 정착 현황	95
라.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 평가	96
(1)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의 장점	98
(2)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의 단점	99
제 2 절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 선발	101
1. 양육위원의 의미와 필요성	101
2. 양육위원의 선발	101
가. 양육위원 선발 과정	101
나. 양육위원 선발 기준	102
제 3 절 새신자 양육위원의 훈련	103
1. 양육위원 훈련의 목표	103
2. 양육위원 대상자와 기도후원자	103
3. 양육위원학교 운영	104
가. 양육위원학교의 인원 및 구성	104
(1) 대상자	105
(2) 봉사자	105
나. 양육위원 간담회	106

제 5 장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 방안	107
제 1 절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	107
1. 양육위원 훈련의 내용	107
가. 교육기간	107
나. 교육훈련	108
(1) 양육위원의 신앙자세	108
(2) 양육위원이 갖추어야할 일반적인 자격	108
(3) 양육위원 교육 내용	109
다. 새신자위원회 훈련 프로그램	109
(1) 경건회	110
(2) 영성수련회 및 세미나	110
2. 양육위원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112
가. 양육위원학교 계획안	112
나. 섬김훈련	114
(1) 바나바 사역 이해	114
(2) 바나바 훈련	115
다. 제자훈련	117
(1) 예수님의 제자 되기	117
(2) 성령 충만	118
(3) 영적 무장	118
(4) 전도자의 사명	119
라. 새신자 성경공부 진행 방법	120
(1) 새가족 양육교재 구성	120
(2) 양육진행 방법	121
마. 사명과 헌신	122
제 2 절 양육위원 심화과정	123
1. 전문양육위원 과정	123
가. 현대인의 문제와 이해	123

나. 이단대처	125
2. 구원의 확신반	126
제 6 장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훈련 결과분석	128
제 1 절 장석교회 양육위원의 신앙의식 조사	128
1. 조사 방법	128
2. 측정 도구	129
3. 자료 분석	129
4. 연구 결과 및 해석	130
가.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130
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31
다. 신앙생활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133
라. 직분과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134
마.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137
바. 신앙생활의 상관관계 분석	140
제 2 절 장석교회 양육위원학교 훈련 분석	142
1. 연구 대상	142
2. 측정 도구	142
3. 자료 분석	143
4. 연구 결과 및 해석	143
가.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43
나.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144
다. 양육위원학교 훈련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146
라. 양육위원학교 훈련에 대한 소감 및 평가	146
제 3 절 논의 및 제한점	148
1. 양육위원의 신앙의식 조사에 대한 논의	149
2. 양육위원학교 훈련 결과에 대한 논의	152
3. 연구의 제한점	155

제 7 장 결론	156
제 1 절 요약	156
제 2 절 제언	159
부록	162
참고 문헌	172
Vita	178

표 목 차

<표 1> 네 개 교회 제자훈련 유형 비교	28
<표 2> 2017년 장석교회 새신자 남녀 연령별 접견현황	34
<표 3> 기독교 신앙의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	35
<표 4> 은누리교회 새가족 교육과정	67
<표 5> 은누리교회 양육과정 필수과목	67
<표 6> 은누리교회 양육과정 단계별 선택과목	68
<표 7> 무학교회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	70
<표 8> 한소망교회 새가족부 사역현장 및 바나바 역할	75
<표 9> 한소망교회 알파코스 토크 주제	80
<표 10> 2017년 한소망교회 속별 새가족 등록현황	82
<표 11> 새신자 양육 유형 비교	83
<표 12> 2016년 노원구 인구추이	88
<표 13> 2016년 노원구 연령별 인구구조	89
<표 14> 2015년 서울시 구별 고령자 인구	89
<표 15> 장석교회 새신자위원회 조직(2018년도 기준)	92
<표 16> 새신자 양육 수료식 및 환영잔치 식순	94
<표 17> 정착부 현황표 (2017년 12월 10일~2018년 10월 14일까지)	95
<표 18> 새신자 등록 및 양육수료 현황	97
<표 19> 새신자위원회 영성수련회 및 총회	111
<표 20> 새신자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일정표	112
<표 21> 2018년 25기 양육위원학교 훈련과정과 주제	113
<표 22> 25기 양육위원학교 영성수련회	122
<표 23> 장석교회 상반기 전문양육위원학교 교육과정	125
<표 24> 장석교회 하반기 전문양육위원학교 교육과정	125
<표 25> 양육위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130

<표 26>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표	131
<표 27>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값	133
<표 28> 직분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135
<표 29>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137
<표 30> 개인신앙생활의 상관관계 분석표	141
<표 31> 양육위원학교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표	143
<표 32> 양육위원학교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값	144
<표 33> 양육위원학교 훈련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표	146

그림 목차

<그림 1> 선한목자교회 제자훈련 과정	27
<그림 2> 새신자 양육의 문제점	50
<그림 3> 무학교회 신앙성장 5단계(High 5 System)	72
<그림 4> 한소망교회 목장의 핵심요소	78
<그림 5> 성공의 사다리(양육 다이아몬드)	80
<그림 6>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 절차	93
<그림 7> 새신자 등록 및 양육수료 현황 그래프	98
<그림 8> 개인신앙생활에 대한 신앙 성숙도	134
<그림 9> 양육위원학교 훈련의 효과	14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헨드릭 크래머(Hendrick Kraemer)는 교회의 본질적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결된 재산’(죽은 자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사람들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정립하고 모든 교인이 사도적 임무와 봉사적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변화시킬 때 교회는 비로소 그 사회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통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전도와 아울러 중요한 것이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와 수평이동 새가족 포함)을 어떻게 돌보고 정착시킬 것인가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일 것이다. 이를 위해 새가족을 양육하기 위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는 고민해야 한다.

김명용은 현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새신자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합리적 . 논리적 . 설득력이 결여된 문답형 형태의 새신자 양육교재의 문제점이며, 둘째는 세상과 신앙을 연결시키는 전문성의 결여, 셋째는 삶의 이야기가 없이 추상화된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새신자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고 새신자 양육교재의 개편과 새신자와의 코이노니아

1) Hendrick Kraemer, *평신도 신학: 평신도신학의 신학적 기초*,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194-200.

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²⁾

이용남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능 기계화로 인간의 신비성과 자율성 또한 존엄성을 배재하고 인간의 생활을 기계화, 제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³⁾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피조하실 때 주셨던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로 텅빈 속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인간성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목회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⁴⁾

그동안 연구된 새신자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새신자를 교회에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하거나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신자 양육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새신자를 양육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교회에 사명이며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시점에 있다.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새신자 양육(교육) 과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주제와 내용들은 어느 정도 교회 실정에 맞도록 체계화가 잘 되어있다. 또한 새신자를 영접할 수 있는 새가족실 환경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교회마다 새신자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새신자를 양육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담당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 본질에 입각하여 얼마만큼 훈련이 되어 있으며, 새신자 양육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새신자 양육을 위해서 잘 운영되는 교회의 시스템을 따라하고 단순히 평신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거나 양육자(혹은 양육위원)를 양성하는 과정이 없이 교회의 시스템으로만 운영하다보니 새신자부를 섬기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해도가 약하여 혼란이 야기되거나 사역이 위축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양육자 양성과정이 새신자 양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새신자 양육의 핵심은 양육자이다. 양육은 양육자에게 달려 있다. 훈련된 양육자가 없으면 생명을 낳는 새신자 양육과 정착사역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2) 김명용, “한국교회의 새신자 양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새신자 목회*Ⅶ (1997): 9-32.

3) 이용남, “새신자 양육, 이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강의집*, vol. 21 (2011): 8.

4) 이용남, “21세기를 향한 새신자 목회 전략,” *새신자 목회*Ⅶ (1997): 40.

본 연구자가 섬기는 장석교회는 새신자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부터 22년간 새신자 목회 세미나를 진행해온 교회이다. 한국교회에 새신자 목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신자 양육에 대한 학문적, 실제적 사례들을 연구하여 그동안 한국교회 새신자 양육사역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⁵⁾ 지금까지도 여러 교회들이 새신자 양육사역을 위해 탐방하고자 장석교회 새신자부를 찾아오고 있다. 탐방 온 목회자들의 고민 가운데,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사역자로 키워 새신자 양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바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며, 새신자 양육을 위하여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이유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새신자 양육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을 주로 다루거나 다른 교회들의 사례에 대해 비교 연구 등을 제시하여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키우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육자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정작 새신자를 양육하는 양육의 주체인 평신도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대부분 이론과 비교연구 또는 양육 시스템에 치중되어 있으며 새신자 정착과 교회 성장 연구가 주를 이룬다.

김남식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교회는 현상적 성장을 경험하지만 곧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성장을 좇는 목회자들은 성장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그러한 전도는 성서적 본질에서 멀어지고 시대의 취향에 맞게 변한다. 한국 교회가 성서적 전도의 본질을 추구하며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양육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사도들과 같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목회의 본질인 평신도 사역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훈련을 통해서

5) 장석교회에서 새신자 목회 20년째 해에 발간한 제20회 교회 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세미나 자료집, ‘양육, 행복한 첫 출발’에 보면 20년간 진행해 온 새신자 목회 주제 강의 모음집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강의 주제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1장에 새신자 목회 이론편과 2장에 새신자 목회 실천편을 수록하였고, 3장은 교회 교육(양육)편으로 구성하여 새신자 목회에 대하여 그동안 힘써왔던 강의 주제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남, “양육, 행복한 첫 출발.” *교회 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세미나 자료집*, vol. 20 (2013): 91-208.

6) 김남식, “동행 전도와 교회 증식,” *목회와 신학*, 2018년 7월호, 62.

평신도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양육자로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사하며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새신자 양육을 위해 고민하는 교회 현장에서 평신도를 양육의 주체로 세워 새신자 양육을 보다 성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신자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육위원’ 혹은 ‘양육자’라 부르려고 한다. 그리고 새신자 양육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양육위원학교’라고 부르고, 양육위원학교를 수료한 평신도 사역자 중에 심화과정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중독, 지적장애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특수한 대상을 양육할 때, 이와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새신자 양육 훈련프로그램을 ‘전문양육위원학교’라 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이해의 측면에서 새신자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때 특수한 대상에 따른 문제도 다루지만, 일반적인 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위원학교’에 중점을 두고 장석교회를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연구 방법은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장석교회를 중심으로 새신자 양육을 위하여 평신도를 선발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새신자 양육위원으로 양성하여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새신자 양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의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고, 연구방법과 범위, 그리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교회의 본질로서의 평신도 사역에 대한 문헌적인 고찰과 제자도로 본 평신도 훈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평신도 사역자 훈련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3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새신자 목회의 중요성을 밝히고 새신자 양육과 제자훈련에 관하여 논의한 후 새신자 양육에 대한 교회들의 사례들을 비교하여 새신자 목회에 입각한 강점과 약점을 고찰한다.

4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 훈련을 장석교회를 중심으로 소개하

고 교회 주변 상황과 목회적 진단을 통해 새신자 양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세울 것인지 논의한다. 또한 새신자 목회를 위한 평신도 사역훈련 준비 과정과 훈련의 목표,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 구성이 된 양육위원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특히 양육위원학교 훈련의 내용으로써 섬김훈련(바나바)과 제자훈련, 그리고 양육의 실제와 영성훈련(사명과 헌신)을 주요 부분으로 살펴본다. 또한 양육위원학교를 위하여 고안하여 실시한 사역훈련 프로그램으로 8회기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주제 선정 이유와 훈련의 내용을 고찰한다. 더불어서 평신도를 주체로 새신자 양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새신자위원회 스텝 훈련에 대해 소개하고 양육위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사례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심화과정인 전문양육위원 과정에 대하여 제시한다.

6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훈련 결과를 분석한다. 첫째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평신도 사역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평신도 사역의 목회적 함의를 살펴보고, 둘째 양육위원학교에서 실시한 사역 훈련의 주제들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논의하고 새신자 목회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고 한국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의 방안을 새신자 목회적 관점에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새신자 양육을 위해 고민하는 교회 현장에서 평신도를 양육의 주체로 세워 새신자 양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양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사하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고찰한다. 또한 그동안 훈련된 양육위원들의 신앙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평신도 사역자의 재생산에 대한 목회적 함의를 논의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첫째는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둘째는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설문조사(survey)와 인터뷰, SPSS 통계분석을 활용한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돕는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위한 연구이므로 평신도 사역의 범위를 새신자의 양육과 돌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새신자의 양육과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이에 관심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다루고, 또한 기존에 새신자 양육을 돕는 평신도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자를 지원하는 계속 교육에 관한 방안도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신도들을 새신자 양육사역자로 훈련하여 새신자 양육과 정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으며,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의 자기개발과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의 재생산에 대한 함의를 통해 교회의 본질인 평신도 사역에 발전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장석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기에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새신자 목회를 위한 평신도 사역자 양성과 훈련에 관한 연구이므로 교회의 모든 평신도 사역의 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서 평신도 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의 새신자 목회가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토대위에 발전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제 2 장

평신도 사역 이해

제 1 절 평신도에 대한 이해

1. 평신도의 개념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평신도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사회에 속한 전문인으로서 다양하게 살아간다.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뿐 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으로 이중적인 과제를 수행하며 사는 존재이다. 평신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다.

‘평신도’(laity, laymen)라고 부르는 개념을 살펴보면, 평신도는 ‘백성’을 뜻하는 희랍어 ‘라오스’(λαός)란 말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이는 원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켰으나, 교회 역사를 통해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A. D. 2세기경 클레멘스(Clemens of Rome)가 처음으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장로(감독), 집사, 평신도라는 세 칭호를 사용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중세시대까지 평신도는 모든 종교행위의 피동적 참여자로서, 오직 가르침을 받고 복종하며 헌금하는 일만 요구될 정도로 그 권한은 제한되었다. 평신도의 권한을 되찾아 준 것은 16세기를 전후 해 활동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였다. 특히 루터는 만인제사장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차별 없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일깨워 주었다.⁷⁾

그럼에도 직책에 있어서 오늘날의 평신도는 여전히 성직자와 차등이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직자가 갖는 이미지는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7) 가스펠서브 편,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218.

대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권위가 높고 목회자는 주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의 종교성과 권위적인 목회의 측면이 한국인의 인식 속에 뿌리 내린 시대적인 산물로 볼 수 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평신도’라는 용어가 종교적인 어휘에서 최악의 용어 중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인의 대화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⁸⁾ 바르트는 신학이 신학자나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평신도라는 인식을 깨트리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에서 평신도의 위치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1954년 WCC 에반스톤 회의에서 제기되었으며 1958년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가 *A Theology of the Laity*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평신도 신학’이라는 전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평신도 신학은 성직자의 개념을 없앨 뿐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차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직자를 평신도의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만인제사장설에 근거해 기능상 직분자와 평교인을 구분하고 있을 뿐 계급상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⁹⁾ 평신도 신학에서는 평신도란 말 자체가 성직자라는 개념과 구분을 지으려는 의도에서 생긴 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 평신도 대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은 견해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에큐메니컬 운동에 의하여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적 자기 이해로 되었고, 주체로서의 교회의 선교 봉사자라는 이해가 뚜렷해졌다.¹⁰⁾ 교회의 공동체 개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폴 스티븐스(Paul Stevens)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을 라오스로 말하며, 라오스의 다양함속에 하나 됨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 속에서 찾고 있다. 하나님과의 하나 됨이 바로 공동체에게 이어지면, 그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라오스)은 사역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라오스가 된다는

8) P.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 Vocation, Work and Ministry in Biblical Perspective)*,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35.

9) 가스펠서브 편, *교회용어사전*, 218.

10)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편, *한국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05.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홀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역에서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의 원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를 위해 사역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는 하나 됨의 풍성함을 통한 전인적 사역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신도의 개념을 목회자와 차등의 의미가 아닌 기능상의 구분으로 보고자 한다. 용어에 있어서 논쟁의 소지가 있으나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서 평신도라는 개념을 통해 교회 안팎의 사역을 논의하고,¹²⁾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평신도의 사역을 명시하여 평신도 사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평신도의 개념이 불완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오늘날 통념상 의미가 성도를 부르는 명칭과 다르지 않으며 교회 사역의 주체자로서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문의 일관된 논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라는 개념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2.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믿고 시인하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써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된 목회자와 평신도에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는 언약 혹은 계약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신앙공동체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포함된다는 측면

11) Paul Stevens, *The Other Six Da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n, 2000), 56-64. 김남식, *동행 진도학* (인천: 한국진도학연구소, 2015), 76-77에서 재인용.

12) 평신도 사역의 개념을 참조할 수 있는 도서 중에 본 연구자가 추천할 수 있는 책은 다음과 같다. Lawrence O. Richards and Gilbert R. Martin, *평신도 사역*, 여상기 역 (서울: 평신도신학연구소, 1994),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황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김성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84), 이성주, *웨슬리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8) 등이다.

에서 평신도지도를 위한 성경적 방향은 상호보완적 관계와 상호침투의 공존에 주목하도록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안적 정체성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위계적 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정립 될 수 있다.¹³⁾

평신도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직자와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동등하며,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직자와 협력의 관계를 갖는 존재이다. 평신도는 더 이상 교회에서 소극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의 주체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¹⁴⁾ 평신도는 교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며 동역을 이루어야 한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직분에 따라 맡은 직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한다.

3. 사역 동반자로서의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

‘라오스’(λαός)라는 헬라어는 본래 ‘군중’, ‘한 국가의 백성’을 의미했다. 나중에 그 단어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역(70인역)에서 ‘암’(‘am)이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단어로 채용되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사도들의 공의회에서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제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연계시킨다.¹⁵⁾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교육과 안수, 역양 등의 측면에서 분리된 두 계층의 백성을 보게 되지만, 신약의 에베소서 4장 11-12절에서는 지도자를 포함한 백성을 보게 된다. 즉 지도자 역시 ‘라오스’의 일원이며, 사역의 일을 하도록 백성을 구비함으로써 섬기기 때문이다.¹⁶⁾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벧전 2:9, 개역개정)¹⁷⁾라고 하였다. 이

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평신도지도위원회, *총회 평신도지도 지침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37-38.

14)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도서출판 멘토, 2002), 53.

15)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39.

16) Ibid., 40.

구절에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구약의 예언적 기대가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에 의해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는 일정한 공통신앙에 의해 형성된다. 바울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롬9:25-26)고 하였다.¹⁸⁾ 목회자와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다. 목회자가 평신도 위에서 높은 직책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구별이나 차등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는 모두가 주님의 주권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교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생명 공동체 운동이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되찾는 것이다.¹⁹⁾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다. 평신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할 사명이 주어진 존재이다. 평신도는 사역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선포되고 죄의 권세가 굴복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동반자이다.

제 2 절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이해

1. 평신도 사역의 의미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된 모든 평신도는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벧전 2:9).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벧전 4:10-11).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위해 베푸는 평신도 봉사적 직무에 대한 말씀이다.²⁰⁾ 성경은 모든 믿는

17) 이하의 모든 성경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개역개정성경을 따른다.

18) Craig Van Gelder, *교회의 본질 (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최동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168-169.

19)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편, *한국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204.

20)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51-53.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

모든 평신도들에게는 그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봉사의 사역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을 행하도록 영적인 은사를 받은 청지기인 것이다.²¹⁾ 평신도 사역자는 평신도 가운데 자신이 지닌 재능을 개발하여 교회의 지체들 곧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역량을 지니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²²⁾ 평신도 사역은 바로 이러한 훈련되고 역량이 있는 평신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다.

성경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사역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부르시는 말씀들이 많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출 18:25-26) 세웠다.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출 18:21)이다. 하나님은 온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을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모세와 함께 사역을 분담하게 하셨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봤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민 21:18). 이 말씀을 보면 광야의 늦뱀 사건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잠시 나타나는 본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압의 경계 근처인 ‘브엘’(민 21:16)에 이르게 하셨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은 물이 없는 우물이었다. 이 우물을 모세를 통해서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을 통하여 마시게 하였다.²³⁾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직접 우물을 파게 하셔서 샘물을 내게 하신 것이다. 지도자들의 상징이었던 지팡이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고, 우물을 파서 솟아나게 하는 역할을 백성들 중에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부르신 목회자와 동등한 관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동역자이다.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평신도의 책임이며 사명이다.

21)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53.

22) 가스펠서브 편, *교회용어사전*, 219.

23)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953-955.

2. 평신도 사역자의 필요성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세워지며 그 뜻을 따라 같은 주를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이다. 오늘날 목회자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다. 설교와 심방, 교육, 행정 등의 사역들을 담당하면서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목자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인들의 애경사와 경조사를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기도 한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역이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없듯이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이은 베드로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준다. 그리스도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시며,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씀이다. 교회의 주체와 소유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직자의 교회도 아니며, 평신도의 교회도 아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스도의 교회이다.²⁴⁾

사역이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사역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의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할 의무가 있다.²⁵⁾ 모세를 돕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웠던 것처럼(출 18:25) 감리교회에도 집사를 세우고, 권사는 15명당 1명을, 장로는 30명당 1명을 세우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²⁶⁾ 하나님은 목회자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지 말고 평신도 가운데 지도자들을 뽑아,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갖도록 가르쳐 주셨다. 바울 사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 6:6)고 말씀해 주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길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교회는 그

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평신도지도위원회, *총회 평신도지도 지침서*, 55

25)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55.

26) Online: <http://cafe.daum.net/2124071/HL2R/97.htm>. 수원감리교회 임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였다. (2018년 3월 인용)

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엡 4:15-16)이다. 몸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체로서 복음의 사명과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3.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교회는 흩어져 세상에서 봉사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지 결코 성곽을 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선교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예배보다 제도, 신앙보다 세력에 관심을 보이면서 교리의 순결은 지키려고 하지만 사랑의 손길을 놓치고 있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²⁷⁾ 율법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다. 이 율법의 조문은 신약시대에도 폐지되지 않았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마 5:17). 성도는 믿음의 의(롬 4:18-25; 약 2:24)를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며 복음을 따라 빛의 열매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말씀하셨다. 바람직한 평신도의 역할에 대하여 손봉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 안의 평신도들의 봉사는 한국교회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목회자들이 설교 이외의 것에 많은 시간을 두는 것이 악순환을 일으켰으므로 평신도들을 설교 이외의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며, 평신도들을 행정과 재정문제와 같은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성숙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중략) ... 지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영향력을 행사할 때다. 사회의 부패상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야하며, 목회자들을 훌륭한 목회자로 키워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하여 평신도들을 교회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⁸⁾

평신도의 역할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자리매김이 아니라 손봉호 교수의 주장처럼 모든 영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국가와

27)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편, *한국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199.

28) Ibid., 178.

사회에 대한 책임과 영향력을 키우고, 좋은 목회자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수행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사역에서 아쉬운 것은 평신도들을 앞장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를 전하는 사역,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역, 다원화된 사회에서 중재하고 새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있는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는 일이다.²⁹⁾ 이것이 바로 교회 본질로써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것이다. 봉사가 처음에는 힘들어도 봉사의 자리가 있었기에 신앙이 성장하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직분으로 인해 봉사하다가 신앙이 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봉사가 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사명이 일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제 3 절 평신도 사역자 선정 및 자격

1. 평신도 사역자 선정

빌 헐(Bill Hull)은 성숙한 사람만 제자이고 그 외 모든 그리스도인은 미성숙한 회심자라는 개념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이 성숙하여 또 다른 제자를 낳기를 바라신다”³⁰⁾고 말한다.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삼고 주님 안에서 살도록 초청하고 인도해야 한다.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하며, 그 헌신된 사역자로 인해서 재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가르쳤다. “증인 앞에서”라

29)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편, *한국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199.

30) Bill Hull, *제자삼는 교회 (The Disciple-making church)*, 장택수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6), 31.

고 말한 바와 같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훈련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충성된 증인들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적 사명을 바울은 일깨워주었다.

지용덕은 “지도력의 핵심에 서 있는 담임목사는 자기의 은사를 알고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적 은사와 전문성을 파악하여 목회자 개인의 지도력에 머물지 말고 다양한 지도력으로 묶어서 공동의 비전을 따라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야 한다”³¹⁾고 말했다. 교회의 주체인 평신도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행정과 리더십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능력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가 그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다면 목회자와 파트너십으로 좋은 협력관계가 될 것이다. 사역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렇듯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은사와 전문성과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교회를 지도하는 직책은 특정계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목양 사역은 몸의 지체가 지키는 원리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체들은 상호 복종과 봉사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몸을 돕는다.³²⁾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의 비전을 향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출 18:21)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을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모세와 함께 사역의 기능을 분담하게 하셨다. 따라서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일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몸의 기능으로써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다. 평신도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일을 사모함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평신도 사역자 자격

제자에게 종직은 그들이 세상에서 전하라고 명령받은 복음의 내용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제자들이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게는 하나님

31) 지용덕, *팀 목회: 21세기 새로운 목회 구조로서의 팀 목회론* (서울: 쿤란출판사, 2002), 149.

3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출판, 1996), 76.

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사랑은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전파되고 역사한다.³³⁾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자기의 말과 함께 생활로 보여 주어야 한다.³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다. 성경은 교회의 리더 자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강조한다.

디모테전서 3장 1-13절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한 가정을 이루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함”(딤후전 3:1-6)을 말씀한다. 이러한 규정들에 대하여 윌리엄 마운스(William D. Mounce)는 좋은 평판을 얻는 일, 책망할 것이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상술한다. 이는 에베소 교회의 당면한 실제적인 필요였다. 디모테전서 3장 7절은 바울의 다음과 같은 기본 관심사를 강조함으로 이 모든 것을 조망한다. 교회 지도자는 부적절하며 부도덕한 행동으로 교회에 아무런 불필요한 악평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스리는 자들이 생활방식을 바꾸고 온유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³⁵⁾

집사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고 권면한다(딤후전 3:8-13). 도널드 거스리(Dornald Guthrie)는 집사의 믿음의 비밀에 소유는 “깨끗한 양심”(ἐν καθαρᾷ συνειδήσει)을 동반해야 할 것인데, 교회의 신학적 고백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 지식은 적절한 행위, 즉 아무런 죄의 때도 없는 양심을 수반해야 한다고 보았다.³⁶⁾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이 생활의 모범을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에서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약 3:1)고 말했다. 그만큼 책임이 크고, 맡은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직분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리더가 되는 순간부터 막중

3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25.

34) Ibid., 126.

35) William D. Mounce, *목회서신*, 채천석 .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9), 480.

36) Dornald Guthrie, *신약서론*, 김병국 . 정광욱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590.

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예를 들면 구역 운영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장의 역할이다. 구역장은 신앙만 좋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무조건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역장은 섬기는 은사나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자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⁷⁾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지도자는 교회의 거의 모든 성도들이 회원으로 있는 만큼 이들의 사명은 무척 중요하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은사는 섬기는 은사와 지도력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행정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지혜의 은사 등이다.³⁸⁾ 이와 같이 평신도 사역자는 목회자와 나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신앙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있으며 평신도 사역자는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라야 한다.

제 4 절 평신도 사역자 훈련

1.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

새로운 리더를 배출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힘을 잃고 사라진다.³⁹⁾ 교회가 만들어야 하는 제자는 예수의 제자이다.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⁴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마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성도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평신도의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은 에베소서 4장 11-16절에 잘 나타나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일차적으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하기 위함이다”로 번역될 수 있다. 즉 11절에 거론되고 있는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부여 받았으

37) 한국목회신학연구원, *교회임원 훈련교재* (서울: 세미한, 1991), 141.

38) Ibid., 103.

39) Hull, *제자삼는 교회*, 60.

4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43.

며, 그 사역의 결과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성도를 가르치는 목적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여 11절과 동일한 교훈을 전하였다.⁴¹⁾ 에베소서 4장 13절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상근은 ‘장성함’이란 연령적·신체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몸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장한다. 그 충만함이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⁴²⁾ 직분자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신앙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범사에 그에게 까지 자라기 위해서 평신도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단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평신도를 훈련하며, 또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제자삼고 훈련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 성도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성장의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고 훈련을 사모하므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매일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창돈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직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 내에 직분자는 많아도 정작 마음을 같이하여 일할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직분자가 목회를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직분자는 사역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손수레를 끌고 가는 엄마 곁에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경우와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교회의 사역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에게

41)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서울: 제자원, 2006), 644.

42) 이상근, *신약주해 옥중서신* (서울: 기독교문사, 2003), 102.

서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⁴³⁾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탄의 지배아래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명목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제자훈련을 시키셨다. 이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였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의 온상이 된다. 성숙하지 않은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⁴⁴⁾ 제자 삼는 사역의 결과는 영적인 성숙과 전도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구원에 있기 때문이다(막 10:45). 플로이드 맥클랑(Floyd McClung)은 제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지상 사명은 섬김의 사랑을 통해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적 상태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그와 우정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누리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그러나 그의 임무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과 동일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배자의 왕좌에서 내려와 종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자기 인생을 사시고자 오셨다. 우리는 그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며(요 13:15)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요일 2:6)고 말한다. 우리는 그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며(엡 5:2) 그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하며(골 3:13) 그와 같은 낮은 태도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빌 2:7).⁴⁵⁾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⁴⁶⁾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주님의 말

43) 배창돈, *제자훈련, 실패는 없다*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5), 57-58.

44) Ibid., 36.

45) Floyd McClung, *제자도의 본질 (Follow)*, 김진선 역 (서울: 도서출판 토기장이, 2012), 74-75.

46) Ibid., 75.

씀을 따라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다(요 15:10).

2. 제자도와 평신도 훈련

제자도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이다.⁴⁷⁾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제자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중립적인 상황에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산다는 소명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자신을 새로 교육해야 한다.⁴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노선이 분명하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눈에 그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복음 선포의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에 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신 6:4-5).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을 쫓던 가치관과 이생에 대한 자량이 주님 앞에서 허망한 일이며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품고 이 세상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빌 3:7-9).

제자도의 기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⁴⁹⁾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막 8:34)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고자 형벌과 버림받음의 경멸스러운 상징을 선택하셨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한가지다. 바로 죽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이것은 자기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⁵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과 두 마음으로부터 죽고 오직 최고의 가치를

47) 가스펠서브 편, *교회용어사전*, 182.

48) Mark Labberton, *제일소명*, 하보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63.

49) Greg Laurie,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 (Let God Change Your Life)*, 김진선 역, (서울: 도서출판 토기장이, 2012), 96.

50) Ibid., 99.

그리스도께 두고 주님을 좇는 것이다. 주님의 삶을 본받고 배우는 것이다.

와서 배운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제하며 일하시도록”⁵¹⁾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드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바로 그것이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교회는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렉 로리(Greg Laurie)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를 예배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위해 훈련받는 곳이기도 하다. 건강한 교회라면 봉사와 섬김을 베푸는 일에도 적극적인 성도들로 넘쳐날 것이다. ... 그런 모습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마 20:28)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²⁾

현대의 교회가 제자 훈련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사람을 만들고 자기 교회를 세우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주께 의뢰하는 것”⁵³⁾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올바른 사역이 될 수 없다. 거룩은 온전히 주님을 닮고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다. 평신도 훈련은 예수님을 따르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사는 매일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이 말씀 앞에 응답하며 매일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이 제자의 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훈련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교회로 세워지며 주님처럼 섬기는 제자의 삶이라 하겠다.

3. 평신도 사역자 훈련의 유형

지금까지 평신도 사역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역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평신도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평신도를 훈련

51) Andrew Murray, *사역과 제자도*, 임은목 역 (서울: 샘솟는 기쁨, 2018), 66.

52) Laurie,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 173.

53) Murray, *사역과 제자도*, 75.

하는 교회 중에 충신교회, 상도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네 곳을 선정하여 평신도 사역자 훈련의 유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충신교회 평신도훈련원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신도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요 소그룹의 핵심은 리더이다.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리더십이다. 결국 소그룹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리더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리더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리더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서로 협력하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이끌어야한다. 이러한 리더십이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다. 필자는 충신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소그룹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원하며 이들이 섬기는 리더십으로 무장하기 원한다.⁵⁴⁾

이전호 목사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의 몫”이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역자들은 일부의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적절하게 위임하지 못한 채 사역을 무리하게 감당하다가 탈진하고 사역의 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았다. 훌륭한 지도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다음 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⁵⁾

충신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평신도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평신도훈련원은 평신도를 훈련하고 세우기 위해 평신도훈련원과 충신성경학교, 지역지도자반, 새가족교육, 중보기도학교, 전도학교, 찬양, 가정사역, 치유사역으로 영역을 나

54) 이전호, “코칭훈련을 통한 소그룹 리더십 향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19-20.

55) Ibid., 20.

누어 평신도를 훈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평신도훈련원은 기본적으로 세례반과 성숙반, 은사반으로 나누어 세례를 받고 교회 제직으로 훈련받으며, 은사에 따라 배치되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⁵⁶⁾

나. 상도중앙교회 지도자양성

상도중앙교회는 영아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독교교육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육목회’를 추구하는 교회이다. 상도중앙교회는 목회자의 교육철학이 평신도 훈련에 잘 나타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 상도중앙교회 담임목사 박봉수에게 상도중앙교회를 통해서 지향하는 목회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다운 교회란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말하지요. 저는 늘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 비전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역동적인 교회란 교회의 다섯 가지 기능이 활발하게 펼쳐져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즉 예전(leiturgia), 교육(didache), 전도와 선교(kerygma), 교제(koinonia), 그리고 사회봉사(diakonia)라는 교회의 기능들이 균형 있고 활발하게 펼쳐져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⁵⁷⁾

이어서 상도중앙교회에서 비전을 품고, 관심을 쏟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었을 때, 성인을 위한 신앙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새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각 체계화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새가족들을 위해서는 새가족 성경공부, 요단 스쿨, 생명 동산, 세례 교육 등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또한 기신

56) Online: <http://www.choongshin.or.kr/disciplen/sub01.asp.htm>.

57)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목사님의 교육철학을 듣는다,” 박봉수 대담, *교육교회*, 361권 0호 (2007): 5.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중앙 바이블 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어서 성경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에 맞는 사역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평신도 지도력 훈련(L.L.T.C)”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생(生)주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신부를 위한 태아학교(Hello Mom), 아기학교(유아), 꿈동이 학교(유치), 어와나(아동), 다니엘 학교(청소년), 물댄동산(청년), 가정 세미나(장년), 푸른교실(노년) 등 생의 주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⁵⁸⁾

다. 사랑의교회 사역훈련

사랑의교회 평신도훈련 과정은 첫 번째 단계에서 평신도들 중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도들을 선발하여 복음의 기초를 닦아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 준다. 두 번째 단계는 올라가면 의식개혁에 초점을 두고 다락방을 지도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낸다. 여기에서의 지도 과목은 신·구약개론과 상담의 원리와 소그룹 지도법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운다. 셋째 단계로는 전도 폭발 훈련으로서 마음의 변화, 의식의 개혁, 지식의 충족, 실습의 단계를 거쳐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목회자와 함께 사역에 임한다. 지원 자격과 교육방법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다.⁵⁹⁾

(1) 제자훈련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의 훈련 목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제자훈련은 32주 과정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 훈련은 가르치는 양육순장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시킨다. 이 훈련에서는 다시 한 번 삶의 변화를 시도한다.⁶⁰⁾

(2) 사역훈련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면 34주 과정의 사역훈련을 받게 된다. 이 훈련은 가르치는 양육순장으로 자질과 소양, 기술, 그리고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58)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목사님의 교육철학을 듣는다,” 박봉수 대담, 6.

59)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341.

60) Online: <http://jeja.sarang.org.htm>.

있다. 이 훈련은 다음의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새 생활의 열쇠: 성령’이라는 주제 하에 로마서 8장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하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깊이 있게 체득하는 훈련이다.

둘째,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이라는 주제 하에 교회론과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교회론을 통하여 제자훈련의 철학을 다루게 되고, 제자도를 통하여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자세를 배우게 된다.

셋째, ‘소그룹 모임과 리더십’이라는 주제 하에 제자훈련의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환경인 소그룹에 대하여 배우며, 소그룹의 리더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할 것인가 하는 리더십과 소그룹 인도법에 대하여 배우고, 리더로서 성경을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며,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귀납적 성경공부를 배우게 된다.

넷째, ‘신구약 성경의 주제와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주제 하에 신구약 전체를 훑어보고 그 맥을 잡는 훈련을 하게 된다. 리더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밝게 된다. 위의 공식적인 과정 외에도 영성훈련, 합반특강 등이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

라. 선한목자교회 제자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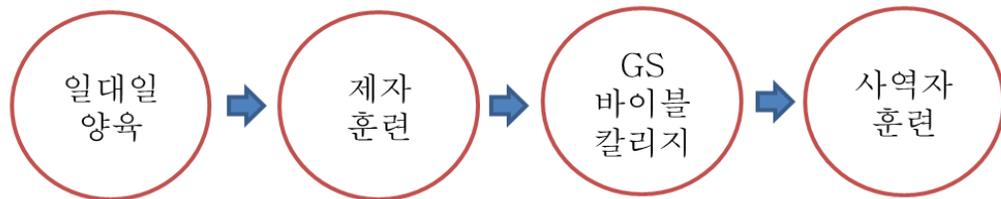
목회와 신학에서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유기성을 인터뷰하였다. 이때 유기성 목사는 성도들을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목회이고, 자신의 목회철학은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지금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라는 점을 끊임없이 묻고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선한목자교회가 담임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목회의 방향이라고 말하였다.⁶¹⁾

(1) 선한목자교회 제자훈련 과정

61) 최원준, 김문석,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회 대담,” 유기성 대담, *목회와 신학*, 2011년 2월호, 36.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바나바와 함께 일대일로 10주간의 양육을 받고, 새가족 양육 과정을 마친 등록교우들은 12주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2주의 제자훈련 과정이 마쳐지면 양육자 훈련을 받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이 마쳐진 교우들은 ‘바나바’로서 새가족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⁶²⁾ 양육자 훈련과정 뿐만 아니라 새가족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과정으로 15주 동안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다. 선한목자교회의 제자훈련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선한목자교회 제자훈련 과정



(2) 평신도 제자훈련

(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을 훈련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는 과정이다. 제자훈련 15주 과정의 대상은 새가족 양육 수료자로서 2월과 8월에 개강하며 교재는 유기성 목사가 쓴 *예수님의 사람* 1권과 2권이다.

(나) 영성일기 제자훈련

영성일기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이후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되어야 할 삶으로써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대상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수료자이며, 훈련시기

62) Online: <http://gsmch.org.htm>.

는 3월, 9월에 개강한다. 교재는 유기성 목사가 쓴 *영성일기*⁶³⁾를 가지고 훈련한다. 영성일기는 말 그대로 ‘나의 영성에 대한 일기’다. 생활일기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라면 영성일기는 주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둔다. 즉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24시간 동행기라고 생각하면 된다.⁶⁴⁾

4. 사역자훈련의 유형에 따른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네 교회의 평신도 제자훈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네 개 교회 제자훈련 유형 비교

	충신교회	상도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제자훈련 목표	모든 평신도들을 섬기는 지도자로 세운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제자훈련 대상	평신도 중 섬기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선발	평신도 중 헌신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선발	평신도 중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도들을 선발	새가족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선발
제자훈련 과정	새가족반 평신도훈련원 충신성경학교 지역지도자반	새가족반 은혜의 동산 생명의 동산 LTC LLTC	새가족반 다락방 성경공부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훈련 순장훈련	새가족반 제자훈련 GS바이블칼리지 사역자훈련

63) 유기성, *영성일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서울: 규장, 2016)

64) 김문석,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십니까,” 유기성 대담, *목회와 신학*, 2012년 10월호, 130.

평신도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중에서 네 곳을 선정하여 총신교회와 상도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의 사역자 훈련의 유형을 비교해 보았다. 평신도 신학을 기준으로 강점과 약점을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총신교회 평신도훈련원의 강점은 첫째, 세레반부터 시작하여 성숙반과 은사반에 이르기까지 평신도가 ‘성경’에 기초해서 공부하고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 과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를 ‘은사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훈련하고 있다. 셋째, ‘총신성경학교’에서는 평신도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과 건강한 인격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양성하고 있다. 넷째, ‘지역지도자반’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고 교회의 예비 지도자로 훈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총신교회의 평신도훈련원과 총신성경학교는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하며, 지역지도자반은 예비 지도자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평신도 훈련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총신교회 평신도제자훈련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사역의 헌신과 열매정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었고, 교회로 하여금 선교와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 내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동시에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보고하였다.⁶⁵⁾

하지만 총신교회 평신도 훈련의 약점은 첫째, 훈련받은 평신도사역자들의 봉사가 교회 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인 교회로 제자훈련의 대상이 평신도 중 섬기는 지도자로 세위기 위해 선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평신도 훈련이 성경과목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평신도 훈련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훈련의 과정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목회자가 주체자라는 점이다.

상도중앙교회 평신도 훈련의 강점은 첫째, 목회자의 ‘교육목회’에 대한 관심과 교육목회 철학으로 교육과정이 일관성있게 구성되어 있다. 둘째, 평신도들을 대상에 따라 3가지로 훈련한다. ①새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②기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65) 주재필, “평신도제자훈련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제자교회와 총신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1), 97.

③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각 체계화하였다. 셋째, 생의 주기에 따라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넷째, 기독교교육 과정으로써 신앙 성장을 단계별로 밟아 갈 수 있도록 - 은혜의 동산, 생명의 동산, LTC, 평신도 지도자양성 과정(LLTC) - 양육체계를 가지고 있다.⁶⁶⁾ 평신도 지도자양성 과정에서는 ‘교리교육’과 ‘삶과 영성 훈련’,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도중앙교회의 평신도 훈련은 ‘교육목회’의 커리큘럼으로 교육과정을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첫째, 사역의 주체가 목회자이며,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가르치거나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둘째, 평신도가 교회의 교육목회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적응하기 힘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위 교회를 떠도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의 교육시스템에 동화되거나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단계별로 훈련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훈련을 제 시기에 받지 못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의 강점은 첫째, 전통적 교회론을 극복하고 선교를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인 평신도를 초대 교회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봉사자로 무장하는 교회론에 기초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는 점이다.⁶⁷⁾ 둘째,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하므로 평신도 리더십이 안정적이다. 셋째, 평신도가 순장제도를 통해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게 하고 제자훈련을 마치고 사역훈련을 수료한 순장(리더)은 ‘위임’과 ‘분할’, ‘개척’과 같은 재생산 역할의 중심에서 목회사역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넷째,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론의 토대위에 평신도를 훈련하는 제자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약점은 첫째, 제자훈련의 과정이 길고 어렵다는 점이다. 제자훈련이

66) 상도중앙교회는 기독교 기초교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은혜의 동산’을 평신도 교육과정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님, 기도, 교회에 대해서 배우며, 다음 단계인 ‘생명의 동산’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의 일원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 다음 단계로 ‘LTC 과정’에서 기독교 핵심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이를 마친 평신도 사역자들을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평신도 지도자양성 과정(LLTC)’을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하였다.

67)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개정54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79-86.

32주 과정이며, 다음 단계인 사역훈련은 34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평신도 제자훈련을 모든 교회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평신도 훈련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성도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평신도의 사역 참여가 가능하지만 주로 전문적인 영역(상담, 법률, 순장 등)에서 국한되어 활동하는 점이 아쉽다.

선한목자교회의 제자훈련의 강점은 첫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15주 과정으로 약 4개월 동안 이뤄지며 사랑의교회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둘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주제로 평신도를 주님의 제자로 훈련한다. 셋째, 훈련이 마쳐지면 그것으로 제자훈련이 끝나지 않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성일기 제자훈련’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영성일기 나눔방에 등록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나눔방에 가입하거나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나눔방을 만들며, 영성일기를 나눔방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기에 격려의 댓글로 반응하라”⁶⁸⁾고 가르친다. 영성일기 제자훈련은 주님을 교리로만 알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무르도록 훈련하고 있다. 삶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도록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는 제자훈련이 선한목자교회가 가진 강점이다.

선한목자교회 평신도 훈련의 약점으로는 첫째, 평신도의 사역 참여가 가능하지만, 사역의 주체가 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의교회 제자훈련과 비교했을 때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분할 . 개척과 같은 재생산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둘째, 영성일기는 공동체 보다는 자칫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머무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셋째, 선한목자교회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68) 김문석,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십니까,” 132.

제 3 장

새신자 양육 이해

제 1 절 새신자 양육의 개념

1. 새신자의 정의

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갓 영접한 사람이며, 교회 예배에 참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개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후 세례받기 전까지의 신자를 일컫는다.⁶⁹⁾ 협의의 정의를 보면,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며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고 시작하고 있는 신자를 말한다. 광의의 새신자 정의를 보면, 초신자는 물론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어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한 전입교인과 교회에 등록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교회를 간헐적으로 다니는 영적 유아상태에 있는 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⁷⁰⁾

원래 새신자라는 말은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새신자라고 하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해당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새신자나 초신자라고 할 수는 없다.⁷¹⁾ 따라서 새신자와 기존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 신자가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경우는 새가족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수님을 갓 영접한 새신자와 교회를 이동해 온 기존 신자인 새가족을 포함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신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69) 가스펠서브 편, *교회용어사전*, 95.

70)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 (서울: 도서출판 이레아트, 1993), 80-81.

71) Ibid., 10.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박상진 교수는 ‘새신자 의식구조와 새신자 교육의 커리큘럼 작성’에 대한 그의 글에서 새신자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새신자’라 함은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새교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양육을 받아 다시 다른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⁷²⁾ 그는 새신자에 대하여 한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하여 기독교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새신자의 발달과업을 파악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신자가 양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재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새롭게 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까지를 ‘새신자’라 부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새신자의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새신자란 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신자이며, 또한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롭게 전입한 교인과 교회에 등록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교회를 간헐적으로 다니는 영적 유아상태에 있는 신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2. 새신자의 유형

새신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신자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새신자의 유형을 보면 기존 신자들의 수평이동이 많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 교회성장연구소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6.5퍼센트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 도중 평균적으로 2.4회 교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를 이동하는 원인은 직장문제가 23.1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설교와 인격 등 목회자 문제가 22.8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밖에 이사가 16.7퍼센트, 봉사문제가 8.6퍼센트, 인간관계 갈등문제가 6.7퍼센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회에 옮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20.4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14.1퍼센트였으며, 봉사활동이 12.1퍼센트에 참여하는 순으로 조사되었다.⁷³⁾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과 이사와 같은

72)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II* (서울: 임마누엘미디어, 1994), 59.

73) 교회성장연구소, *교회 선택의 조건*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25-73.

사회적 현상으로 교회를 옮기는 비율이 49.8퍼센트로 이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볼 때, 가장 큰 이탈요인은 목회자 문제가 22.8퍼센트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 중에 서리집사가 46.9퍼센트였으며, 일반 성도가 40.6퍼센트로 87.5퍼센트가 평신도였다는 점에서⁷⁴⁾ 교회에서 평신도 훈련과 새신자에 대한 양육 및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새신자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1991년도 장석교회가 등록자 497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존 교인과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존 교인이 136명, 처음 등록한 새신자가 361명이었고, 남녀의 비율은 남자가 34퍼센트, 여자가 66퍼센트로 여자 새신자가 더 많이 나타났다.⁷⁵⁾ 남녀 비율로 본다면 2017년 장석교회에 등록한 새신자 연령별 통계자료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017년 장석교회 새신자 남녀 연령별 접견 현황(2017년 1월~11월 12일)

구 분	연 령	접 견	연령별 비율	자치회별
남선교회	1남~3남 (45~55세)	25명	12%	25.8%
	4남~6남 (56~70세)	29명	13.8%	
여전도회	1여~6여 (40~55세)	62명	29.5%	46.1%
	7여~11여 (56~70세)	35명	16.6%	
아브라함 선교회	71세 이상(남)	15명	7.1%	28.1%
	71세 이상(여)	44명	21%	
전 체		210명		

위의 <표 2>에 있는 2017년 장석교회 새신자 남녀 연령별 접견 현황을 보면, 장년층 접견 인원 210명 중에 여자 성도가 67.1퍼센트, 남자 성도가 32.9퍼센트로 여자 성도가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1세 이상을 제외한 남자가 25.8퍼센트, 여자

74) 교회성장연구소, *교회 선택의 조건*, 35-44.

75)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II*, 60.

가 46.1퍼센트가 등록되었으며, 71세 이상 남녀 전체가 28.1퍼센트로 나타났다. 등록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은 여자 성도 40~55세로 젊은 여성층(1여~6여) 29.5퍼센트가 장석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71세 이상 여성으로써 21퍼센트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선교회(1남~3남)와 여전도회(1여~6여)를 합친 분포 비율은 41.5퍼센트로 전체 인원 중에 40~55세 남녀가 약 42퍼센트가 젊은층 새신자로 나타났다. 새신자 중에 여자 성도 40~55세의 젊은 여성층(1여~6여)은 29.5퍼센트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그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자녀들의 교육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가 갖는 관심사가 자녀교육에 있으며 이는 신앙교육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교회 출석동기에 따라 새신자 유형을 분류해 볼 수도 있다. 먼저 신앙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심하지 못한 사람’과 ‘회심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구성요소를 지식(교리), 신념(교회 사회화), 신앙(회심)으로 볼 때 다시 이 두 가지 구분을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⁷⁶⁾

<표 3> 기독교 신앙의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

유형	지식(교리)	신념(교회 사회화)	신앙(회심)
A	O	X	X
B	X	O	X
C	O	O	X
D	X	X	X
E	X	O	O
F	O	X	O
G	X	X	O
H	O	O	O

76)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II*, 61.

A유형은 교리적으로 복음의 내용이나 성경지식을 갖고 있지만 교회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이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지식적으로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기독교계 학교(mission school) 출신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B유형은 기독교적 교리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습관적인 교인들로서, 교회생활에는 익숙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믿지도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유형은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를 통해 성경지식과 기독교적 교리를 배웠고 교회생활에도 익숙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지는 못한 명목상의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D유형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기독교적 교리나 교회생활, 구원에 관한 사실, 이 모든 것이 생소한 유형이다. E유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교회생활도 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지 못했으며, 교리체계가 약한 신자이다. F유형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적 교리체계나 성경지식을 지니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교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든지, 혹은 선교단체를 통해 일대일 만남 또는 개인성경공부에는 익숙해 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는 신자이다. G유형은 복음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아직 기독교적 교리체계도, 신앙생활도 익숙해지지 않은 초신자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H유형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사라든지 다른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오는 유형으로써 사실상 새신자 교육 보다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신자이다.⁷⁷⁾

<표 3>을 보면 A유형부터 D유형까지는 회심하지 못한 새신자 유형에 속하고, E유형부터 H유형까지는 회심한 새신자 유형에 속한다. A유형부터 H유형까지 모두가 새신자로서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대상이다. 다만 새신자의 유형에 따른 특성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양육의 방식이 아닌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기독교교육의 목적이 함의된 양육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접견할 때 새신자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양육자들에게 공유하여 시기적절하고 적합한 돌봄과 양육이 이뤄지도록 하면 새신자가 성장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77)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II*, 61-62.

그밖에도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새신자를 동기별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과 접촉되지 않는 새신자 교육은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것을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인 동기’로써 이제는 좀 더 바르게 살고 싶은 동기로 교회를 찾는 경우이다. 둘째는 ‘치유의 동기’로써 자신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길 원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문제해결의 동기’로써 웬지 모르게 불안해서 교회를 다니면 일이 잘될 것 같아서 교회에 등록하는 유형이다. 넷째는 ‘진리 추구의 동기’이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구도자의 자세로 교회에 나오는 유형이다. 다섯째는 ‘습관적인 동기’로써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경험이 있거나 교회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을 때 습관을 좇아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유형이다. 여섯째는 ‘무동기적인 동기’로써 특별한 동기 없이 주위 사람의 권유나 호기심에 교회에 등록하는 유형이다.⁷⁸⁾

이러한 동기들 외에도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 교회 구성원이 상권을 장악한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등록하는 유형이 있으며, 구제와 관련하여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대인관계와 교제권 확대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유형도 있다. 이상과 같이 새신자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교인과 처음 등록한 교인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새신자의 연령에 따른 유형도 성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새신자의 유형을 나눌 수도 있고, 교회에 출석 하는 동기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을 파악하고 탐색하여 새신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양육자가 양육의 상황을 피양육자 중심으로 적용한다면 양육과 정착에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양육의 의미와 필요성

양육이란 돌보아 길러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며(창 50:23; 민 11:12; 에 2:20; 엡 6:4; 딤후 4:6), 성도의 영적 성장은 오직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사 1:2; 딤후 2:12).⁷⁹⁾ 새

78)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II*, 62-63.

79) 가스펠서브 편, *교회용어사전*, 131.

신자 양육은 ‘영적인 소아과’라고 불리어 왔다. 그것은 새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결실하도록 부모와 같은 관심으로 돌보아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영적 고아들은 많으나 영적 부모는 적다.⁸⁰⁾ 웨이론 비 무어(Waylon B. Moore)는 양육의 개념을 영적 부모의 역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모처럼 비유하였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하고 말했다(고전 4:15). 그는 또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구원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불렀다(갈 4:19; 살전 2:11).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로서의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해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아기들을 돌아볼 것을 부탁하였다. 영적인 아기에게 양부모가 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거나 양자로 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영적인 부모는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거나,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영적인 양자가 된 새신자나 성숙하지 못한 동료 신자를 부모의 마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주는 것이다.⁸¹⁾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어도 새신자는 스스로 성장하기 어렵다. 성인이어도 영적인 유아상태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영적 유아상태에 있는 새신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그들이 주 안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서 스스로 걷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영적 부모로서 돌보는 양육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 거듭난 삶을 추구하며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새로운 신자가 증인의 삶을 살며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새신자 양육의 목적이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 정착하여 그 교회에 일원이 되어 봉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새신자가 양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며 예수님

80) Waylon B. Moore, *새신자양육의 원리와 방법 (New testament Follow-up)*,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4), 27-28.

81) Ibid., 28.

이 명령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는 말씀의 순종이다.

세례 받은 자라도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 언약에 대한 개인의 외적 관계를 나타내는 증표인 세례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세례는 세례 받은 자에게 언약적 특권과 책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지만, 언약의 내적 본질인 구원의 참여자가 되게 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제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⁸²⁾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는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한다. 구원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요 10:10)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15:4),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마 3:8; 눅 3:8).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하셨다.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함을 받게 된다. 주님은 믿는 성도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벧후 1:8). 그리스도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골 1:10)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며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제 2 절 양육의 성경적 이해

1. 구약성경에 나타난 양육

구약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전기 이스라엘’의 교육으

82) Joel R. Beeke,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Bringing the Gospel to Children)*, 김진선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1), 18-19.

로, 이후를 ‘후기 이스라엘’의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³⁾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사무엘 롤스 드라이버(Samuel Rolles Driver)는 신명기 6장 4절은 신명기의 제일 중심부분을 이루고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유일신관에 대한 천명이며, “들으라”는 강한 요구를 나타내는 명령으로써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가르침의 기본 형태라고 말했다.⁸⁴⁾ 이렇게 “들으라”는 ‘순종하다’(obey)란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쳐 말씀의 제자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 행하라”⁸⁵⁾고 정의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쉘마(שמע), 즉 아래와 같은 신명기 6장 4-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전수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다.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히브리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쉘마를 암송하는 의식을 지키고 또한 가르쳤다(신 6:7). 이것이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쳐서 쉘마를 읽도록 하며 암송하도록 시키고 그것을 외우게 하였다. 유대인은 학문하는 것을 ‘미쉬나’(Mishna)라고 일컫는다. ‘미쉬나’란 반복과 교훈을 뜻한다. 미쉬나는 토라를 알아듣기 쉽게 풀어 설명하여 되풀이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⁸⁶⁾ 윌리엄 앳킨스(William A. Atkins)는 유대인의 교육은 “하나님의 의와 하

83) Lewis J. Sherrill, *기독교교육의 발생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이숙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9.

84) S. R.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973), 89.

85)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쉘마 1* (서울: 쉘마, 2006), 129.

86)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8), 286.

나눔에 관한 교육이며, 삶 자체였으며 삶을 전개시키기 위한 것으로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⁸⁷⁾이라 말하였다.

쉐마에 나타난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자녀에게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즉 야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고,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교육의 명령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교육의 사명을 받은 일차적인 교사였다. 이 시기에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종교적 사회화가 이루어졌다.⁸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유대인의 의식을 고수하느냐, 혹은 아시리아와 갈대아의 포로로 잡혀가 율법을 망각하였다가 사멸했던 것처럼 삼켜지느냐가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고국에서 흡수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유대인을 방패로서 보존되었던 정신은 모든 포로들을, 비록 그들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지켜주었다. 외세에 저항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속성을 탐구하는 일에 열중하여 하나님의 교리를 심화시켰다. 외세에 저항한 유대교는 토라의 랍비적 해석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토라에 복종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자유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교는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학교조직을 통하여 제시된 교육으로써 영향력을 나타내었다.⁸⁹⁾ 구약시대는 철저한 율법주의 시대로 말씀자체가 교육 내용이었다. 제사 의식을 통한 하나님 경외의 생활은 자녀들에게 읽고 듣고 전승하게 하는 모세의 율법과 율례가 유일한 교육과정이었다.⁹⁰⁾

유대 전통에서 견습생을 의미하는 단어는 탈미드이다. 탈미드는 유대교 전통과 성서에 일생을 바치기로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다. 히브리 구약성경에서 탈미드가 사용된 곳은 역대상 25장 8절이다. 이에 마이클 윌킨스(Michael Wilkins)는 “역대상 25:8에 쓰인 탈미드라는 용어는 뭔가를 배우고 견습하는 대상을 가장 잘 표

87) William A. Atkins, *Education Philosophies and Practices in the old Testament, Religious Education* (2006): 507.

88) 고원석 외 5인, *기독교교육개론* (개정;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3), 313.

89) Sherrill, *기독교교육의 발생*, 56-62.

90) 김영규, *기독교교육학 개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 2011), 85.

현한 단어”⁹¹⁾라고 말한다. 스승과 함께함 그 자체가 배움의 한 수단이었고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 스승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유대 전통을 이어갈 제자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구약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암시하는 경우를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주종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엘리가 비록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라도, 사무엘은 아버지와 같은 엘리에게서 함께함과 친밀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유사한 경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 칼 렌스토프(Karl Rengstorf)는 그들의 관계가 주종 관계임을 명시하면서도 당시 유명한 선지자들 즉,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종의 개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영(E.J. Young)은 그들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스승과 함께한다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들에 의해서 지식적으로나 삶의 모든 방식에서 영적으로 양육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⁹²⁾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며 양육한 것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의 좋은 양육 모델이 된다. 사무엘상 1장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하여 그를 젖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떼기까지 기다리다가”라고 말씀한다. 이스라엘의 양육에 대하여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에서는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약 외경 마카비하 7:27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3살이나 4살 때까지는 젖을 떼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구약 당시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곳이고, 면역성과 저항력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물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온 집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께 올라가야 하는데, 한나가 남편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지 않고 이와 같이 남은 이유는 아이가 아직 어려 장거리 여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젖을 떼기까지 이처럼 어머니 한나로부터 육체적인 양분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신앙의 양분도 공급받았을

91) 김남식, *동행 전도학*, 20

92) Ibid., 20-22.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일반적으로 25세에서 50세까지 성소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민 8:24, 25), 짓을 떼 후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겠다는 한나의 서원은 그녀의 깊은 신앙심을 반영해 보여준다.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일꾼이 된 데에는 한나의 이러한 훌륭한 신앙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⁹³⁾

이처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육체적인 보살핌뿐 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신앙교육과 양육을 통해 성숙한 언약백성으로 자라났음을 알 수 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수 1:8) 한나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사무엘에게 헌신적으로 양육했을 것이다. 이는 어머니 한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엘가나의 역할도 중요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하여”(삼상 1:23)에 해당하는 원문은 “당신은 눈 안에 선한 것을 행하라”로 직역할 수 있다. 율법은 아내의 남편의 허락이 없이 자의적으로 한 서원을 남편이 무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민 30:6-15).⁹⁴⁾ 여기서 엘가나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서원한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용납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엘가나는 한나가 하나님께 자의적으로 행한 서원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인정하는 것을 볼 때, 그 또한 경건한 신앙인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엘가나가 한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했으며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범적인 신앙의 사례를 보여준다. 사무엘은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어머니 한나로부터 양육을 받고 엘가나의 지지아래 신앙교육을 전수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던 사무엘은 말씀의 이상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양육은 부모와 제사장, 예언자와 회당장, 교사 등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 그 자체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유지하도록 하는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93)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상 제1-10장* (서울: 제자원, 2006), 109.

94) Ibid., 110.

2. 신약성경에 나타난 양육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주권성과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는 말로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산상수훈으로 첫 가르침을 주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복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자세를 가르치셨다(마 5:1-12).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위해 부르셨고, 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르치라고 하셨다(마 10:7).⁹⁵⁾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확대된 소개로 시작하고 있으며, 플롯은 예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⁹⁶⁾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잃은 양들을 찾아 구원하셨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한 것은 새신자 양육의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호세 보르톨리니(Jose Bortolini)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찾고 있는 ‘신부’라고 비유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요 4:4)고 말한다. 예수는 소외되고 주변화 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부를 만난다. 이 만남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준 것이다.⁹⁷⁾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으러 나왔으며(요 4:7), 거리의 여인이라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⁹⁸⁾ 예수님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잃은 양을 찾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그녀가 죄로부터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개입하여(요 4:16-18)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친밀하도록 도우셨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줌으로 새 삶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95) 고원석 외 5인, *기독교교육개론*, 319.

96) G. E. Ladd, *신약의 중심사상*, 이남중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4), 86.

97) Jose Bortolini, *요한복음 읽기: 생명의 길*, 김수복 역 (서울: 성바오로, 1997), 72.

98) 그녀에게 남편 5명이 있었지만 현재 남편도 혼인신고가 안 된 남자였다(요 4:16-18). 그녀는 결혼의 실패와 절망으로 깊은 좌절이 있었으며, 여인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최악 가운데 빠져 그것이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있었다.

되게 하셨다(요 4:28-42).

C. K. 바레트(C. K. Barrett)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바로 자기민족의 예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은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였다.⁹⁹⁾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사마리아여인은 여성신자의 모델이며 사마리아 성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⁰⁾

사도행전에 나타난 새신자 양육을 보면, 새신자 교육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여행일정을 짠다(행 15:36).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나가, 베뢰아, 아텐, 고린도 전도와 새신자 교육으로 최초의 교육서인 데살로니가전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된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년 반 동안 가르치고(행 18:11), 차레로 다니며 양육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레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말씀한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행 18:24-26)의 모습이 나온다. 사도행전 19장 8-10절에는 회당과 두란노에서 가르친 바울의 모습이 나온다.¹⁰¹⁾

신약성경 모두가 새신자 양육을 가르치고 설명한 책이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대부분의 서신들도 새로 믿는 사람들의 양육을 위한 서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²⁾ 바울의 설교와 간증에서 새신자 교육 내용으로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와 아텐의 설교와 간증은 사도행전 22장, 26장을 전도와 새신자 교육 내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는 유대인을 향한 설교이므로 신론을 생략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 한다. 그러나 아텐의 설교는 이방인을 위한 설교이므로 신론에 대한 증거가 길게 나타나고, 그 다음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으로 이어진다. 이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¹⁰³⁾

사도시대의 새신자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설교를 통한 교육

99) C. K. Barrett, *요한복음 2*, 한국신학연구소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4), 239.

100) R. Alan. Culpepper, *요한복음의 해부*, 권종선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21.

101)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서울: 도서출판 돌곶이, 2000), 50.

102) Moore, *새신자양육의 원리와 방법*, 19-20.

103)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51.

으로 당시의 사도들은 시급한 복음 선포를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했다. 둘째는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교육이었으며, 셋째는 말씀의 모임을 통한 교육이었다. 넷째는 성만찬을 통한 교육이었으며, 다섯째는 공동의회를 통한 교육으로써 교회는 숫자가 더해지면서 점차로 감독, 장로, 집사 등의 직제를 만들었고, 사도와 장로들은 따로 모여 교회의 규범을 세워갔다. 여섯째는 가정을 통한 교육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훈육 신앙교육을 실천하였다. 일곱째는 문서를 통한 교육이다. 바울서신은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의 문서이며 서로 돌아가면서 교육의 자료로 읽어갔다. 이런 문서들 외에도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에 관한 여러 문서들이 쓰여 졌고, 또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사도들의 일반서신들과 같은 많은 문서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강력한 교육의 길이며 내용이 되었다.¹⁰⁴⁾

신약성경은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고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강조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한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딤후 4:6). 신약성경에 나타난 양육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를 삼고 파송하여 확장되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엡 4:12)과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봉사자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3. 양육의 범위와 한계

장석교회 새신자목회 세미나에서 ‘성서에 나타난 새신자 교육’에 대해 강의한 정기덕은 새신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

104) Moore, *새신자양육의 원리와 방법*, 22-26.

이 말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의하면 “제자를 삼아…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제자를 삼아”에서 새신자는 제자삼기 전까지인가? 아니면 제자가 된 직후까지인가? 제자삼아 가르치라 했는데, 이 가르침은 새신자 교육에 포함되는가? 그 다음 단계인가? 세례받기 전인가 후까지인가? 이 범위 규정에 따라 새신자 교육이 있었는지? 그 교육내용과 방법은 무엇인지가 결정된다.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의하면 하루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으므로 그 제자들은 우리식으로 보면 새신자이고, 소위 열 두 제자는 3년 만에 사도로 승격한 모양이다.¹⁰⁵⁾

신약성경에서는 어디까지가 새신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고린도전서 2장 6절-3장 9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며(고전 2:14),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고전 3:1), 셋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고전 3:1).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신령한 자’와 대조되는 의미로 ‘육신에 속한 자’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을 가리키는 ‘육에 속한 사람’과는 구분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프쉬키코스…안드로포스’(ψυχικὸς…ἄνθρωπος)로 표현한 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이스’(σαρκίνοις)란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앞서 나온 ‘프쉬키코스’가 죄악된 자연인의 본성 그 자체를 나타낸다면 ‘사르키노이스’는 자연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란 의미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3:1)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육에 속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연인의 본성에 더 지배받아 육신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의미한다.¹⁰⁶⁾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에서 ‘육신에 속한’으로 번역된 ‘사르키코이’(σαρκικοί)는 1절에 언급된 ‘사르키노이스’(σαρκίνοις)보다 더욱 강한 표현이다. ‘사르키노이스’가 육신 자체를 가리키는가 하면 ‘사르키코이’는 육신적인 특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한 의미의 단어가 포함된 것은 육신

105)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34.

106)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제1-9* (서울: 제자원, 2006), 192.

의 정육에 계속해서 투항하고 있는 고린도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비난의 의미가 포함 된 것이다. 복음을 들은 초기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심오한 진리를 수용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¹⁰⁷⁾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엡 4:13-14)고 말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초대교회에서 딱히 어디까지가 새신자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성장과정을 말하고 단순히 따르는 자와 제자와(이 제자도 누가복음에는 두 그룹이 나온다. 열두 명과 칠십 명, 그리고 120명, 500명)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에는 교사, 감독, 집사, 장로 등의 지도자 그룹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점점 새신자와 성숙한 기존신자의 구별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⁸⁾

박상진은 새신자의 명칭에 대하여 믿기 전의 사람을 새신자라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타교회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를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선교단체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과정이 분명하고 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초기 과정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선교단체의 특성을 수용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역 교회의 경우는 다르다. 아직 확신이 없어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어도 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신앙공동체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¹⁰⁹⁾

본 연구자는 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와 타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새롭게 전입한 성도를 새신자 양육의 대상으로 본다, 본 연구자가 섬기는 장석교회는 새신자 양육의 범위를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7주 과정, 기존신자의 경우 4주 과정으로 나뉘고 새신자 성경공부가 각각 마쳐지면 등록교인이 된다. 새신자가 등록교인이 된 이후 교구에 소속되어 구역 모임과 자치기관(남.여선교회) 및 교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6개월까지 정착을 돕는 정착부의 과정까지 새신

107)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제1-9*, 195.

108)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34.

109) Ibid., 471.

자 양육의 범위로 한다.¹¹⁰⁾ 각 교회마다 새신자 양육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대개의 경우 새신자가 4~8주간의 성경공부를 마치면 새신자부서의 역할은 끝이 난다. 하지만 새신자가 등록교인이 되어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기 때문에 짧은 기간 적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기가 어미의 돌봄을 필요로 하듯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게 된다. 지역교회가 안고 있는 한계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교회에 출석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문제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신자 양육의 연구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제 3 절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1. 새신자 양육의 문제

새신자 양육이란 전도의 열매를 보전하고, 성숙하게 하며 번식시키는 것이다.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¹¹¹⁾ 새신자가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은 목회의 여러 사역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임에 틀림없다.¹¹²⁾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신자 양육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박상진 교수가 제시한 ‘새신자 양육의 문제점’을 현재에 맞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하였는데 이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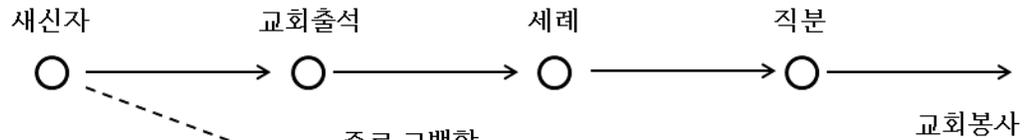
110) 새신자의 정착을 돕는 정착부의 활동 보고서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111) Moore, *새신자양육의 원리와 방법*,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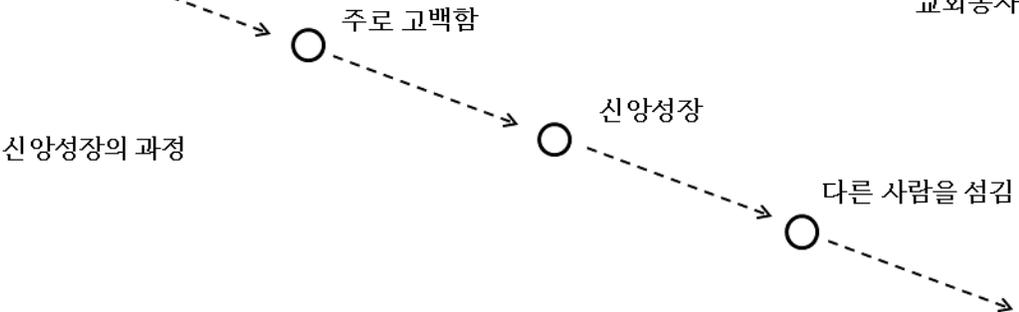
112)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 64-65.

<그림 2> 새신자 양육의 문제점

A: 교회 구성원이 되는 길



B: 신앙성장의 과정



위의 그림은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과정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묘사한 것이다. A는 새신자가 교회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 봉사자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다. 반면 B는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단계에까지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A와 B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크게 4종류의 새신자 양육체계가 있을 수 있다.¹¹³⁾

첫째로 A만 있고 B가 없는 경우이다. 이것은 생명력이 상실된 전통주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새신자에 대한 교회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일 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새신자는 있으나 새신자 양육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둘째는 B만 있고 A는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보다는 선교단체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교회관이 약하다고 일부 비판받는 네비게이토나 UBF, CCC 등의 선교단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등 신앙성장에 주력하지만, 교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관심이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A와 B가 모두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교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과

113)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 65.

신앙성장의 과정이 구별되어 존재하는 이원체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새신자 양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아직 교회 전체가 양육체계로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의 과도기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A와 B가 일치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초대교회의 새신자 양육체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신앙성장의 과정이 곧 교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신앙성장을 의미하는 체계이다. 교회 전체가 신앙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교회됨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새신자 양육의 이상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¹¹⁴⁾ 따라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신자 양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양육의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새신자 양육의 원리

새신자 양육의 원리는 성경에 담겨 있으며 신약성경 자체가 새신자를 위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신약의 복음서가 새생명의 탄생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도행전이 새생명 탄생의 확산을 보여준다. 서신서(바울서신과 공동서신)는 갓 태어난 생명을 염두에 두고 그 생명의 보존과 성숙에 대해 언급하며, 계시록은 새생명이 맞이한 최대의 위기인 신앙의 박해를 극복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신약성경 자체가 새신자 양육을 위한 좋은 교과서인 셈이다.¹¹⁵⁾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새신자 양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새신자 양육의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신약성경 시대에 새신자는 교회의 공동체적, 가족적인 사랑 안에서 양육되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각 교인을 “그들의 식구”로 간주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서로 지체”로 보았으며(롬 12:5; 엡 4:25), 그 결과 서로를 책임졌다(롬12:13; 고전 12:25-26). 그것은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이다.¹¹⁶⁾ 건강한 가정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돌봄의 공동체이다. 교회와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일차적인 책임인 돌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세대에게 돌봄의 열정과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¹¹⁷⁾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고 예수

114)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 65-66.

115) Ibid., 54.

116)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이남하 역 (대전: 대장간 2013), 119.

님과 제자들(그분이 혈육이라고 말씀하셨던) 간의 관계가 지닌 가족적인 특성을 새롭게 강조하셨다”¹¹⁸⁾고 말한다(막 3:32-34; 막 10:29-30; 요 19:25-27). 이와 같이 새신자는 교회로부터 사랑과 가족의 돌봄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

둘째, 초대교회 당시 새신자는 세례교육을 통해 양육되었다. 예수께서 몸소 세례를 받으셨고 그의 말씀 중에서도 새생명과 세례(물과 성령으로)를 결부시켰기 때문에 세례는 매우 중시되었다. 새로 태어나는 일과 세례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으로 결부되었다.¹¹⁹⁾ 세례는 죄에 대해 죽고 새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세례의 절차에 대해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요일 아침 세례자들 위에 손을 얹고 모든 악을 쫓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 세례자는 그들의 얼굴에 숨을 내쉬고 그들의 이마, 귀, 코를 막은 다음 (세례대상자는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제 세례대상자는 물에 서서 사단을 부정하고 그의 악령들을 부정하고 그의 모든 사악한 일을 부정하도록 명령받는다. 이후에 장로는 곧 세례를 받을 자를 향해 기름을 바르며 “모든 악한 영이 떠나게 이 영혼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물세례를 받은 이후 다시 한 번 기름부음을 받는데 이는 곧 성령세례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례는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의미하며, 죄에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의미한다.¹²⁰⁾

세례교육은 성서교육과 신조교육, 생활교육, 축마와 도유를 포함한 상징행위를 통해 세례후보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재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위한 최초의 복음전도이며 구체적인 교회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예비과정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였다.¹²¹⁾ 초대교회에서는 각 교회 지도자들의 주관에 따라 세례교육기간 동안 전도자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세례교육은 새신자들이 신앙의 동기에 대한 고백을 세례후보자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여 제일 먼저 다루었다. 이 교육은 신앙의 동기에 대한 고백을 듣고 나서 지원

117) Donald Capps,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문희경 역 (서울: 이레서원, 2002), 105.

118) Robert Banks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45.

119)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 55.

120) Robert E. Webber, *Ancient-Future Evangelism* (Grand Rapids, MI: Baker, 2003), 99.

121)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서울: 대한기독교문서회, 2012), 108.

자들의 신분 내지는 생활 상태를 점검하였다. 초대교회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지원자의 신분이 자유인인지 종의 신분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¹²²⁾ 이처럼 초대교회는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해 예수님이 몸소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세례교육을 통해 죄사함과 거듭남의 교리를 가르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을 위해 가르쳤다.

셋째, 성경에서는 새신자의 성숙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로 맞추고 있다. 초대교회가 새신자를 양육하고 변화시킬 때 성숙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의미에 대해 복잡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설교하고 있지만,¹²³⁾ 그 용어와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이다. 기자는 히브리서 3장 7-11절의 기록을 통하여 에서를 모방해서는 안 될 인물로, 반대로 예수를 따라야 할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청중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다. 기자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새신자 양육의 이론적 기초라는 주제로 강의한 안교성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 christi) 사상이 된다고 말했다.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측면에 관심이 적어 주로 이것을 순교적 고난에서 이해했다. 그러나 차츰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면서, 중세 교회부터는 예수의 지상생애의 문자적 모방이라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신자에게 신앙의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추종인가 혹은 단순한 흉내인가를 분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예수상이 변모하듯이 그에 따라 신자의 신앙모델도 변모하여 왔다. 가령 베스트셀러인 찰스 쉘톤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은 19세기 경건주의적 예수상을 표방하고 있다.¹²⁴⁾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¹²⁵⁾ 성경은 이와 같이 증거 한다. 성도가 주안에 있을

122)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 세움북스, 2016), 71.

123) Thomas G. Long, *현대성서 주석: 히브리서*, 김운용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33-34.

124)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 56.

12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

때 신앙이 성장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요 15:4). 그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 아픈 자를 위로하셨다. 사람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 주셨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¹²⁶⁾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언약이 성취된 사건에 대해 전하고 가르쳤다. 이는 베드로의 설교(행 2:4-36)와 스테반의 설교(행 7:1-53), 바울의 설교(행 13:13-41)에 나타나있다. 또한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설교(행 17:16-31; 행 20:17-27)에도 잘 나타나있다.

3. 바울서신에 나타난 새신자 양육 모형

가. 데살로니가전후서¹²⁷⁾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이 서신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새신자 교육 지침서이다. 새신자 교육목표, 교육방법, 내용 등이 나오므로 이 서신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장에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말하고(살전 1:6), 2장과 3장은 새신자 양육의 원리를 보여준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새신자

도라(엡 4:15).” 이는 신앙 성장의 목표 지점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게까지’에 해당하는 ‘에이스’(εις)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치사로서 성도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에게까지 자라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도의 성장의 목표는 사람 중에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이어야 한다. ‘범사에’에 해당하는 ‘타 판타’(τὰ πάντα)가 ‘모든 분야에서’(NIV, in all things) 혹은 ‘모든 면에서’(NASB, in all aspects)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 행위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의 성장의 최종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갖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649.

126) 총회교리교육지침서편찬위원회 편, *평신도 교리교육 지침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58-60.

127)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39-41.

를 양육했는가?(살전 2:7-12), 3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더 참을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계속 양육하게 하려한 일을 말한다(살전 3:1-5).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에 소문이 났다(살전 1:7-8). 여기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새신자 양육의 자세와 방법

- 부모처럼
 - 어머니의 역할 - 유모가 자녀에게 대하듯(유순하게)
 - 아버지의 역할 -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엄격)
- 본을 보임
 - 경제적으로 - 수고하고 애쓰며, 밤낮 일함(자비량)
 - 신앙과 도덕으로 -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함으로
- 목숨까지 주려는 사랑으로 - 사랑하는 자가 됨

② 새신자 교육내용

- 하나님의 복음(2회 언급)
-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 매 장 끝에 재림을 언급함

③ 새신자 교육의 목표

-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며
-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환난 2회 언급)

④ 후속조치 - 양육계속 - 참다못해(2회 언급)

- 동역자 파송
- 서신을 보냄

나. 고린도전후서

새신자의 문제점들이 소개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한다. 고린도전서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서 새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침서이므로 새신자 교육에 도움이 된다. 바울은 교인을 3장 1-3절에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고 규정하였다. 아직 새신자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현대 교회 교인이 있다 해도 여기의 문제에 해당되면, 바울의 표준에 의하면 어린이와 같은 신자이다.¹²⁸⁾ 고린도교회 새신자들에게 일어난 문제들은 당파 문제(고전 1:12), 음행 문제(고전 5장-7장), 교회 문제를 사회재판에 소송하는 문제(고전 6장), 혼인 문제(고전 7장), 우상의 제물 문제(고전 8장), 은사 문제(고전 12:4-31, 13-14장), 부활 문제(고전 15장), 헌금 문제(고전 16장) 등이다.

다. 로마서

로마서는 정리된 최초의 기독교 새신자 교육 교과서이다(롬 1:11-15). 즉 믿음을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파하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목적은 신자, 불신자, 초신자 다 포함한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한다. 1-11장까지는 구속의 도리이므로 바로 복음이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때 알아야 할 내용이다.¹²⁹⁾ 복음의 기초인 교리에 대한 부분으로 구원의 필요성(1:1-3:20), 칭의(3:21-5:21), 성화(6-8장),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9-11장)로 구성이 된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새신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준다. 요약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 자유가 형제에게 걸림돌이 될 때 죄가 된다. 형제에게 걸림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닌가를 마지막으로 물어야 한다.¹³⁰⁾ 바울의 윤리적인 진술이 나타나는 바울서신은 “상황 서신”(Gelegenheitsbrief)이다. 바울서신이 본래 성경을 기록할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교화(敎化)하기 위해 기록된 상황서신이라면 바울서신에서 어떤 윤리적인 체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윤리”를 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윤리가 어떤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윤리적인 진술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 있기 때문이다.¹³¹⁾ 로마서에 나타나는 복음의 실천은

128)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41-42.

129) Ibid., 42-43.

130) Ibid., 43.

성도의 생활 가운데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의 토대가 된다. 구원의 시작은 새로운 생활방식의 시작이다. 기독교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4. 새신자 양육의 방법

새신자들은 대개 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 분위기와 예배에 대하여 어색해하고 낯설어한다. 교회 뒷자리와 구석자리를 찾거나 예배 중에 고개를 숙이며 두리번거리고 주보를 뒤적이는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해야 하지만 처음 듣는 성경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어렵고, 호기심과 불안감이 공존한 상태로 교회를 탐색하는데 머물러 있기가 쉽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도 전에 아쉽게도 직 . 간접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들을 위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식의 대처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웨이론 비무어(Waylon B. Moore)는 새신자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32년 만에 우리가 사는 오늘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라디오나, 인쇄물이나 또는 대중 전달의 매개체가 없이도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의 신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현대인에게는 부족한 그 무엇이 그들의 생활 속에 있어서 성령의 특별한 지도를 받은 사람들 같이 보였다. 그들이 그렇게 영적 거인이 된 것은 교육하고 훈련하는 개인적인 접촉 때문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수준에 따른 새신자 양육의 네 가지 다른 방법은 신약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개인 접촉과 개인기도, 개인적인 파송, 개인적인 통신 등이다.¹³²⁾

초대교회 당시에도 새신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새신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 전달과 양육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듯이 양육의 방법은 새신자들의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새신자들의 특성을 보면 현대

131) 장홍길, *신약성경윤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132.

132) Moore, *새신자양육의 원리와 방법*, 37.

의 개인화에 따른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소비주의 시대에 소비자의 욕구¹³³⁾에 따라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처럼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도 소비주의 신앙의 형태로 자신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인간의 개인화된 예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간접받는 것을 싫어하고 대형교회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조사한 규모별 새신자 등록률을 살펴보면 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새신자 등록률이 떨어지고,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새신자 등록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형교회들 중에는 새신자 등록률이 주로 10퍼센트 미만에 몰려있는 반면(81퍼센트), 중소형교회는 새신자 등록을 10퍼센트 미만의 교회들이 66퍼센트로 내려가고, 중중형교회에서는 56퍼센트로 하락한다. 반면 중형교회에서는 새신자 등록률 10퍼센트 미만의 교회들이 52퍼센트로 줄어드는 반면, 중대형교회에서는 이 수치가 37퍼센트까지 하락한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교회의 규모와 새신자 등록률은 반비례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큰 교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짐작하게 한다.¹³⁴⁾ 이러한 새신자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새신자 양육의 방법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새신자 양육 방법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면, 공동체 양육과 개별적 양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공동체 양육에서는 설교와 새가족 성경공부,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일에는 설교가 큰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복음적이고 단순한 설교를 통해 새신자들이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도록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새가족 성경공부반에서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배워가는 것으로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60퍼센트 이상 정착하게 되며 동반 성장한다. 다음으로 구역은 새신자들이 쉽게 동화될 수 있고 친교와 신앙을 나눌 수 있으므로 새로 등록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구역에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¹³⁵⁾

133) 풀러신학대학원의 조의완 교수는 그의 책 *iChurch 시대의 일곱가지 치명적 죄악*에서 소비주의 시대에 가려진 그리스도인들의 막힌 눈과 지성의 감각들을 통찰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회나 신앙의 도구들을 선택하는 iChurch 시대의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소비주의시대와 개인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34) 교회성장연구소 교회경쟁력연구센터 편, *한국교회 경쟁력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40-41.

둘째로 개별적 양육의 방법은 새신자들의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고려한 방식이다. 교회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양육의 방법이 때로 거부되기도 하고 새신자들의 상황이 특수하여 획일적으로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개인화된 양육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방법을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석교회가 사용하는 개별적 양육방법 세 가지는 심방양육과 전화양육, 서신양육이다.”¹³⁶⁾ 심방양육은 양육위원을 통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양육하는 방법이고, 전화양육은 만남 시간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를 통해 양육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서신양육은 사도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사용한 방법으로 그가 세운 교회에 서신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주로 고백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양육위원 제도의 성공 여부는 새신자 목회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¹³⁷⁾ 바람직한 양육의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 양육위원 선정방법과 양육위원 훈련, 양육위원의 신앙자세, 양육위원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격 등은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훈련방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 4 절 새신자 목회

1. 새신자 목회의 의미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있어야 한다. 목회 사역도 바로 이런 신앙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새신자목회는 새신자들의 함축적인 신앙을¹³⁸⁾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야 바른 목회가 된다. 그리고 새신자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새신자목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신학적이고 목회학적인 중요한 과제이다. 이용남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서 새신자 목회를 정의

135)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IV* (서울: 도서출판 그린과스츄어, 1995), 53-54.

136) Ibid., 55-57.

137)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176.

138) 칼빈(Calvin)은 기독교강요에서 신앙이 점점 발전하여 완성의 단계에 이름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준비단계를 함축적 신앙(implicit faith)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함축적 신앙이라는 단계가 있다. 여기서부터 완성을 향하여 쉽 없는 성장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 된다. Ibid., 4-5.

하였다.

첫째, 자연인으로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져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신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 둘째, 출석하는 교회의 나그네 신자가 아니라 당당한 일원이 되게 한다. ... 셋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한다.¹³⁹⁾

유익웅은 새신자 목회를 세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와 헌금과 치리에 대하여 복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줄 아는 생산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⁴⁰⁾

박상진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으며, 그때마다 성취해야 될 발달과업이 있다고 말했다.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이란 발달심리학자 로버트 해비거스트(Robert Havighurst)의 개념으로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각 연령마다 성취해야 하는 과업이 있고,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영적 생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⁴¹⁾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여덟 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¹⁴²⁾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교회로 인도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전도부와 선교부의 영역이 될 것이다.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선교단체는 먼저 복음을 접하고 공동체로 들어오지만, 지역교회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다음에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때의 지역교회에서 새신자 발달과업이 있다면 교회에 관심 갖기, 교회에 대한 호감 느끼기, 주일예배에 출석하기 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교회 출석이다. 이때의 새신자 발달과업은 ‘교회에 적응하기’라고 할 수 있다. 새신자에게 ‘교회에 적응하기’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반갑게 맞는 첫 인사, 첫 예배 도와주기, 자연스러운 환경, 깔끔한 교회 소개, 따뜻한 접

139)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169-170.

140) Ibid., 236.

141)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II*, 72-73.

142) Ibid., 73-77.

견 분위기, 교역자와의 진지한 만남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단계는 복음 소개이다. 이 단계의 발달과업은 ‘복음을 이해하기’라고 할 수 있다. 명료한 복음 이해만이 명료한 거듭남을 약속해 준다. 어떠한 동기로 교회에 나왔더라도 이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단계는 거듭남이다. 이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이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며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명확한 복음의 소개, 한 개인 영혼에 대한 집중적인 사랑 등은 거듭남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단계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 단계는 ‘회심’의 과정이 아닌 ‘양육’의 시작이다. 거듭남을 통해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 단계의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히 거치지 않을 때는 양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장하는 것 같아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여섯째 단계는 양육이다. 이 단계의 발달과업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발달과업을 성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이 있겠지만 일대일 만남과 소그룹을 활용하는 제자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목표는 ‘헌신(devo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단계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 양육을 통해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단계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 되심(Lordship)을 인정하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양육하며 삶의 영역속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여덟째 단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온전함(wholeness)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의 발달과업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 균형있게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새신자 목회를 종합하여 정의하면, 새신자 목회란 자연인의 상태에서 교회로 인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된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새신자 목회의 중요성

이용남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출석교인수의 30퍼센트 이상의 새신자 등록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출석교인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의 새신자를 등록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¹⁴³⁾ 새신자 목회는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새신자 목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이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하는 목회의 본질이다.

새신자 목회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요 21:15-17). 둘째는 영적 사산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새신자를 돌보지 않으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된다.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은혜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여 죽은 영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사산아가 되지 않도록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다. 셋째는 새신자는 젖을 먹는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¹⁴⁴⁾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안에서 잘 자라가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새신자는 아기 신자이기 때문에 어른의 식탁에서 굶기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3. 새신자 양육과 제자훈련

제자훈련의 산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분은 전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¹⁴⁵⁾ 예수님은 함께 동역할 소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어(막 3:14, 15)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드시는 일에 공생애 전체를 걸으셨고 부

143)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165.

144) Ibid., 166-167.

145)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II*, 50.

활하신 후에 그들을 파송하셨다(막 16:15; 눅 24:44-49; 요 20:21; 행 1:8).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은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시고 직접 현장 실습을 시키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경험으로 산지식을 얻어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하셨다.¹⁴⁶⁾ 교회를 여러 곳에 개척하고 목회한 바울이야말로 양육과 훈련의 모델이 아닐 수 없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만 주력하고 새신자 양육과 훈련에는 관심이 덜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엡 4:20)”는 말을 통해 바울이 이미 에베소에서 삼 년간 가르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와 규범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쳤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유사한 내용들을 편지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세워 그 새신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고, 직접 방문하여 그들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이것을 보면 그가 새신자가 진리 안에서 잘 자라야 한다는 데 지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⁷⁾

골로새서 1장 21-2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그것은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었다.¹⁴⁸⁾ 바울만이 이것을 사역의 중점적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 히브리 기자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히 13:21)이 바로 목회자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온전하라”는 말 대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6)라는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주님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146) 국제제자훈련원, *교회와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56-57.

147) Ibid., 63-64.

148)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골 1:28). 그렇게 하기 위해 21절의 말씀처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골 1:22). 뿐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골 1:22)”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바울의 제자훈련의 목표로써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골 1:23)”고 가르쳐 주고 있다. 즉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했다(벧전 5:10).¹⁴⁹⁾ 이와 같이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반면 성도들이 따라야 할 궁극적인 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더욱 강조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살전 1:6). 이렇듯 바울의 교육과 훈련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자신이 삶으로 가르치는 바를 행하고 있음을 보이는 본에 있었다.¹⁵⁰⁾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삶 가운데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새신자가 등록 카드를 쓰는 과정은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뜻이고 이후 교육을 받으며 한 교회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새신자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들은 등록하고도 일정 기간 교회를 지켜보면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한다.¹⁵¹⁾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육과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새신자는 영적인 유아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신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자와 연결하여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절 새신자 양육의 유형

지금까지 새신자 목회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역교회에서 실제로 새신자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에서 목회철학을 가지고 새신자 양육을 체계화 시키고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중에 온누리교회와 무학교회, 한소망교회 세 곳을 선정하여 새신자 양육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는 1985년에 창립되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성경적

149) 국제제자훈련원, *교회와 제자훈련*, 71.

150) Ibid., 72.

151) 김민정,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47.

인 교회론을 토대로 목회방향을 설정하고 교회가 태동하였다.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적인 공동체는 바로 예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온누리교회는 이러한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추구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첫째로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둘째는 평신도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셋째는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이다.¹⁵²⁾

온누리교회는 이른바 ‘Acts29’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Acts29란 사도행전 29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았고 계속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기록이 이 시대 교회들의 기록이 된다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처럼 기록되기를 원하는 꿈이다.¹⁵³⁾ Acts29의 핵심가치는 첫째, 교회를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둘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 흠어지는 교회가 되고, 셋째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이다.¹⁵⁴⁾ 새가족 사역의 비전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기초로 Acts29를 이루어가는 양육의 첫 번째 과정을 의미하며, 사역의 목표는 “새가족의 교회 안내 및 정착률을 향상”하는데 있고 매년 교회의 주제와 연관된 새가족 사역 주제를 설정하고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¹⁵⁵⁾

본 연구자는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강미향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새가족 양육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온누리교회가 진행하는 새가족 사역 전반을 리서치하였다.¹⁵⁶⁾

152) 온누리교회는 전통교회의 교구를 공동체라 부르고 있다. 온누리교회 DNA는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 그리고 순(筭)이다. 큐티를 통해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경건 훈련을 강조하며,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는 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온누리교회의 핵심 양육 훈련이다. 순은 가지(Branch)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영적 생명력을 가진 모임을 의미한다. 순에서는 매주 4~7 가정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큐티를 통한 깊이 있는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이다. 온누리교회 새가족사역팀 편, *온누리반*, “새가족 8주 과정” (서울: 온누리교회, 2018), 10-13.

153) Ibid., 11.

154) Ibid., 46.

155) 온누리교회 서빙고 새가족사역위원회 편, “온누리교회 새가족 매뉴얼” (서울: 온누리교회, 2017), 4.

156) 본 연구자는 2018년 6월 26일에 담당자와 40분간 전화 인터뷰하고, 2018년 6월 28일

온누리교회 새가족 등록 절차는 새가족이 처음 교회에 방문하여 1주차부터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진다. 새가족 교육은 총 8주 과정으로 진행하며 8주를 마치면 등록교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특이점은 4주간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일대일 양육자를 2~3주차에 연결시켜 5주차부터 일대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이다.¹⁵⁷⁾ 총 16주간 일대일 양육이 진행되며, 5주차부터 일대일로 연결된 새가족은 4주 동안에 일대일 교재 ‘예수 그리스도’ 1과~4과를 교육받는다. 첫 주차 교육부터 8주차를 마치면 전산에서 자동 등록교인이 되며 iSchool 과정에¹⁵⁸⁾ 연결하여 새가족이 온누리교회의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별로 등록 새가족을 초청하여 교역자와의 만남의 잔치에 초대하여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은 대그룹형식으로 강의를 1시간하며,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양육의 과정과 주체를 보면, 1주차에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Acts29 비전’을 주제로 새가족 담당목회자가 강의하고, 2주차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제로 진화론과 무신론으로 팽배한 사고를 교정할 수 있도록 창조과학회 강사인 평신도 사역자가 강의한다. 3주와 4주는 온누리교회가 강조하는 큐티에 대해 2주간 다룬다. 3주차 주제는 ‘큐티의 이론과 실제’이며, 4주차는 ‘큐티의 나눔과 양육 체계’에 대해 교육한다. 오전반의 3주차와 4주차는 목회자가 교육하고, 오후반(3, 4주차)에는 평신도 사역자가 교육한다. 5주차부터 시작되는 ‘일대일 양육’은 평신도 양육자를 중심으로 양육이 이루어진다. 강미향 목사는 평신도 사역자가 교육하는 오후반(3, 4주차)에 나눔이 더 다양하고 풍성하다고 평가하였다.

새가족 사역은 8주 과정 중에서 안내와 영접, 전산입력, 4주간의 교육과 8주과정의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를 위한 만남의 잔치까지 담당한다. 만남의 잔치는 온누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됨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각 공동체 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함

에 온누리교회에 방문하여 탐방과 인터뷰를 1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157) 온누리교회 일대일 양육은 모든 교인이 필수적으로 교육받는 과정이며, 온누리교회 두란노에서 편집한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한다.

158) iSchool 등록과 사용방법은 iSchool에서 온누리교회 등록을 먼저 확인(성명, 주민번호앞자리)한다. 등록교인 확인 후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스쿨링을 클릭하면 수강 신청(ON/OFF-Line)을 바로 할 수 있다. 회원카드는 목회지원실에서 발급하며, OFF-Line 수강시 회원카드의 바코드로 출석이 이루어진다.

게 식사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는 자리이다. 새가족 사역은 온누리교회 양육본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에 의해 <표 4>와 같이 교육과정을 진행한다.¹⁵⁹⁾

<표 4> 온누리교회 새가족 교육과정

과정	내용		장소	사역팀
	대분류	소분류		
새가족	새가족 교육 (4주)	목회철학과 Acts 29 비전	순형홀	새가족
		창조주 하나님	홍보관	
		큐티의 이론과 실제	선교관401	
		큐티 나눔과 양육체계	선교관402	
	일대일 양육 (16주)	양육자와 첫 만남 및 양육시작(1주)	선교관403	일대일
		일대일 양육(3주)	개별 장소	
		만남의 잔치	시온홀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대일		일대일 양육	개별 장소	일대일

양육체계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과목은 아래 <표 5>에 나온 순서를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되어있다.¹⁶⁰⁾

<표 5> 온누리교회 양육과정 필수과목

과정	기간(주)	내용	소계
새가족	4	새가족 4주차	온누리반
		Q.T	하나님과 나와 관계
성경	16	일대일 동반자	나와 너의 관계
	13-30	성경통독	목상의 기초인 성경공부
	16	일대일 양육자	일대일 양육자 과정

159) 온누리교회 서빙고 새가족사역위원회 편, “온누리교회 새가족 매뉴얼”, 6.

160) 온누리교회 새가족사역팀 편, 온누리반, 40.

	8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
	8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
	8	갈라디아서	복의 핵심 정리
	8	로마서	율법과 복음
선교목양	8	Why Mission	사도행전적 평신도의 삶
	10	순장사관학교	온누리교회 평신도 리더십 과정
영성	1) 영성체험: 사이닝글로리,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내적치유 중 택일 2) Q.T와 일대일, 자신의 삶에 대한 소감문 작성/공동체 담당목사 3) 학기 1회 방중 모임		

모든 개설과목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iSchool을 선택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매학기 시작은 3월과 9월 첫 주에 안내를 하는 신문이 발행된다. 필수과목들 중 Q.T와 일대일 양육자반, 성경공부반(OBC)는 지역공동체에서 담당목사와도 진행할 수 있으며 각 캠퍼스에서도 개설된다. 선택과목은 주제와 영역별, 난이도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양육프로그램은 아래 <표 6>과 같다.¹⁶¹⁾

<표 6> 온누리교회 양육과정 단계별 선택과목

영역	주제	단계	과 목			
성경	DNA		Q.T(DNA)	일대일		
			책별(Bible)	주제별	개관(Bible)	
	초급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성품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요한복음			
	중급		Q.T	NT	주제별 성경탐구	인물별 성경탐구
			모세오경	공관복음& 사도행전		
			역사서	서신서		
			지혜문학	요한계시록		

161) 온누리교회 새가족사역팀 편, 온누리반, 41-42.

			예언서				
		고급	성경연구방법론		교리연구(기독교강요)		
성령	성령론	인격적인 성령님					
공동체	경건/기도	JDS		중보기도학교 성령수련회	장로기도 무릎기도시안선교		
	상담	그분이 지으신 마음		상담사역자			
	결혼	그리스도인의 결혼		젊은 부부학교		시니어 아카데미	
	가정	가정훈련학교		아버지(어머니)학교		Into(부모/자녀)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		젊은 어머니스쿨		와이즈 마더링	
		굿 라이프		야베스 맘		헬로맘	
	회복	내적치유		샤이닝 글로리		회복사역학교	
		DRS		프리덤 스쿨		하트스쿨	
		치유 사역학교		회복사역 리더훈련학교			
	리더십	사관학교	순장사관학교	임직자스쿨	권사스쿨	장로사관학교	
선교	선교	Why Mission		북한선교	이주민	CHE/멘토링	
	전도	전도폭발훈련		생활전도			
사회참여	사회참여	공홀사역스쿨		창조과학	기독교세계관	사랑나눔학교	

선택과목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 유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 정보를 iSchool과 목회지원실에서 검색하고 등록할 수 있다. 새신자는 등록교인이 된 이후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이수한 다음 양육체계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2. 무학교회

무학교회는 1946년 3월 6일 성동구 행당동 언덕에 자그마한 개인집에서 7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¹⁶²⁾ 무학교회 비전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낳아 1만 성도를 이루고 1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며 이웃을 내 몸

162) 무학교회, *새가족부 교재, 행복한 만남* (서울: 무학교회, 2013), 25.

과 같이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담당하는 것이다. 무학교회는 이를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 1만의 성도를 향한 비전은 양적성장과 질적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 있으며, 1만의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강력한 제자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사람을 낳고 세우는 훈련에 집중하고 1천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로 소망하고 있다.¹⁶³⁾

무학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네 가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는 열정적 예배(worship)를 지향하는 것이며, 둘째는 제자 낳는 훈련(discipling)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셋째는 사랑의 공동체(community)를 이루는 것이며, 넷째는 사도행전적 선교(mission)로 지역 섬김과 전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다.¹⁶⁴⁾

본 연구자는 무학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김신성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새가족 양육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무학교회가 진행하는 새가족 사역 전반과 양육 체계에 관하여 리서치하였다.¹⁶⁵⁾

새가족 교육은 6주간 진행되며, 새가족으로 등록된 교인들을 대상으로 바나바 사역이 있다. 교구마다 지정된 바나바가 3주간 새가족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나머지 3주간은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목사가 교회론과 기독교론, 성경에 대하여 교육한다. 총 6주의 과정을 마친 새가족은 수료식 이후 정식 등록교인이 되며 각 교구로 배치된다. 무학교회는 새신자 교육을 평신도 사역자와 목회자가 나누어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세한 교육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무학교회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¹⁶⁶⁾

만 남	주제 및 내용	담 당
1. 첫 번째 만남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나바 사역자
	함께 대화 나누기	

163) Online: http://www.moohak.net/bbs/board.php?bo_table=sub0101&sca.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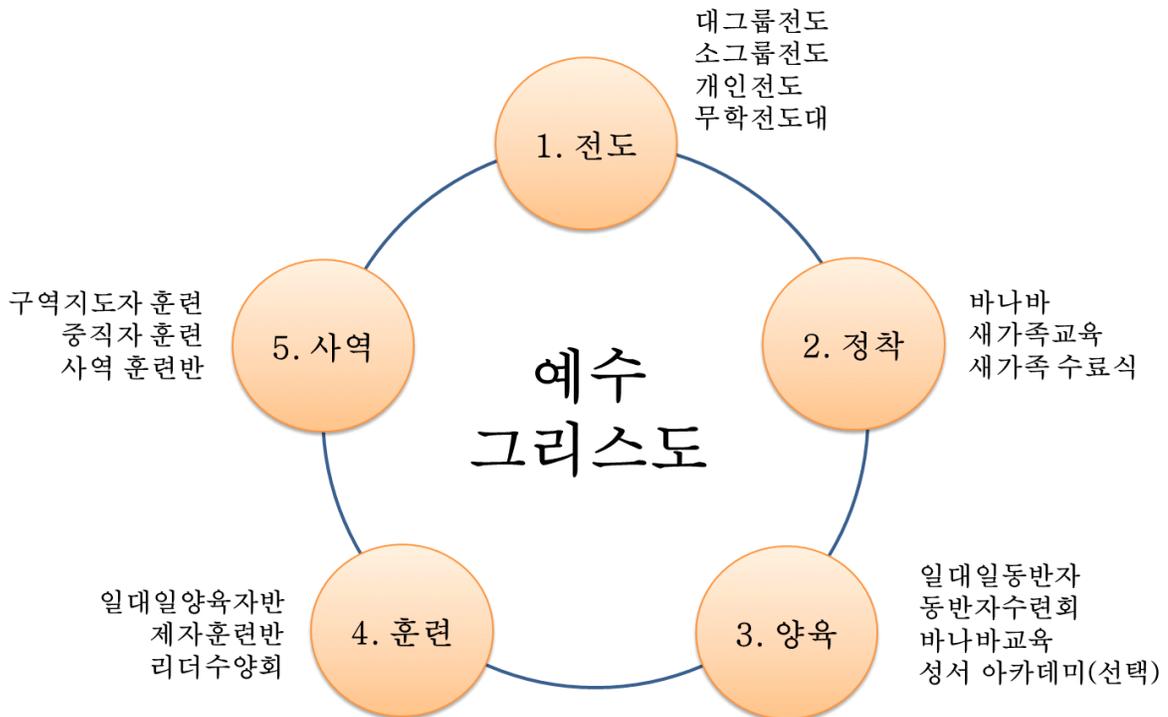
164) 무학교회, *새가족부 교재, 행복한 만남*, 23-24.

165) 본 연구자는 2018년 6월 19일에 담당자와 50분가량 전화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새신자 양육 담당자 소개	
	만남의 날 정하기	
2. 두 번째 만남	무학교회를 소개합니다.	바나바 사역자
	새가족 교육 안내	
	구역 모임	
	동호회 모임/남녀선교회 안내	
	예배 시간 안내	
3. 세 번째 만남	행복한 교회생활에 대해서	바나바 사역자
	교회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	
	기도 배우기1	
	기도 배우기2	
	찬송의 문 열기	
	말씀 찾기	
4. 네 번째 만남	무학교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새가족부 담당목사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할까요?	
	무학교회를 소개합니다.	
5. 다섯 번째 만남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새가족부 담당목사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6. 여섯 번째 만남	성경,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새가족부 담당목사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	

무학교회는 양육훈련으로 신앙성장 5단계 (High 5 system)를 가지고 있다. 신앙 성장 5단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도록 훈련하는 시스템은 <그림 3>과 같다.¹⁶⁷⁾

<그림 3> 무학교회 신앙성장 5단계 (High 5 system)



첫째, 전도는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과 복음전과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이다. 전도의 영역은 4가지로 나뉜다. <그림 3>과 같이 대그룹전도와 소그룹전도, 무학전도대, 개인전도로 나누어진다. 대그룹전도는 연 1회 실시하며 전교회적으로 전도의 날로 지키고, 그날은 새생명 전도 축제로 전 교인이 참여한다. 소그룹전도는 구역(소그룹)에서 전도 대상자를 연 1회 초청하며 복음을 전한다. 무학전도대는 13개 전도팀을 상설로 운영하며, 매주 금요일 전체 모임 후 전도 활동을 한다. 개인전도는 개개인이 교회 주변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다.

167) 무학교회, *새가족부 교재, 행복한 만남*, 24.

둘째로 정착은 전도되어 온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하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대상은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가족이며, 세 가지 과정으로 - 바나바 사역, 새가족 교육, 새가족 수료식 - 정착을 돕는다. 바나바 사역은 새가족이 등록하면 3주간 새가족 섬김이인 바나바의 안내를 받는다. 새가족 교육은 바나바와의 만남 후 담당 목회자로부터 새가족 교육을 받는다. 새가족 수료식은 매달 둘째 주일에 있으며, 6주의 과정을 마친 새가족은 수료식 이후 정식 등록 교인이 되어 교구에서 정착을 돕는다. 수료를 마치지 못한 새가족은 미수료자로 두지 않고 행정수료로 수료식 때 참석토록 유도하며 예배시간에 약식으로 환영에 시간을 갖는다.

셋째로 양육은 정착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신앙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단계이다. 대상은 새가족 과정을 수료한 성도로서 네 가지 과정으로 - 일대일 동반자 교육, 동반자 수양회, 바나바 교육, 성서 아카데미 - 양육을 실시한다. 일대일 동반자 교육은 16주간 양육자와 일대일로 기독교의 기본교리와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진다. 동반자 수양회는 연 2회, 복음과 은혜란 주제를 가지고 동반자들이 복음에 감격하는 시간을 갖는다. 바나바 교육은 동반자 교육을 마친 후 첫 섬김의 장으로서 새가족을 섬길 수 있도록 바나바 훈련을 받는다. 성서 아카데미는 새가족 또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중 다양한 내용으로 개설하여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로 훈련의 단계에서는 양육 받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훈련 시킴으로써, 양육자와 구역장(소그룹리더)으로 헌신시키는 과정이다. 대상은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 성도이며, 세 가지 훈련으로 - 일대일 양육자반, 리더수양회, 제자 훈련반 - 구성되어 있다. 일대일 양육자반은 16주 과정으로 목회자와 그룹으로 만나 일대일 양육자 훈련을 받는다. 훈련 기간 중 큐티 세미나와 바나바 봉사는 필수 과정으로 이수해야 한다. 리더 수양회는 연 2회 진행되며, 성령을 주제로 일대일 양육자반 훈련생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한다. 제자 훈련반은 14주간 진행되며,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한 성도가 제자훈련을 통해 구역장으로 세워진다. 훈련기간 중 일대일양육을 필수로 해야 한다.

다섯째로 사역은 훈련을 통해 세워진 리더그룹(중직자, 구역장)을 훈련하고 재교육함으로써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고,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는데 있다. 대상은 구역장

(소그룹리더) 및 중직자이다. 과정은 세 가지로 - 구역지도자 훈련, 중직자 훈련, 사역 훈련반 - 구성되어 있다. 구역지도자 훈련은 연 2회로 진행되며, 구역장 수련회 및 세미나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며 기쁘게 섬기도록 한다. 중직자 훈련은 중직자 세미나 및 리더십 세미나(12주)를 통해 교회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 사역훈련반은 12주간 구역장 재교육을 통해 구역을 활성화 하며, 더 나아가 구역을 분가시키는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진다.

무학교회의 새가족 교육은 바나바의 교회 소개를 빼면 정식으로 3주 과정이다. 매 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25분까지 그룹으로 담당 목사에 의해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새신자 정착률에 대하여 물었을 때, 전년도인 2017년도를 보면 60퍼센트 정도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무학교회는 새가족 홈커밍데이를 연 1회씩 갖고 있으며, 전년도에 정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초청하여 교구별로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1년에 한차례 바나바와 재회의 시간을 갖는다. 이때 새가족 정착률을 파악하며 새가족들이 구역 모임과 훈련을 어떻게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한소망교회

한소망교회는 1990년 12월 24일 류영모 목사 사택에서 한소망교회 이름으로 주일 가족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교회의 비전은 ‘한소망’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다. 첫째, 예수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둘째, 교회는 한국의 소망이다. 셋째, 복음 한국은 세계의 소망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의 큰 소망이다. 다섯째, 한소망 교회는 그 모든 꿈을 한가득 담은 교회이다.¹⁶⁸⁾

본 연구자는 한소망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정찬일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새가족 양육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한소망교회가 지향하는 새가족 사역과 목장 사역(셀), 그리고 성공의 사다리를 리서치하였다.¹⁶⁹⁾

한소망교회는 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목장사역이며, 다른 하나는 성공의 사다리이다. 이 두 날개를 통해서 교인들을 훈련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새가족이 등록하게 되면 예배 후 속교회 목사(교구목사)와 만남을 가진다. 새가족 교육은 총 3주로 구성이 되며, 목회자가 교육을 직접 담

168) Online: <http://www.hansomang.or.kr/sub1-info/sub1-vision.asp.htm>.

169) 본 연구자는 2018년 6월 14일에 담당자와 1시간동안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당한다. 강의 시간은 15분 정도로 짧게 하며 교회에 대한 안내를 주로 하고, 새가족이 목장과 성공의 사다리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에 새가족부 사역을 집중한다.

한소망교회의 새가족부는 7.7.7사역으로 새신자의 정착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7.7.7사역은 7일 안에 속교회 목사가 새가족에게 전화하기, 7일 안에 새가족 심방하기, 7명의 사람(목장과 성공의사다리에서 섬기는 성도)을 연결하기이다. 새가족부에서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영접과 교육팀으로 봉사한다. 일반 교회와 차이점은 새가족 사역에 양육교재가 없으며, 새가족이 바로 목장과 알파(성공의 사다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역을 한다는 점이다. 한소망교회 새가족부 사역현황과 바나바의 역할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한소망교회 새가족부 사역현황 및 바나바 역할¹⁷⁰⁾

사역팀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속교회	7전화	○				
	7심방	○	○			
	7연결		○	○	○	○
영접, 교육팀	교육	[1주차 교육]	[2주차 교육]	[3주차 교육]	미수료시 보충	미수료시 보충
	시간	1,2,3부 예배후	11:30	11:30		
	장소	엘림실	두란노실	두란노실		
	담당자	정찬일 목사	윤요한 목사	김두순 목사		
	내용	-선물(달력,책) -위임목사님 영상 -교회생활안내 -식사제공 (2부,3부)	성공의 사다리 안내	목장교회 안내		
서신팀	내용	편지1 -교회안내, 알파	편지2 -목장, 성공의사다리	편지3 -예배, 기도	편지4 -봉사, 헌금	편지5 -영적성 장, 전도
바나바 팀	시기	수-토	월-토	월-토	월-토	월-토
	교육	-2주차	-3주차	-미수료	-미수료	

170) 한소망교회 새가족부 사역 자료

	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안내	
7전화	-전화여부 확인				
7심방	-심방약속여부 확인	-심방완료 확인			
7연결		-목장 여부 확인	-알파 여부 확인	-목장모임 참석확인 -알파신 청확인	-목장, 알파 미연결시 등대지기 사역안내
	* 바나바는 미완료 사역들이 확인될 시 속교회 목사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먼저 확인 한 후 추가 안내한다. * 바나바 심방 동행은 속목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위의 <표 8>과 같이 새가족부 스텝은 3주간의 활동이 있으며, 서신팀과 바나바 사역팀은 5주간의 활동이 있다. 서신팀은 편지를 통해 교회를 안내하고, 알파와 목장에 대해 소개하며 교회생활을 안내(예배, 기도, 봉사, 헌금, 영적 성장, 전도) 한다. 바나바 사역팀은 5주 동안 사역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1주차에 새가족 교육을 안내하고, 속교회 목사의 전화와 심방여부 등을 확인한다. 새신자에게 전화와 심방이 이루어졌는지를 속교회 목사와 크로스 체크하는 일도 담당한다. 2주차는 새가족 교육을 안내하고 심방완료를 확인한다. 이때부터 목장모임에 연결여부를 확인하고, 3주차에는 미수료자에게 교육을 안내하며 알파 신청여부를 확인한다. 4주차에는 미수료자에게 역시 교육을 안내하며 목장모임에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알파 신청여부를 확인한다. 5주차에는 목장과 알파에 미연결시 등대지기 사역팀에 연계하여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가. 목장교회

목장교회는 소그룹 방식으로 각 가정에 모여 불신자들을 향해 전도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와 양육, 그리고 상호 돌봄의 사역을 시행하는 작은 교회다. 목장교회는 한소망 교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목장교회 종류는 일반목장과 영역목장으로 나누어진다. 목장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¹⁾

171) 일반목장은 남성과 여성, 부부목장으로써 사는 곳이나, 나이, 성별에 따른 목장으로 구성되며, 영역목장은 취미나 기호, 관심사역에 따른 동호인 목장으로 구성이 된다. 한소망교회 사역매뉴얼 2016, 23-25.

① 목장교회 조직과 연결

- 목장의 조직
 - 목장: 3-12명으로 이루어진 기초공동체
 - 지역: 3-12개의 목장으로 이루어진 지역공동체
 - 속교회: 5-12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속교회공동체

- 목장교회 사역자의 역할

직분	역 할
교역자	속교회 전체의 목양사역 감당
목사회장	속교회 교역자를 도와 목양사역 담당
속교회장로	속교회와 당회와의 연결
지역목자	동일성을 가진 목장들을 그룹지어 지역으로 묶고 목자들을 섬김
목자	목장의 리더로서 목원들의 목양과 섬김
예비목자	목장이 변성할 때 목장분가를 위해 미리 소정의 목자훈련을 받음
목원	목장의 기초 구성원

② 목장예배

- 매주 주일설교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에 따라 말씀의 삶 적용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예배로 목원들의 가정을 차례로 돌며 드리게 됨.

③ 목장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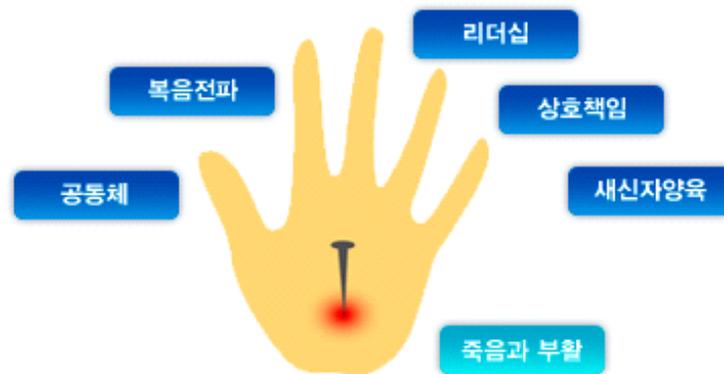
- 6+6 시스템
 - 목원이 6명이 넘으면 예비목자를 준비하고, 12명이 되면 목자와 예비목자가 6명씩 나누어 목장을 분가하는 수평적 목장 변성.
 - 6명이 넘게 되면 예비목자가 3명을 예비목자교육기간에 스스로 전도하고 나머지 3명은 다른 목원의 전도자 및 자원자로 충원하여 12명을 달성하게 됨.
 - 지역변성 구조도 마찬가지로 6목장이 넘으면 예비지역장을 준비하고, 지역장 교육을 마치게 하여 12개 목장이 이루어지면 6목장씩 나누어 지역이 분가됨.

④ 목장 프로포즈(VIP초대)

-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전도대상자(VIP)를 작성하고 목장초청과 등록을 목표로 8주의 목장 전도프로그램을 진행함.

한소망교회 목장의 핵심요소는 다섯 개로 구성되며, 첫째는 공동체이며, 둘째는 복음전파, 그리고 셋째는 리더십이며, 넷째는 상호책임이고, 다섯째는 새신자 양육이다. 이를 다섯 손가락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¹⁷²⁾

<그림 4> 한소망교회 목장의 핵심요소



첫째, 공동체란 목장이 함께 움직이는 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목원은 몸의 각 지체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목장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

둘째, 복음전파는 목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킨다. 목장에서의 복음 전파는 낚시로 비유할 수 있는 개인전도가 아니라 그물로 비유할 수 있는 공동체 전도를 의미한다. 목장교회는 정기적인 추수행사를 통해 관계를 형성한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추수하는 일을 감당한다.

셋째, 리더십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 형성의 중요한 원리는 다른 사

¹⁷²⁾ Online: <http://www.hansomang.or.kr/sub-ranch/ranch-core.asp.htm>.

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 후에는 70인의 제자들, 120명의 마가 다락방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번성시켜 나가셨다.

넷째는 상호책임이다. 성경은 ‘서로’라는 상호책임에 관한 교훈을 무수히 기록해 주고 있다. 상호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매일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기, ②매주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기, ③매달 음식을 같이 하며 친교 나누기 등이 있다.

다섯째는 새신자 양육이다. 목장이라는 하나님의 가족공동체에 새롭게 입양된 영적 아이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는 일이다. 목장은 영적인 부모, 형제, 자매가 만나는 장으로 새신자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익히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요람이다.

이러한 목장의 핵심요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는 하나의 이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5요소들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목장원이 바라볼 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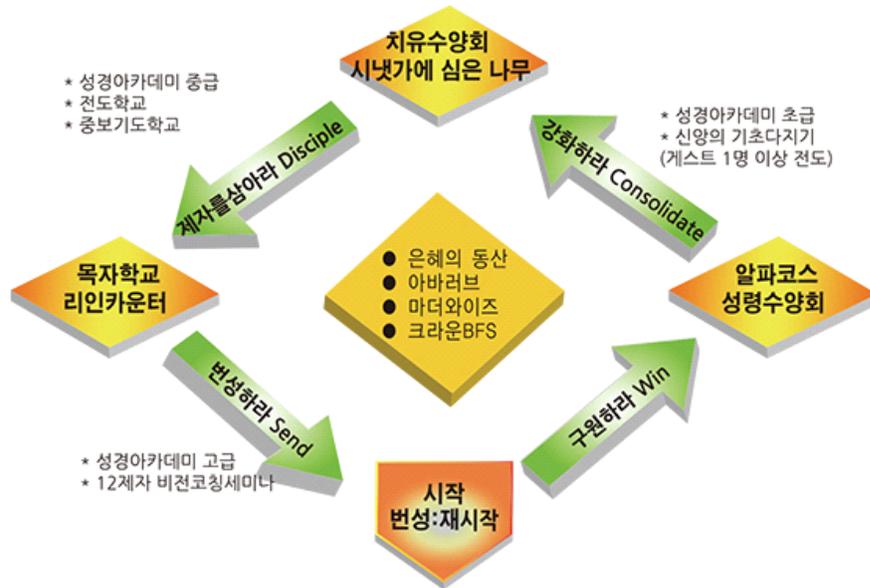
나. 성공의 사다리(양육 다이아몬드)

한소망교회의 두 날개 시스템 중에 다른 하나는 성공의 사다리이다. 성공의 사다리를 양육 다이아몬드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¹⁷³⁾

성공의 사다리 사역은 첫 번째 구원(win)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원사역은 새가족 교육과 알파로 나누어진다. 새가족 교육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고, 목장으로의 안내는 새가족 3주 교육 수료이후 언제라도 연결이 가능하다. 알파코스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향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정착과 믿음 생활의 시작을 도와주는 가장 처음 단계로 알파코스를 실시하고 있다. 알파코스는 15개의 토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는 아래 <표 9>와 같다.

173) 한소망교회, 2018년 6월 3일 주보.

<그림 5> 성공의 사다리(양육 다이아몬드)



<표 9> 한소망교회 알파코스 토크 주제 174)

주간	주 제	비고
1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2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3주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4주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5주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6주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는가?	성령 수양회
7주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8주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9주	교회란 무엇인가?	
10주	축하만찬(수료식 및 불신자 초대만찬)- 내 인생의+α	

174) 한소망교회 사역매뉴얼 2016, 50.

둘째는 정착(consolidate)의 단계로 치유 수양회(encounter)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치유 수양회는 처음 예수를 믿고 세상의 줄을 끊고자 하는 사람,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인도하는 과정이다.¹⁷⁵⁾ 5가지 주제를 총 10개의 강의로 나누어 진행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과정은 어떻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깊은 나눔을 갖는 성공의 사다리 필수 기본코스의 실제적인 신앙 강화 프로그램이다.¹⁷⁶⁾ 강의는 10가지 주제로 6주간 진행된다.

셋째는 제자 삼는(disciple) 과정으로서 실시하는 훈련 4가지는 행복전도학교와 중보기도학교, 목자학교, 한소망 청지기훈련이다. 목자학교는 교회속의 작은 교회인 목장을 맡아 목양할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하는 과정으로 목장교회 정체성, 목자로서의 자질과 영성, 그리고 목장을 섬기는 사역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다.¹⁷⁷⁾ 한소망 청지기 훈련은 성경적 재정교육(Bible Financial Study)으로 성경적 재정 원칙과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훈련되어 재정과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는 총 9주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는 번성(send)의 과정으로 목자 수양회와 비전 DTS(Disciple Training School)로 훈련이 나누어진다. 목자 수양회는 연 2회 정도 개최하여 기존의 목자들로 하여금 재교육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고 그들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다. 비전 DTS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의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¹⁷⁸⁾

그밖에도 성경 아카데미와 은혜의 동산, 아바러브(아버지학교), 마더아이즈, 선교 훈련 PSP를 운영하고 있다. 성경 아카데미는 초급반과 중급반, 고급반을 개설하여 성도들의 신앙성장과 성숙을 위해 연 2회 진행하여 성경과 교리를 균형있게 배우게 된

175) 한소망교회 *사역매뉴얼 2016*, 54.

176) Ibid., 60-61.

177) Ibid., 62.

178) Ibid., 69.

다. 은혜의 동산은 내면생활의 갱신과 이웃을 섬기는 영성훈련으로 3일간 진행된다. 아바리브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정의 목자로 회복시키시고(5주), 마더와이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훈련한다. 선교훈련 PSP(Perspectives Study Program)는 12주 과정의 선교훈련 프로그램으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훈련한다.

한소망교회는 두 날개 시스템을 통해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새신자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있다. 2017년 새가족 등록현황을 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017년 한소망교회 속별 새가족 등록현황 (1월1일~11월12일)¹⁷⁹⁾

속교회	1속	2속	3속	4속	5속	6속	7속	8속	9속	10속	11속	합
등록수	30	24	43	43	55	56	34	68	75	68	56	552
자원수	5	0	27	13	14	17	11	12	18	25	38	180
예배정착률	97%	96%	93%	100%	91%	80%	97%	89%	92%	90%	97%	93%
① 자원 등록률: 전체 등록자의 33%로 해마다 증가 추세 (15년 26%, 16년 31%) ② 새가족 정착률: 93% (15년 87%, 16년 89%)												

자원 등록률을 보면, 2017년 전체 등록자의 33퍼센트(2015년 26퍼센트, 2016년 31퍼센트)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새가족 정착률도 평균 93퍼센트(2015년 87퍼센트, 2016년 89퍼센트)로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가족이 교회에 방문하여 교육받을 때부터 바로 목장과 성공의 사다리로 연결되면서 정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한소망교회 새가족부의 자체 평가를 담당 목사로부터 확인하였다.

4. 새신자 양육의 유형에 따른 분석

새신자 양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중에서 세 곳을 선정하여 온누리교회와 무학교회, 한소망교회의 새신자 양육의 유형을 비교해 보았다. 세 교회를 선정

179) 한소망교회 새가족부 사역 자료.

한 이유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신자 목회철학과 양육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일대일제자양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무학교회는 바나바사역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소망교회는 두날개 시스템(알파와 목장)으로 새신자 양육을 도모하고 있는 교회이다. 세 교회의 새신자 양육의 유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새신자 양육 유형 비교

구분		온누리교회	무학교회	한소망교회
새신자양육	양육팀 명	새가족사역팀	새가족부	새가족부
	양육방법	집단적 양육 (일대일 병행)	집단적 양육 (일대일 병행)	집단적 양육
	양육주체	교역자/ 평신도 사역자	교역자/ 평신도 사역자	교역자
	양육교재	온누리반	행복한 만남	없음
	양육시간	50~60분	35분	15분
	양육기간	8주	6주	3주
	양육시기	등록 전	등록 전	등록 후
	매뉴얼	있음	없음	있음
	미수료자관리	있음	없음	있음
사후관리	수료 후	만남의 잔치	홈커밍데이	목장과 성공의 사다리 과정
	후속 양육	온누리 양육과정 (필수, 선택과목)	신앙성장 5단계	

새신자 목회를 기준으로 세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온누리교회 새가족부 양육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이 새신자 양육과정에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새신자가 오면 온누리교회에 대한 비전과 온누리교회가 추구하는 목회방향을 먼저 알게 된다. 이는 새신자들이 교회를 정함에 있어서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큐티와 일대일양육을 통하여 새신자의 신앙성장을 돕고 있다. 새신자에게 2주와 3주차에 이를 소개하고 5

주차부터 일대일로 바로 연결하여 정착을 돕는다. 셋째는 8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날 만남의 잔치를 갖게 함으로써 공동체(교구)마다 새신자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넷째, 등록교인이 되어야 멤버십을 가질 수 있다. 등록교인이 아니면 양육체계에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멤버십을 활용하는 교회이다. 다섯째, 새가족부 매뉴얼이 있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누며 활동한다. 여섯째는 양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있어서 양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과정이 있다. 일곱째, 교육을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나누어 진행하므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첫째, 온누리교회의 목회비전과 양육체계를 일반교회에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양육방법이 일대일로 연결되기 전까지 집단적 양육 방식을 따르며 그때까지 교역자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진다. 다만 오전반에 평신도 사역자가 강의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창조론)에 한정되어 있다. 셋째,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대부분 강의를 돕거나 스태프로 보조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넷째, 양육을 수료할 때까지 등록교인이 아니므로 새신자와 공동체(교구)의 리더십(목회자, 구역장 등) 간의 연결과 교제가 없다. 일대일 양육자와 교제가 가능하지만, 공동체에 연결되었을 때 적응기간(정착기간)이 길어지는 약점이 있다. 다섯째, 등록교인이 아닐 경우 새신자의 애경사가 소외될 수 있다. 새신자의 애경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학교회 새신자 양육의 강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바나바 사역자가 3주간 안내하며 교회 생활을 돕는다. 둘째, 신앙성장 5단계(high 5 system)를 통해 새신자가 양육을 받고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다. 셋째,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성도에게 맞는 양육훈련(일대일동반자, 동반자수련회, 바나바교육, 성서 아카데미)이 연계되어 있다. 새가족 양육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러한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새가족 홈커밍데이를 연 1회씩 가짐으로 1년 이상 정착한 새가족과 바나바의 재회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새신자는 지지감을 받고 신앙생활의 보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무학교회 새신자 양육의 약점으로는 첫째, 새가족부의 매뉴얼이 없어서 양육에

체계가 현장에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새가족 매뉴얼은 향해사들에게 향해지도와 같은 역할로 사역 지침을 정리한 문서로써 새가족 양육의 목표와 방향을 안내하여 양육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둘째, 양육의 주체가 교역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평신도는 바나바 사역자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생활 안내와 스텝으로 섬기는 역할로 제한적이다. 셋째, 새신자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된 미수료자에 대한 지속 관리 체계가 뚜렷하지 않다. 넷째, 신앙성장 5단계의 양육 시스템이 있지만 의무성이 없으므로 새신자의 상황에 따라 연계가 불투명하다.

한소망교회 새신자 양육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교회를 지향하면서 두 가지 시스템(목장사역과 성공의 사다리)으로 새신자의 양육과 정착을 돕고 있다. 둘째, 새가족 교육이 15분으로 짧지만 한소망교회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바로 연결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새신자를 목장에 연결하여 정착하게 하고, 동시에 성공의 사다리에서 연결하여 양육 훈련을 받게 하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7.7.7사역은 한소망교회의 독특한 사역으로 새신자의 정착과 양육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새가족부에 팀들이 새신자를 위하여 유기적으로 분업이 잘 이루어져있다. 이를테면 영접.교육팀은 새가족부 스텝으로 3주간 새신자 교육을 돕고, 서신팀은 5주간 새신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교회생활을 도우며, 바나바팀은 5주간 7.7.7 사역을 통해 실제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크로스 체크하고 있다. 다섯째, 새신자 양육 미수료자를 지속 관리하는 사역(등대지기)이 있다. 여섯째, 목장이 번성할 때 예비목자를 준비시키고 분가와 재생산을 지향하므로 전도체계와 새신자 관리에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알파코스에서 섬김과 눈높이 철학으로 섬김의 모습에 감동을 받도록 새신자에게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점이다.

한소망교회 새신자 양육의 약점으로는 첫째, 두 날개 시스템을 지향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새신자가 오면 새가족부에서 두 날개 시스템에 연결 짓는 사역에 집중하므로 새가족의 전인격적인 부분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새가족 양육의 주체가 교역자이며, 강의가 집단적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새신자와 양육자간의 상호 교제가 어렵다. 넷째, 새가족을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스텝으로 보조하거나 전화 확인 및 서신을 보내는 단순한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다섯째, 알파코스는 영국의 한 성공회 교회에서 시작한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

램이지만,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변하여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 이상의 교회 성장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¹⁸⁰⁾ 여섯째, 한소망교회의 새가족부는 특성상 양육과 훈련을 하지 않고 두 시스템에 새신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주사역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새신자 목회와는 다른 점이 있다. 일곱째, 평신도의 헌신이 요구되므로 과도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영적 탈진 및 새신자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180) 제94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알파코스에 대한 연구보고서’(2009년 11월)를 참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회성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문제가 있는데, 알파코스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참석하는 등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점을 지적하였다. 지나치게 교인의 수평이동을 통한 교회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알파코스의 본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교회에 유익한 전도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였다.

제 4 장

새신자 양육을 위한 목회 전략

앞의 제 2장에서 평신도 사역에 대하여 고찰하고 평신도 사역자 훈련의 유형을 논의하였다면, 제 3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범위를 새신자 양육과 돌봄을 중심으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새신자 양육을 조명해 본 후에 새신자 양육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섬기는 장석교회의 새신자 목회에 대해 진단하며, 새신자 양육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 1 절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 진단

1. 교회 주변 상황

본 연구자가 섬기는 장석교회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하고 있다. 노원구는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서쪽은 도봉구와 강북구, 남쪽은 성북구와 중랑구 그리고 북쪽은 의정부시와 접하고 있어 서울 동북지역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¹⁸¹⁾

1985년부터 상·중계지역 마들평야에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조성되었고, 근교에 수락·불암산 등 자연환경과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역이면서, 지하철 4, 7호선의 개통으로 노원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주변은 서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181)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76호(1987. 12. 31 공포)에 의거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신설되었고, 서울특별시 조례 제59호(1988. 1. 1 공포)에 의해 도봉 1,2동, 창 1~3동, 월계 1,2동 공릉1,2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1~5동(16개 동)으로 동명칭과 지역이 확정되었다. 분구(分區) 당시 노원구는 16개동 인구 29만의 작은 구(區)로 비닐하우스와 저소득 밀집지역이 산재해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19개동 인구 약 58만의 큰 자치구로 성장하여 각종 복지시설, 편의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김성환, *2017 노원통계연보* (서울: 노원구청, 2017), 25-26.

유동인구로 동북 서울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2>는 최근 17년간 노원구의 인구추이를 나타낸다.¹⁸²⁾

<표 12> 2016년 노원구 인구추이



노원구의 총인구는 571,212명이며 남자가 277,866명, 여자가 293,346명이다. 인구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16,119명으로 가구원이 1가구당 2.6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다. 인구추이는 <표 12>와 같이 90년대 말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의 전입인구는 1일 197명, 전출인구는 222명으로 전출인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원구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¹⁸³⁾ 노원구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40-50대의 인구가 가장 많고,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포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25-29세 남녀 연령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 졸업 후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가 노원구에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182) 김성환, 2017 노원통계연보, 1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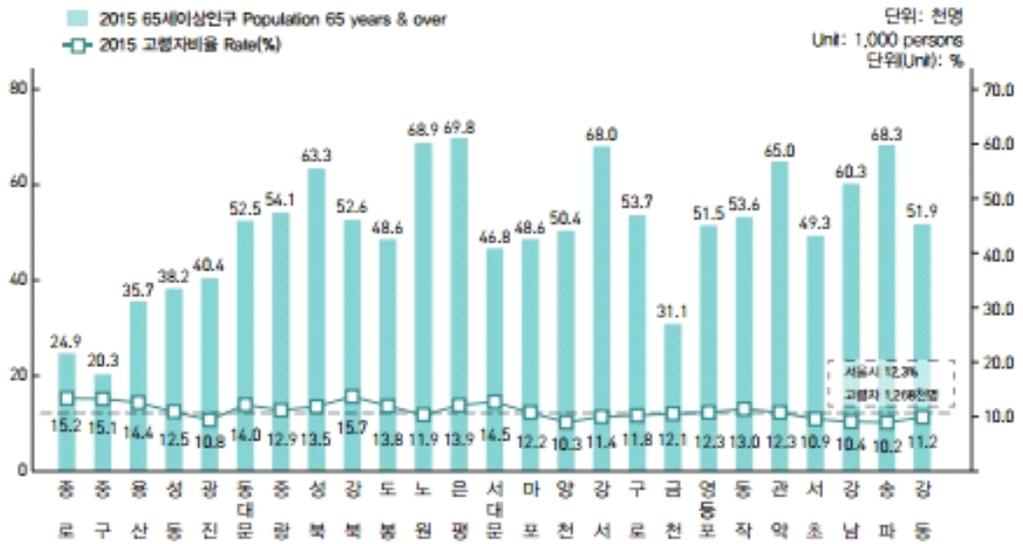
183) Ibid., 13.

<표 13> 2016년 노원구 연령별 인구구조



<표 14> 2015년 서울시 구별 고령자 인구

구별 고령자 인구 PERSON 65 YEARS OLD AND OVER



서울시 구별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표 14>와 같다.¹⁸⁴⁾ 노원구의 65세 이상

184) 2016년 서울시 통계연보, 8.

인구는 68만 9천명으로 최상위에 있는 은평구 다음으로 많고, 고령자 인구는 11.9퍼센트로 상대적으로 낮다. 노원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단위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저소득주민, 노인, 모자가정, 장애인, 새터민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장석교회는 인근 지역이 그동안 낙후되어 왔으나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발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석교회에 근접한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지역(장위재정비촉진지구)은 면적이 1,873,422평방미터로 서울시 최대 규모이며, 주택은 27,172세대(83,489명)가 2020년에 입주하게 된다.¹⁸⁵⁾ 노원구 월계동 인덕아이파크에 859세대가 2019년 11월에 입주한다.

장석교회는 인구 밀집지역이지만 역세권과 거리가 멀어서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업시행업체가 2018년 7월 5일 실시협약을 맺음에 따라 교회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이 지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편의가 향상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⁸⁶⁾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석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향후 교통의 편의는 물론 인근에 광운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대가 되고 있다.

2. 장석교회 소개

장석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이다. 장석교회는 1954년 10월 23일 영락교회 여전도회가 김평(金平) 전도사를 장위동과 석관동 지역에 파송하여 석관 장로교회를 세움으로써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 지역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 1956년 말에 김평 전도사가 사임하고 영락교회에서 1957년 4월 김성호 장로를 보내어 약 1년간 강단을 지키게 하다가, 당시 군목으로

185) 네이버 부동산, 장위재정비촉진지구. Online: https://land.naver.com/...../*.htm.

186)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본래도에 오른다. 왕십리역에서 제기동역,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권을 총 16개 역(총연장 13.4km)으로 잇는 노선이다. 2019년 착공해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2018년 7월 5일자, 사회면. 2018년 8월 인용. Online: http://news.mt.co.kr/...../*.htm.

재직 중이던 장군재 목사를 석관교회의 전도 목사로 파송했다. 장군재 목사는 예배당의 위치도 이전하고 교회 이름도 석관교회에서 장석교회로 개칭하였다.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형편에서 장군재 목사는 점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다.¹⁸⁷⁾

장석교회는 창립된 이래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의정부 등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담임목사인 함택 목사를 중심으로 20여 명의 교역자들이 153 비전(1만 재적, 5천명 출석, 교회학교 3천명)을 목표로 동역하고 있다. 현재 예배드리는 성전은 1995년에 본당이 지어졌으며, 2006년에 50주년 기념관이 건축되었다.¹⁸⁸⁾

장석교회 목회비전은 ‘온누리에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¹⁸⁹⁾ 되는 것이다. 장석교회는 비전선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도지향적인 공동체¹⁹⁰⁾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석교회는 2018년 현재 세례교인 5,101명,¹⁹¹⁾ 장년 출석 약 2,600명, 청년부 210명, 교회학교 950명으로 서울북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로써 지역에 거점 교회로 섬기고 있다.

3.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과 정착 현황

가. 새신자 양육체계

(1) 새신자위원회 조직

장석교회는 당회 조직으로 새신자위원회가 있으며, 새신자위원회에 제직회 조직 4개의 부서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새신자부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미디어와 행정 . 전산을 담당하는 새신자부가 있으며, 새신자를 안내하고 접견하는 접견부, 새

187) 이용남, *장석교회 33년사* (서울: 세양문화기획, 1988), 41.

188) 장석교회 새가족성경공부 교재 “뿌리 내리기” (서울: 장석교회 새신자위원회, 2018), 4.

189) 요한복음 10:10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90) 비전선언문은 “우리는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돕는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선언문은 이러한 건강한 전도지향적인 공동체인 ‘온 누리에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에 헌신한다. 첫째, 전도와 선교가 교회사역의 핵심이 되게 한다.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하고 무장된 제자를 만든다. 셋째, 영적 체험과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활용한다. 넷째, 힘없는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다섯째, 행복한 개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지역의 거점교회가 되어, 지역 교회들의 성장을 돕는다. 장석교회 ‘2018년을 위한 정책당회안’ 참조.

191) 제 70회 *서울북노회 회의안* (2018. 4. 24. 태릉교회당), 교세 통계를 참조하였다.

신자 양육을 전담하는 양육부, 새신자 정착을 돕는 정착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새신자 양육과 정착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¹⁹²⁾ 장석교회 새신자위원회 조직은 <표 15>와 같다.

<표 15> 장석교회 새신자위원회 조직(2018년도 기준)

당 회	새신자위원회	위원장 장로: 1인, 담당교역자: 1인, 위원: 장로 1인
제직회	새신자부	부장: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1인 차장: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2인, 부원: 6인
	접견부	부장: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1인 차장: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3인, 부원: 8인
	양육부	부장: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1인 차장: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5인, 부원: 4인
	정착부	부장: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1인 차장: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4인, 부원: 13인

(2) 새신자 양육과정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오면,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새신자용 주보(찬송, 본문말씀, 교독문)를 받게 된다. 새신자는 안내위원과 전도자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린다.¹⁹³⁾ 예배 후 모든 새신자는 본당 옆 접견실을 방문하게 되며, 담당 교역자의 소개와 함께 담임 목사의 인사말씀 영상을 시청하고, 테이블마다 함께 한 접견위원들을 통하여 새신자 양육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본 연구자가 작성한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 절차를 보면 <그림 6>과 같다.

새신자 양육은 새신자로 등록한 그 다음 주부터 있게 된다. 주중에 양육부에서 새신자와 양육위원(양육자)에게 연락하며, 새신자 양육은 일대일로 7주간 이루어진다.¹⁹⁴⁾ 양육자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모든 양육은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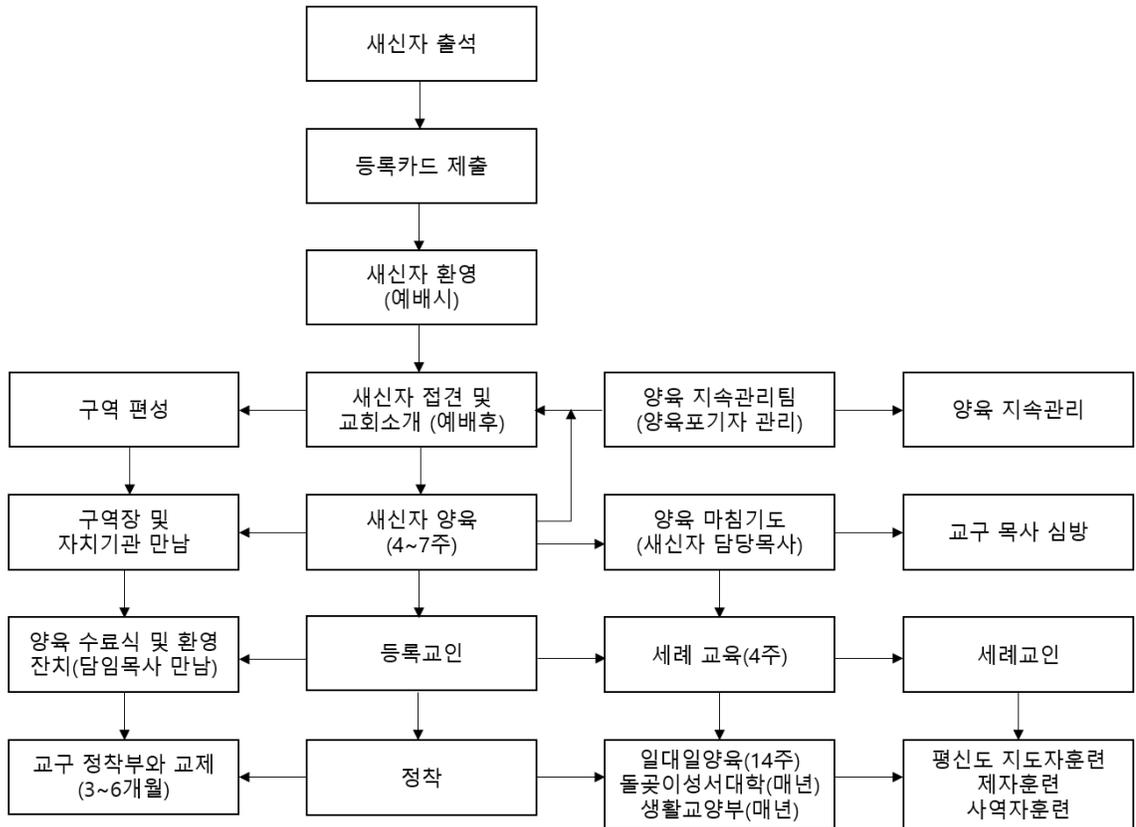
192) 새신자위원회 부서별 팀별 업무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93) 본당 중간에는 새신자들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개의 경우 새신자는 전도자와 자유롭게 자리하게 된다. 예배의 봉헌시간에 등록카드는 인도자석으로 올려지며, 담임 목사가 광고시간에 새신자를 간단히 소개한 후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들어 “여러분을 향하신~”으로 찬양하며 축복한다.

194) 새신자를 양육하는 기간은 대상에 따라 초신자는 7주, 기존 신자는 4주, 70세 이상(‘아브라함’이라 부름)은 4주간 교육한다. 상황에 따라 양육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이끌어 나간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신자 양육(4~7주)이 이루어지는 동안 구역장과 남녀선교회 임원의 만남이 있다. 이것은 새신자 정착을 위해 중요한 만남이며 새신자가 양육을 마친 이후 교회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림 6>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 절차



새신자가 양육을 마치면 등록교인이 되며 새신자 양육 수료식과 환영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담임 목사와 만남이 있으며 함께 만찬의 시간을 각 교구별로 갖는다. 등록교인이 되면 정착부에 연결이 되어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록교인이 된 새신자에게 세례교육을 안내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며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착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동안 교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대일 새신자 양육을 위한 공간에서 새가족 성경공부 교재인 “뿌리 내리기”를 사용하여 교육한다.

새신자가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단이 된 경우 양육지속관리팀을 통해 양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새신자 양육을 마친 이후 장년교육으로 일대일제자양육(14주)과 돌곶이 성서대학(12주), 생활교양부, 마더와이즈(10주) 등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장년교육을 마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 훈련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새신자 양육수료식 및 환영잔치

새신자 양육 수료식은 2017년부터 매년 세 차례씩(4월, 8월, 12월) 진행하고 있다.¹⁹⁵⁾ 7주간의 양육과정이 끝나면 행정적으로 장석교회 교인이 되지만, 수료증과 환영잔치는 해당 되는 달에 실시한다. 양육수료식은 오후 찬양예배 시에 담임 목사가 수료자 대표에게 수료증을 주고 온 교우가 함께 축복하는 것으로 한다.

새신자 환영잔치는 양육수료식이 끝난 후 기념관 식당에서 가지며, 이때 교구담당 목사와 교구장(장로)과 교구 총무, 해당 구역장이 참여하여 환영 후 식사를 함께 한다. 양육 수료식 및 환영잔치 식순은 <표 16>과 같다.

<표 16> 새신자 양육 수료식 및 환영잔치 식순

담당자	새신자 양육 수료식
새신자 부장	7주간의 양육 교육과정을 마친 새신자 양육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새신자 부장	양육 수료자는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부장	양육 수료자는 대표 수료증을 담임 목사에게 전달
담임 목사	수료증 낭독 및 수여
담임 목사	축하기도
담임 목사	축하의 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양육 수료자들을 위해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 주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새신자 부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환영잔치 순서
부부 찬양단	찬양과 환영의 시간

195) 양육 수료식 및 환영잔치는 매년 짝수 달에 실시해 왔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네 차례씩(3월, 6월, 9월, 12월) 진행하였다.

양육부 차장	환영과 인사
담임 목사	새신자 환영의 인사 말씀
새신자 담당목사	각 교구별로 앞으로 나와 소개 및 인사
특별순서	하늘나비의 위십
특별순서	새신자위원회 스태프들의 축복송
새신자위원회 위원장	인사 및 식사기도
악수례	새신자와 담임 목사 및 스태프
교구별	식사와 교제의 시간, 자유로이 대화 후 교구별 폐회

다. 정착부 활동과 정착 현황

새가족이 성경공부를 마치면 교인으로 등록이 되며,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이 소속된 각 교구의 정착부원과 연결되어 3~6개월 동안 교회의 모임과 활동을 안내받게 된다. 정착부원은 ‘뿌리 내리기’ 성경공부를 마치는 날 인사드리며 그때부터 함께하게 된다. 새신자가 양육의 과정을 마치고 교인이 되어도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부에서는 새신자가 교회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역과 남녀선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장년교육 프로그램과 생활 교양부(취미그룹 활동) 등 다양한 모임을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찬양대와 주차봉사 등 새신자가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섬기고 봉사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착부의 교구별 활동을 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정착부 현황표 (2017년 12월 10일~2018년 10월 14일까지)

교구	팀장	정착위원	양육수료자	정착완료 (6~12개월)	정착진행중 (1~6개월)	정착지속관리 (포기자)
1교구	1	4	37	26	7	4
2교구	1	2	24	19	3	2
3교구	1	1	27	19	7	1
4교구	1	1	29	22	5	2
5교구	1	3	33	26	5	2
6교구	1	2	36	30	2	4
청년	1	1	10	10	0	0

합 계	186	142	29	15
정 착 율	백분율	76%	16%	8%

<표 17>은 2018년 장석교회 정책당회를 위해 집계된 자료이다. 정착 대상은 2017년 12월 10일 새신자 정착축제를 기점으로 그 뒤에 오신 새신자부터 2018년 10월 14일까지 양육수료자이다. 정착부는 새신자를 6개월 동안 관리하며(상황에 따라 1년까지) 정착 완료되신 분이 142명(76퍼센트)이고, 현재 정착 진행 중인 분들이 29명(16퍼센트)이다.¹⁹⁶⁾ 지속관리 대상자(포기자)는 현재 15명(8퍼센트)으로 사유는 개인사정과 직장문제, 연락두절, 별세, 건강상 이유 등이었다. 청년은 올해 새신자위원회에서 양육을 받고 청년부에 이관된 새신자이다.

라.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 평가

새신자 목회의 중요함은 단순히 수적인 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구원의 사역에 있기 때문이다.¹⁹⁷⁾ 장석교회는 새신자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 제1회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새신자 목회’에 힘을 쏟아왔다.

본 연구자는 장석교회 새신자위원회를 섬기면서 새신자 목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더욱 발전하기를 원한다.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새신자 목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더욱 충실하게 부합할 수 있도록 고찰할 것이다. <표 18>은 장석교회 최근 9년간 새신자 등록수와 양육수료 현황을 보여준다.¹⁹⁸⁾

196) 양육수료를 마치고 정착한 새신자(등록교인) 186명의 출석현황을 교구별로 2018년 10월 23~25일까지 조사해 본 결과, 정착 진행 중인 분들 중에 예배 출석중인 분들을 포함하면 155명으로 새신자의 예배참석과 정착률은 83퍼센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을 수료한 새신자 186명 중에 파악이 된 장년 169명을 대상으로 보면, 전도로 오신 분들이 120명(71퍼센트)이며, 자원으로 오신 분들이 21명(12퍼센트), 전도축제로 오신 분들이 28명(17퍼센트)으로 나타났다.

197)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 9.

198) 새신자 등록자(접견자)와 양육 수료자 통계는 장석교회 교적관리 시스템인 ‘지저스온’을 통해 집계하였다. 지저스온은 온라인 교회행정관리 시스템이다.(www.jangseok.jesusun.net)

<표 18> 새신자 등록 및 양육수료 현황

구 분	새신자 등록자	양육수료자	양육수료율
2010년	655명	431명	66%
2011년	498명	319명	64%
2012년	434명	276명	64%
2013년	423명	269명	64%
2014년	295명	202명	68%
2015년	394명	360명	91%
2016년	319명	238명	74%
2017년	232명	175명	75%
2018년	206명	186명	10월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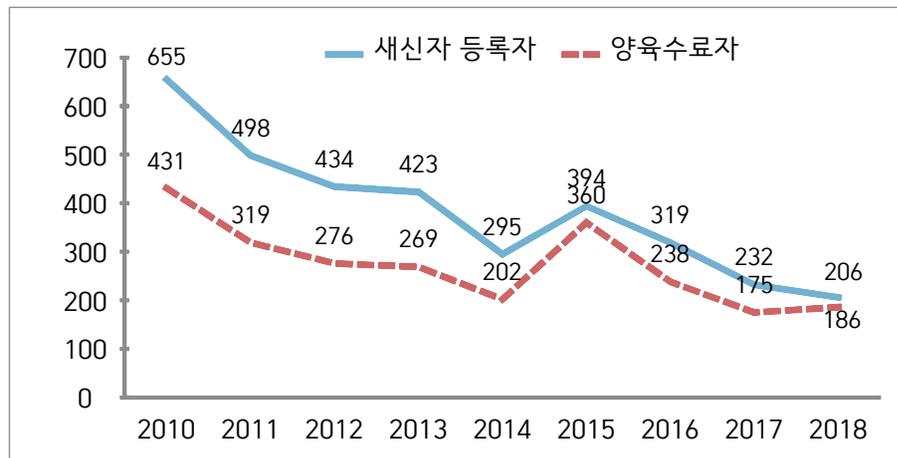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면 ‘새신자 등록자’로 부르거나 처음 접견이 이루어지므로 ‘접견자’로 명칭 한다. 새신자가 4~7주간의 양육을 마치면 ‘양육수료자’라고 부른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새신자 등록자의 수를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이 둔화하여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은 장석교회 4대째 담임 목사의 부임으로 리더십 교체가 있었던 시기이다.¹⁹⁹⁾ 리더십 교체로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교회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지만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와 감소의 여러 요인들이²⁰⁰⁾ 맞물려 침체기를 거스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 18>의 새신자 등록자와 양육 수료자를 그래프로 보면 <그림 7>과 같다.

199) 장석교회 4대째 담임목사로 함택목사가 2012년 7월 8일에 부임하였고, 3대째 이용남목사가 2012년 11월 11일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함택 담임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Th.M. 구약학)하고,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Ph.D. 구약학)을 졸업하였다.

200) 한국교회 성장둔화 요인을 분석한 김영한은 교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구분하였는데 이를 요약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 내적 요인들로는 교회 정체성의 약화와 영성의 쇠퇴, 자기중심적 교회로의 변질, 세속화, 물량적 성장, 기업식 교회운영, 십자가와 부활의 메지지 결여, 교인의 고령화, 대도시 집중화, 신학교 난립, 분열과 불화 등을 지적했고, 교회 외적 요인들로는 사회의 예언자적 역할 외면과 목회자와 교인의 윤리성 결여로 인한 신뢰 실추, 도시빈민 선교정책 부재, 인구 감소 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김영한, “성장둔화에 대한 요인 분석과 그 대안에 관한 논구,” *한국 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2), 3-35.

<그림 7> 새신자 등록 및 양육수료 현황 그래프



<그림 7>을 보면 새신자 등록자와 양육수료자의 곡선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접견자와 양육수료자 간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육 수료율이 2014년에 68퍼센트로 좁혀져서 2015년에 91퍼센트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2017년 양육수료율이 75퍼센트이며,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양육수료율도 90퍼센트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새신자 등록자가 비록 줄었지만, 양육을 마치고 등록 교인이 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가 새신자위원회의 사역을 통해 경험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의 장점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의 장점은 첫째, 새신자 양육에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의 높은 헌신과 전문성에 있다. 2018년까지 양육위원학교를 통해 배출된 양육위원은 396명이 된다. 이중에 70명(17.6퍼센트)이 새신자 양육에 헌신하고 전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다. 육홍근은 새신자 목회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이유는 바로 양육위원이 확보되지 않을 때라고 말했다.²⁰¹⁾ 양육위원이지만 동일한 시간에 교회학교나 찬양대 등에서 봉사하는 인원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봉사 가능한 양육위원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신자 양육에 훈련된 양

201) 육홍근, “새신자 목회 건강진단 프로그램,”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14 (2004): 32.

육위원의 확보는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새신자위원회가 ‘매뉴얼’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석교회 새신자위원회는 제작부서가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각 부서마다 부장과 차장이 있으며, 부서마다 제 역할을 잘 이행하여 새신자를 돕는다.²⁰²⁾ 매뉴얼을 통해 새신자 사역에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점을 반영하므로 상호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계성이 잘 되고 있다.

셋째, 장석교회는 정착부 시스템을 통해 양육 수료이후에도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정착을 돕고 있다.²⁰³⁾ <표 17>에서 새신자 정착률이 76퍼센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숨은 헌신과 공로라고 여겨진다. 2012년부터 정착부의 제도가 도입되어 2014년에 체계화 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새신자 정착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넷째, 새신자에 대한 관심이 교회적으로 높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2018년 새신자위원회 예산이 24,100,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2.6퍼센트 증가하였고, 1대1 양육실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의 단점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위원의 노령화 추세에 따른 다양한 연령층의 양육위원 배출이 필요하다. 새신자와 양육자간의 상호 촉진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간의 공감과 교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슷한 세대가 필요하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새신자의 지역과 학력, 관심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 수료이후 양육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양육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202) 새신자부는 새신자의 안내에서 양육수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관리하며 자료를 전산 입력한다. 또한 교육미디어를 담당하여 접견시 영상자료를 상영하고, 각종 교육을 위한 영상자료를 수집, 제작관리하며 시청각기자재를 관리한다. 접견부는 처음 방문하는 새신자를 맞이하여 현재 상황과 가정, 신앙상태 등의 개인신상을 파악하여 양육부에 안내하는 최초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 양육부는 새신자를 양육하는 양육팀과 양육수료식 및 환영잔치를 관장하는 양육수료팀, 양육 과정중 중도에 탈락한 새신자를 관리하는 양육 지속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양육을 돕는다. 정착부는 양육수료자가 장석교회에 잘 적응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료후 6개월 동안 새신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203) 정착부 활동은 본 연구의 95페이지를 보기 바란다.

적으로 등록교인이 된 새신자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다. 장석교회가 그동안 새신자 수료이후 양육을 체계적으로 잘 해왔지만, 리더십이 교체되고 양육체계를 관리할 사역자 역할의 부재와 지속적인 평신도 사역자 양성이 단절되면서 동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양육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육 체계에 대한 목회정책이 분명해야 하고, 세례교육부와 장년교육부 등 사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끌어 가지만, 사역의 의사결정 필요시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목회자의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의사결정시 자칫 평신도 사역자끼리 담론으로 멈추지 않도록 작은 결정도 목회자와 협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서의 담당자는 역할을 숙지하여 잘 이행하고 있으나 역할 분담이 분업화 되어 해당 부서 외에 협력이 요구되는 사역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테면 새신자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경우 접견안내가 필요하지만,²⁰⁴⁾ 안내부가 예배위원회에 소속되면서 담당이 모호해졌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기피하거나 담당자를 세워도 사역에 중복이 생기면, 스텝 부족 현상으로 접견 안내하는 역할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 새신자가 혼자 등록한 경우, 예배 후 새신자를 찾아다니는 일이 간혹 발생하므로 담당 인원이 확보 되어야겠지만 긴급시에는 상호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를 진단하면서 새신자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한 생명이라도 교회를 통하여 더 구원 얻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구원 얻은 새생명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²⁰⁵⁾ 고민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따라 새신자 목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목회의 협력자인 평신도 사역자가 목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새신자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평신도 사역

204) 접견안내는 새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처음 접견해야 할 때, 새신자를 접견부원과 만날 수 있도록 접견실에 안내하는 역할이다. 대개의 경우 전도자나 인도자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신자가 혼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접견안내가 필요하다. 접견부의 인원이 부족하여 협력을 요청했으나 협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향후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5)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 9.

자를 세우는 선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 선발

1. 양육위원의 의미와 필요성

양육위원은 평신도 중에 양육위원학교 훈련을 받고, 새신자들과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의 양육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양육위원들이 감당하는 새신자 양육이란, 예수를 갓 믿은 새신자를 신앙 있는 성도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먹이고 보호하며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순수 새신자를 포함하여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더 성숙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한다.²⁰⁶⁾

새신자의 정착과 양육을 위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새신자를 위한 사역의 성공여부는 새신자를 위한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부원들이 양육자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새신자를 돌보는 양육위원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유모와 같은 존재들이다.²⁰⁷⁾ 새신자에게 교회는 낯선 곳이고 어색한 장소이다. 교역자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새신자를 돌보고 양육하며 구역과 봉사 모임에 연결시키는 전문 사역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육위원은 새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양육과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아 성숙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중요한 사역이다.

2. 양육위원의 선발

가. 양육위원 선발 과정

양육위원을 선발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가족부의 전체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매년 적절한 수의 양육위원을 충원하여 기본훈련을 받게 한 후 사역에 임하게 해야 한다.²⁰⁸⁾ 새신자 목회의 열쇠와 같은 양육위원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206) 정남용, “양육위원 제도를 통한 교회성장 모색,” *양육위원 훈련교재: 어리다가 정성한 나 무* (서울: 도서출판 돌곶이, 2000), 18.

207) 정재학, “양육위원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얻어진다,” *교회성장*, 2002년 3월 호, 31.

208) Ibid., 32.

서는 어떤 사람을 양육위원으로 선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새신자 목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나 부서에서는 헌신적이고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양육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힘써야 한다.

양육위원은 새신자부를 지도하는 교역자가 1년 혹은 수년간 교회의 일꾼 중에서 잘 관찰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들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면담하여 적부를 심의한다.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개인적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한다.²⁰⁹⁾ 새신자부에서 함께 리더로 섬기는 양육부장의 추천이나 양육위원학교 졸업자 혹은 교구목사, 자원자 그룹 모집으로도 심의가 가능하며 선정된 자는 반드시 양육위원학교를 수료해야 한다.

나. 양육위원 선발 기준

양육위원을 선발 할 때 흔히 직분을 생각하게 되지만, 양육위원은 직분과 관계 없이 봉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양육위원으로 봉사해야 한다. 비슷한 연령기준으로 새신자와 양육위원이 연결되기 때문이다.²¹⁰⁾

정재학은 양육위원 선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²¹¹⁾ 첫째, 양육적인 면이다. 새신자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길러본 경험이 있는 자로 자녀가 초등학교 3년 이상 되어 활동이 자유로운 자이다. 둘째, 신앙적인 면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이며, 셋째는 성품적인 면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다. 넷째, 대인관계적인 면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므로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다섯째는 새신자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다. 여섯째는 교육적인 면으로 새신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에 등록한지 2년 안팎의 성도들 가운데 특히 충성된 사람, 언제든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준비되어 있는 사람),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다.

209) 조석기, “새신자 목회에 있어 필수적인 양육위원 제도,”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20 (2010): 25.

210) 안중화, “장석교회 양육체계,”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17 (2007): 28.

211) 정재학, “양육위원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얻어진다,” 32.

제 3 절 새신자 양육위원의 훈련

1. 양육위원 훈련의 목표

평신도 사역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²¹²⁾ 새신자 양육위원 훈련의 목표는 평신도 사역자 중에 새신자를 돌보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있다.

게리 쿠네(Gary W. Kuhne)는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목회자(교사)는 다음 기본적인 분야를 돕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신자를 도와야 한다. 둘째, 일정한 신앙생활이 성장하도록 새신자를 돕는다. 셋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신자를 돕는다. 넷째, 새신자가 교회 생활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²¹³⁾

그러므로 양육위원 훈련의 목표는 새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우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양육자를 세우는데 있다.

2. 양육위원 대상자와 기도후원자

양육위원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장석교회에서는 ‘양육위원학교’라고 부른다. 양육위원의 선발과 훈련에서 제시한 대로 담당교역자와 부서는 양육위원을 미리 선발하여 기도로 준비하도록 권한다. 동시에 양육위원 대상자를 위하여 헌신할 기도후원자를 정하는 데, 주로 전 기수의 양육위원들로 연결된다. 기도후원자에게 양육위원 대상자의 신상내역, 교적부, 기도제목 등을 제공하고 대상자가 양육위원학교 전 과정을 마칠 때까지 중보하게 한다. 새신자위원회의 부장, 차장들도 전체 양육위원 대상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도록 한다. 양육위원학교는 단순한 지식전달을 위한 과정이 아니고 현

212)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92.

213) Gary W. Kuhne,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2), 20-21.

신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훈련소이다.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일이기에 기도로 서로 후원하며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양육위원학교 운영

안중화는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가 그의 책 *자연적 교회성장*에서 말한 교회 성장의 여덟 가지 질적인 원리와 양육위원학교의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²¹⁴⁾

첫째, 새신자 양육위원학교는 새신자들을 위한 사역자를 세우는 학교이다. 둘째, 양육위원학교는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성도들 중에서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의 은사를 개발하여 그들의 은사에 따라 안내, 접견, 양육 등으로 사역이 가능하다. 셋째, 양육위원학교는 열정적 영성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양육위원학교는 또 다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훈련의 장이며, 교회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능적 조직의 역할을 감당한다. 다섯째, 양육위원학교는 영감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여섯째, 양육위원학교를 수료한 양육자는 새신자와 전인적인 소그룹의 만남을 가짐으로 새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구역에서도 전인적인 소그룹의 인도가 가능해진다. 일곱째, 양육위원학교는 관계전도 방법을 격려하며 필요중심적 전도가 가능하다. 여덟째, 양육위원학교는 스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양육위원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위해 3주 전부터 모여 기도로 준비하며, 마칠 때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섬긴다.

양육위원학교는 평신도 자신의 성장과 새신자를 양육하고 섬기는 전문가로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운영한다. 양육위원학교는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평신도 사역 훈련의 장이며 도구이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새신자 목회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육위원학교에서 이와 같은 목표로 훈련하고 사역자를 양성해야 한다.

가. 양육위원학교의 인원 및 구성

214) 안중화, “장석교회 양육체계,” 23-27.

(1) 대상자

양육위원 대상자의 수는 20명 안팎이 좋다. 대상자가 많더라도 최대한 30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많은 대상자가 참석하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²¹⁵⁾ 세례교인으로서 양육위원학교를 수료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양육위원 대상이 되며, 가능하다면 부부가 양육위원으로 함께 훈련받고 봉사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양육위원으로 봉사할 경우, 새신자부 활동이나 양육에 있어서 협력이 가능하고 특히 한 가정 전체가 등록된 경우 양육위원 부부가 이들을 양육하도록 하면 좋은 장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양육위원이 필요하므로 연령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젊은 세대에서 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모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석교회의 경우²¹⁶⁾ 양육위원의 연령대가 높으므로 젊은 세대(30-40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훈련을 받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다.

(2) 봉사자

양육위원학교 기간동안 새신자부 임원들 외에 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새신자부 임원들은 양육위원학교 진행을 직접 도와 스텝으로 섬긴다면, 봉사자들은 양육위원학

215) 송민호,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15 (2005): 40.

216) 장석교회의 양육위원 고령화의 원인은 앞에서 논의한 노원구의 노인 인구 증가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다른 요인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장석교회의 새신자 남녀 연령별 접견현황(본 연구 34페이지)을 보면 남자 44-55세가 12퍼센트이고, 여자 40-55세가 29.5퍼센트로 이를 합하면 41.5퍼센트를 차지하여 젊은 중년층의 연령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다. 현재도 젊은 연령층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교회 주변의 장위동 뉴타운지역 아파트가 곧 입주하면(2020년 예상) 젊은 연령층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성도들의 자연적인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양육위원을 대상으로 신앙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79명의 연령을 파악해보니 50대 후반에서 60대 중후반이 84.6퍼센트로 나타났다. 이중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59명은 87.9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양육위원의 연령층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양육자 양성이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교회가 젊은 연령층의 발굴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만약 이대로 자연적 감소와 양육위원의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양육의 현장이 세대별 갭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30-40대의 젊은 연령층을 적극적으로 평신도 사역에 동참시키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번 양육위원학교에 에덴부(젊은 부부공동체)의 리더들을 권면하여 4명이 동참하였고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

교 참가자들을 여러 형태로 돕는다.

장석교회의 경우, 전 기수의 양육위원들이 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양육위원학교 기간동안 봉사자들은 ①교재준비, ②Q.T 실습 인도, ③어린이 놀이방 운영, ④저녁식사 준비, ⑤간식 및 차 종류 준비 등으로 봉사하게 된다. 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양육위원 대상자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에 집중하고,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²¹⁷⁾ 훈련기간 동안 친절한 섬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양육위원으로서 감당하게 될 역할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며 새신자에게도 배려할 수 있게 된다.

나. 양육위원 간담회

기업의 경영기법 중에 현장 경영(managing by wandering around)이 있다. 이 현장방문 경영 방식은 경영자가 높은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처리하는 감독자(supervisor)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 하고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는 지휘자(leader)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를 변화시켜 나간다.²¹⁸⁾ 이와 마찬가지로 양육위원 간담회는 양육위원들이 새신자 목회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새신자를 양육하면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리더와 양육위원 간의 소통의 장이다.

장석교회는 양육위원 간담회를 1년에 두 차례 전.후반기에 실시하면서 새신자를 위한 양육위원 제도가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선해 나가며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육위원은 새신자 양육의 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더욱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새신자 목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217) 송민호,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 40.

218) 양창상, *21세기가 원하는 크리스천 리더*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2004), 267.

제 5 장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훈련 방안

제 4장에서는 장석교회 주변 상황과 새신자 양육 및 정착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장석교회의 새신자 목회를 진단하면서 새신자 양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양육위원학교 훈련프로그램의 고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제 1 절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

1. 양육위원 훈련의 내용

가. 교육기간

양육위원학교의 교육기간은 8주 혹은 12주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성도들의 형편상 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8회 혹은 12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일과 주일 사이에 신앙적인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석교회는 최근 몇 년간 12주 과정으로 양육위원학교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실제적이고 양육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하여 8주간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이 단기간이므로 1회 이상 결석할 경우 수료가 되는 않는 것으로 한다.(단,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또한 절대로 지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매 주 과제물 및 성경암송 구절이 부여 된다. 교육시간은 주일 오후 찬양예배가 끝나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시간 운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 간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3:00 ~ 4:00	찬양예배	
4:00 ~ 4:30	간식 및 Q.T 나눔	봉사자, 새신자위원회
4:30 ~ 4:40	찬양	새신자위원회 찬양팀
4:40 ~ 6:00	강의	강사

나. 교육훈련

(1) 양육위원의 신앙자세

제임스 쿠제스(J. M. Kouzes)와 베리 포스너(B. Z. Posner)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다섯 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본을 보이라. 둘째, 공통의 비전을 강화하라. 셋째, 변화의 과정에 도전하라. 넷째,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라. 다섯째, 마음을 격려하라.”²¹⁹⁾ 이들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을 추출해 낸 것이다. 양육위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신자를 돌보고 성장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양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남은 양육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로써 다섯 가지를 말하였다.²²⁰⁾ 이는 하나님께의 마음에 합한 목자(렘 3:15)로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처럼(막 3:13)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육자의 모습이다.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둘째는 열심이 있는 사람, 셋째는 적극적인 자세로 섬기는 사람, 넷째는 긍정적인 자세로 섬기는 사람, 다섯째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양육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이다.

이와 같이 새신자에 대하여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눅 15:3-7). 또한 양육위원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약 5:7). 애정을 가지고 어린 자식을 돌보는 유모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히 5:13-14).

(2) 양육위원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격

219) J. M. Kouzes & B. Z. Posner, *크리스천 리더십 챌린지(Christian Leadership Challenge)*, 정옥배 역 (서울: 디모데, 2009), 78.

220) 이용남, “양육, 예수님으로 옷 입는 첫 단추,”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16 (2006): 9-12.

이용남은 양육위원이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새신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²²¹⁾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신앙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신앙의 경력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최소한 수세 후 2-3년은 경과한 사람들로 교회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인격도 갖추어야 하지만 성숙한 인격도 갖추어야 한다. 존경할 만한 품위와 교양이 있어 처음 대하는 새신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한다.²²²⁾ 이는 양육위원이 새신자 양육의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일반적인 자격이다. 이와 같이 장석교회는 양육위원이 새신자를 양육할 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위원 지침’을 마련하여 훈련하고 있다.²²³⁾

(3) 양육위원 교육 내용

양육위원학교 8주 프로그램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이는 매주 교육의 중심영역을 가정하고 훈련내용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성한다. 교육내용은 실제적이고 양육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통 3가지에서 4가지의 훈련의 주제를 다루며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교육한다. 훈련의 주제를 ①새신자 양육사역에 대한 소개(오리엔테이션), ②제자훈련, ③외부 탐방, ④양육의 실습 등 4가지로 구성하면 이를 주제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훈련한다.

예를 들면, ‘오리엔테이션 및 사역소개’의 중심영역은 양육위원학교 안내와 새신자부 양육에 대한 소개로 1주차에 진행한다. 제자훈련은 ‘말씀 묵상훈련(Q.T),’ ‘성령 충만한 삶,’ ‘중보기도,’ ‘멘토링,’ ‘영적 전쟁’ 등 2주~5주차에 제자훈련의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외부 탐방에서는 타 교회의 예배의 현장을 체험하고 양육 시스템을 배우는 시간으로 6주차에 진행하며, 마지막 양육의 실습시간으로 7주~8주차에 새신자 양육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성경공부 진행방법과 실습을 체험하게 된다.

다. 새신자위원회 훈련 프로그램

새신자위원회 훈련은 새신자위원회에 속한 제직부서 전체 위원 재교육을 위한

221) 이용남, “양육, 예수님으로 옷 입는 첫 단추,” 12.

222) 조석기, “새신자 목회에 있어 필수적인 양육위원 제도,” 30.

223) 장석교회 ‘양육위원 지침’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시간이며, 새신자 목회를 이해하고 스텝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²²⁴⁾ 새신자위원회 훈련 프로그램은 매주 갖는 경건회와 정기적으로 갖는 각부 세미나와 영성수련회가 있다.

(1) 경건회

새신자위원회는 매주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새신자 접견실에서 경건회로 모이고 있다. 경건회에 참석하는 대상자는 새신자위원회에 속한 새신자부와 접견부, 양육부, 정착부에 제직 및 부원이다. 경건회는 새신자위원회 지도 목회자가 말씀을 인도하며 사역을 시작하기 전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경건회의 유익과 목적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새신자 목회의 성공 여부는 기도함에 있다. 둘째, 경건회를 통해 새신자 목회의 재교육이 이루어진다. 셋째, 새신자위원회에 속한 각부 전체 모임이 이루어지고 사역 지침을 공유하며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 넷째, 영적인 교체(친교)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경건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새신자 목회의 전략과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는 새신자위원회의 제일되는 사역이다.

(2) 영성수련회 및 세미나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양육위원과 새신자위원회 전체 스텝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연 2회 수련회를 가지고 있다. 전반기는 영성수련회로 갖고, 하반기는 재충전을 위한 리트릿 시간으로 야외에서 수련회를 가지고 있다. 연초에 제직부서의 변화와 새로운 봉사자들을 위해서 총회를 갖게 되는데 이를 영성수련회로 기획하면 사역의 시작점에서 동기부여와 교육에 도움이 된다.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²²⁵⁾ 영성수련회 프로그램은 아래 <표 19>와 같다.

224) 새신자위원회 봉사 기준은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을 수료하고 등록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된 성도로 양육위원학교 과정을 필히 수료하여야 한다. 양육위원학교 수료자 중에 각부 부장의 추천 및 허락으로 봉사할 수 있다.

225) 장석교회는 새신자부원들과 양육위원에 대한 영성훈련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영성훈련과 교육이 통합되었지만, 전통적으로 새신자위원회 영성훈련을 위해서 새신자부원 및 양육위원 전원은 격월로 철야 기도회를 갖고 상반기와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달(홀수 달)에는 가까운 기도원에서 1박 2일의 철야기도회로 모이고 평소에는 교회 내에서 기

〈표 19〉 새신자위원회 영성수련회 및 총회

시 간	프로그램 순서	담 당
10:00~10:10	찬 양	이수정 집사
10:10~10:40	예 배	설교: 박영준 목사
10:40~11:00	새신자부원 소개	새신자부장
11:00~12:00	각 부서별 워크샵	각부 부장(4명)
12:00~12:30	부서별 모임	부서별로
12:30~12:50	1인 퍼포먼스 (바라바)	이영식 집사
13:00~13:50	점심식사 및 교제	식당
13:50~14:00	찬양과 율동	이수정 집사
14:00~15:10	새신자부 연간계획 및 공동체 활동	박영준 목사
15:10~16:00	새신자 목회: 바나바사역 1	변상민 목사
16:10~17:00	새신자 목회: 바나바사역 2	박영준 목사
17:00~17:30	기도회	박영준 목사

〈표 19〉는 새신자위원회 영성수련회 및 총회로 구성되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토요일에 진행하였으나 금요일을 활용한다면 1박 2일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평신도 사역자가 워크샵을 진행하고 주제를 이끌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한 해의 새신자 목회 계획을 나누고, 본 연구자가 새신자 목회에 접목하고자 하는 ‘바나바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훈련하였다.

새신자위원회는 각 부서별 새신자 목회의 전문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세미나를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별 재교육과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 있다. 단순한 이론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접목 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활용하면 새신자 목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서별 세미나 일정은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회를 실시하였다.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상)*, 194.

<표 20> 새신자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일정표

부 서	교육 & 세미나	2018년 일정
새신자부	새신자부 전산.행정 교육	2월 18일, 6월, 9월
접 견 부	접견위원 워크샵	2월 4일
	접견위원 교육 및 점검	6월 10일
양 육 부	양육위원학교	4월 23일~6월 2일
	양육위원 간담회	5월 13일, 10월 14일
	전문양육자학교	3/4~3/25, 9/30~10/21
정 착 부	정착사역 세미나	3월 4일
	정착부 교육 및 보고	7월 22일, 11월 18일
전체 부서	경건회	매 주일
	영성수련회	1월 27일, 6월 2일
	야외예배	10월 20일

2. 양육위원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가. 양육위원학교 계획안

양육위원학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²²⁶⁾ 양육위원은 새신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위임하여 세운 사역자이다. 양육위원은 새신자에게 성경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증거하며, 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이다. 따라서 양육위원 자신이 은혜와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양육위원학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다.²²⁷⁾

- 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② 성경

226) 안종화, “양육 생명을 살리는 손: 장석교회 양육체계,”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18 (2008): 30.

227) Ibid., 27.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 ③기도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④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 받고 건강한 믿음생활을 하는 것, ⑤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⑥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 ⑦선한 목자로서의 양육위원이 되는 것, ⑧새신자위원회의 사역을 이해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신자위원회에 속한 스태프는 양육위원학교가 시작하기 전부터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마칠 때까지 매주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양육위원학교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발굴해서 양육위원학교를 마칠 때까지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한다. 양육위원학교의 목표를 반영하여 세운 교육과정은 <표 21>과 같다.

<표 21> 2018년 25기 양육위원학교 훈련과정과 주제

회기	날짜	교육과정	강사	훈련 주제
1	4/15(주)	오리엔테이션 & 바나바사역	변상민 목사	섬김훈련 (바나바 훈련)
2	4/22(주)	바나바 훈련	박영준 목사	
3	4/29(주)	예수님의 제자 되기	박근호 목사	제자훈련
4	5/6(주)	성령 충만	최효열 목사	
5	5/13(주)	영적 무장	정승현 목사	
6	5/20(주)	양육의 실제(교재1)	박영준 목사	양육실습
7	5/27(주)	양육의 실제(교재2)	이호영 목사	
8	6/2(토)	영성수련회 (워크샵&공동체훈련&실습) 전도자의 사명(강의)&세족식	최종철 목사	사명과 헌신
			박영준 목사	
수료	6/3(주)	수료식&간증	찬양예배 시	

본 연구자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훈련(양육위원학교)에서 제자훈련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4가지 핵심주제를 나누어 훈련의 도구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육위원학교 훈련의 핵심주제로 사용하는 도구는 첫째로 ‘섬김(사람을 세우는 바나바 사역)’이며, 둘째는 ‘제자훈련(평신도를 세우는 제자훈련)’, 셋째는

‘양육의 실제(새신자 양육과정)’, 넷째는 ‘사명과 헌신(평신도 사역자)’이다.

4가지 핵심주제는 각기 몇 가지 세부적인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도구인 ‘섬김’은 새신자를 섬기고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역으로 바나바 사역과 훈련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²²⁸⁾

두 번째 주제인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는 유기성 목사의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에서²²⁹⁾ 12개의 주제 내용을 토대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자 한다. 양육위원학교에서는 제자훈련에서 본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의 주제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과 ‘성령 충만,’ ‘영적 무장,’ ‘전도자의 사명’을 다루고, 나머지 8개의 주제는 훈련자에게 필독서 과제물로 제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이름을 바꾸어 제자훈련에 임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도구인 ‘양육의 실제’는 장석교회가 새신자 양육교재로 사용하는 ‘뿌리내리기 새가족 성경공부’의 7가지 주제 내용을 토대로, 양육위원이 실제로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교육 내용과 방법론을 다루었다.

네 번째 도구인 ‘사명과 헌신’은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프로그램이며, 양육위원학교 영성수련회를 통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나. 섬김훈련

(1) 바나바 사역 이해

228) ‘바나바 사역’은 무학교회 바나바 사역 훈련 교재를 주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229)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이자 저자인 유기성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전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훈련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획은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었으며, 주님은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셨지만 철저히 훈련시키는 방법을 쓰셨다. 제자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 책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에서 10년 이상 평신도 제자훈련으로 검증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유기성 목사가 집필한 <예수님의 사람>을 제자훈련 주 교재로 사용하고자 한다.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1* (개정2판; 서울: 넥서스, 2018), 7-13.

‘바나바’(Βαρναβας)는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알려진 사람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보다 교회에서 신자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신앙과 삶의 결과로 사도들이 지어준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알려진 신앙의 인물이다(행 4:36). 바나바의 문자적 의미는 ‘예언의 아들’(고전 14:3)이지만, 누가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인 ‘권위자’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권위자는 ‘위로(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다.²³⁰⁾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의 사역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행 9:26-28).²³¹⁾

첫째는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가 먼저 교회에 입교한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영적 교제의 교량 역할을 감당한다. 둘째는 바나바를 통한 교회의 부흥이다(행 6:7).²³²⁾ 교회의 부흥을 위한 두 가지 요소는 ①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②성도들의 사역이다. 셋째는 바나바들의 헌신의 결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가 한 일을 통해, 성경의 본을 따라서 교회의 바나바가 해야 할 일은 ①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행 9:26). ②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만나며(행 9:26-27), ③새 교우와 교제하는 것이다. ④새 교우의 형편을 잘 들어주며(행 9:27), ⑤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대변하며 소개시켜 주어야 한다. ⑥바나바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행 9:26-28)을 감당한다. ⑦새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 준다(행 11:25-26). ⑧새 교우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나바의 역할이다.

(2) 바나바 훈련

바나바 사역은 새신자를 맞이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을 한다. 새신자부를 운영하는 많은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도입하여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데 돕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바나바 사역을 이해하고 온전히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훈련이 필요하다. 장석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바나바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230) 제자원 편, *우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도행전 제1-7* (서울: 제자원, 2006), 393.

231) 무학교회 바나바 사역 훈련 교재를 참조하였다.

232)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인식하고 교육하였지만, 현재 양육체계 안에 접목되지 못하였다. 장석교회는 양육위원과 새신자간 ‘일대일 양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위원들을 바나바 사역자로 훈련하면 새신자를 양육하고 정착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25기 양육위원학교 교육과정에 바나바 사역을 도입하여 훈련하였다.

바나바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²³³⁾ ①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어 새가족을 만나고 찾아가는 일이다. ②일대일로 짝지어 주는 것으로 바나바 사역이 시작이다. ③새가족과 7주간 바나바 사역을 한다.²³⁴⁾ ④교회에서 짝지어준 새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한다. ⑤바나바는 매 주일 예배 후에 새가족에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세 명(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소개시켜 주어야 한다. ⑥맡겨진 새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여야 한다. ⑦바나바는 새가족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보여야 한다. ⑧바나바 사역 지침서를 활용한다.

새신자 정착을 위해 바나바 사역 10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²³⁵⁾ ①교회에 위로와 칭찬과 화목이 가득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다. 성경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교회 분위기를 늘 훈훈하게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②예배 후 10분 동안 새신자를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예배 종료 즉시 훈련받은 바나바들이 새신자를 찾아 정중히 인사하고 환영하며 최대한 친절히 영접한다. 본인이 교회의 귀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③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슴의 사람으로 새신자를 만나게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친절이 우러나오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새신자를 만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④새가족보다 사역자를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된 바나바는 새신자를 교회에 정착하도록 결심시키는 일에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

⑤새신자와 교인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듯 대상자를 사랑과 기도로 중보하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⑥공감대를 갖는 사람과 일대일로 짝지 워야 한다. 새신자와 공감대를 갖는 바나바 사역은 짧은 시간에 친근감을 갖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한다.

233) 무학교회 바나바 사역 훈련 교재를 참조하였다.

234) 교회의 사정에 따라 3주~7주간 새가족과 바나바 사역을 갖는다.

235) 무학교회 바나바 사역 훈련 교재를 참조하였다.

⑦매주 3명의 교인을 소개한다. 바나바는 7주 동안 중요하게 여기는 교인을 매 주일 3명씩 새신자에게 소개하며 서로 교체하게 한다.

⑧새신자 앞에서 담임 목사와 교회를 자랑한다.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변화된 바나바는 담임 목사와 교회를 새신자에게 자랑하는 사람이다.

⑨새신자와 짝 짓는 환영실을 꼭 활용한다. 새신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잘 장식한 환영실에서 바나바와 짝을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⑩교회적으로 새신자 정착사역에 비중을 둔다. 정착사역은 전도와 양육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조직과 방법을 교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다. 제자훈련

양육위원학교 계획안에서 논의한 제자훈련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위원학교에서 다루는 제자훈련의 주제는 ①예수님의 제자 되기, ②성령 충만, ③영적 무장, ④전도자의 사명이다. 훈련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수님의 제자 되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마 16:24-25)”고 말씀하셨다. 유기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소전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죄라고 말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였다.²³⁶⁾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아’가 주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이다.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한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출발점이다.²³⁷⁾

양육위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여

236)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1*, 124-129.

237) Ibid., 138-143.

야 한다(갈 2:20).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이다. 양육위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양육위원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라는 주제를 통해 제자의 길을 묻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제자 훈련 첫 번째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2)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을 받는다(행 1:8). 유기성은 생명을 얻는 것이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²³⁸⁾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구했다. 성령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²³⁹⁾

양육위원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늘 붙잡힌바 된 삶을 살아야 한다. 유기성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⁴⁰⁾ 양육위원들에게 성령 충만은 단순히 능력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아니다. 완전한 순종을 배우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장하는 훈련이다. 양육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사역자의 기본이다. 따라서 양육위원학교 제자훈련 두 번째 과정으로 ‘성령 충만’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3) 영적 무장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238)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1*, 160-161.

239) Ibid., 168.

240) Ibid., 176.

(요일 3:8). 유기성은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 하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¹⁾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로버트 콜만(Robert Coleman)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의 효과성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는 온 누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할 것이기에 이에 합당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²⁴²⁾고 말했다. 유기성은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²⁴³⁾ 양육위원은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지만, 맡겨주신 영혼(새신자)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더욱 훈련하고 무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양육위원학교에서 ‘영적 무장’에 대해 중요성을 나누고 영적 전쟁의 개념과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등을 훈련하였다.²⁴⁴⁾

(4)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는 전도에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이다.²⁴⁵⁾ 김남식은 전도란 축소된 교리를 담아 교회의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과정이 전도라고 하였다. 로버트 콜만은 전도와 제자 양육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하며, 전도와 제자 양육을 동일시한다.²⁴⁶⁾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스도의 닮음을 전

241)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2* (개정2판; 서울: 넥서스, 2017), 152-158.

242) 김남식, *동행 전도학*, 3.

243) Ibid., 176.

244) ‘영적 무장’은 유기성의 *예수님의 사람2*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11단원의 주제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주제를 변경하였다.

245)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2*, 184.

246) 김남식, *동행 전도학*, 12.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²⁴⁷⁾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동행 전도는 함께함을 통해 삶을 전이시키는 것이 곧 전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⁴⁸⁾

이와 같이 전도자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양육위원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닮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행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단기 코스로 수료하면서 예수님의 동행 전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김남식의 ‘동행 전도’²⁴⁹⁾를 양육에 활용하면 전도자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며 지속적인 양육에 보완이 될 것이다.

유기성은 전도가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는 시금석과 같다고 하였다.²⁵⁰⁾ 본 연구자는 제자훈련의 주제로 ‘전도자의 사명’을 통해 양육위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전하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가정과 이웃과 직장 등, 내가 서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사명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새가족 성경공부 진행방법

(1) 새가족 양육교재 구성

장석교회가 사용하는 양육교재의 구성 원리는 크게 3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²⁵¹⁾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며, 둘째는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셋째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장석교회가 그동안 새신자 양육교재를 위해 고민하며 얻은 내용이다.

장석교회는 “뿌리 내리기” 새신자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7주 과정으로 사영리에 근간하여 구성되었다.²⁵²⁾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47) 김남식, *동행 전도학*, 175.

248) Ibid., 117.

249) 김남식은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Ph.D)을 전공하였고, CESI 한국전도학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의 저서 *‘동행 전도학’*을 참조 바란다.

250) 유기성, *예수님의 사랑*, 190.

251) 이석철, “새신자 교육의 구조와 운용,” *새신자 목회(상)* (서울: 돌곶이출판, 2000), 80.

252) 송민호, “새신자 목회 13년의 how를 공개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세미나 자료집*, vol. 14 (2004): 49.

①장석교회- 참 좋은 교회 (장석교회를 소개합니다), ②하나님의 사랑이야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③예배하는 삶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④말씀중심의 삶 (말씀은 내 삶에 빛이 됩니다), ⑤기도하는 삶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⑥성도의 교제와 소그룹 모임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을 소개합니다), ⑦봉사와 전도 (장석교회에 적응은 되셨습니까?)

양육 첫 주에는 일반적인 교회 소개와 양육위원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1주차는 장석교회를 소개하며 새신자가 장석교회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2주차에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다루게 된다. 양육자는 2주차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새신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 기존 신자에게도 이 과정은 필수이며 이미 영접했어도 다시 한 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5주차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배하는 삶(3주차), 말씀중심의 삶(4주차), 기도하는 삶(5주차)에 대해서 한 주씩 나누고, 예배생활을 돕는다. 6~7주차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와 소그룹 모임(6주차)을 나누고, 7주차에 봉사와 전도에 대해서 다룬다.

‘뿌리 내리기’ 교재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신앙의 출발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신자는 신앙의 기초(3~5과)를 뺀, 4주 과정(1과, 2과, 6과, 7과)을 받으며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양육진행 방법

진행순서	내 용
준비	주중에 양육부에서 연락, 양육준비(새신자에게 전화, 만남 확인)
만남	미리 와서 양육카드 수령, 처음 만남
양육 성경공부	①나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눔(새신자의 삶, 양육위원의 삶) “공감적인 듣기” ②교재의 모든 내용: 양육위원의 충분한 소화가 전제(눈감고도 교재 내용을 훤히 알도록 소화하기) ③말씀: 성경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말씀이 말하게 하라(Let the Words speak.) ④간단한 체험: 필요할 때 양육위원의 정제된 체험을 전하라. ⑤적용을 권면: 새신자가 나름대로 일주일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한다. ⑥기도: 새신자의 복된 삶을 간구하라. 일주일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새신자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라.
양육 마무리 절차	①축하선물을 전달하고 기도로 마치라(기도는 새신자부 담당 교역자, 부장에게 부탁하라) ②새신자 양육 수료식 및 환영잔치를 안내 한다.

마. 사명과 헌신

양육위원학교 영성수련회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위원학교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훈련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 양육위원학교 영성수련회는 마지막 회기에 진행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토요일을 활용하면 참여율을 높이고 일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성수련회 프로그램은 <표 22>와 같다.

<표 22> 25기 양육위원학교 영성수련회

시 간	항 목	담 당
10:30~11:20	찬양과 예배	찬양팀, 박영준 목사
11:20~12:20	점심 식사 및 교체	새신자위원회 스텝
12:20~12:30	찬양	찬양팀(이수정 집사 외)
12:30~13:50	공동체 훈련	박영준 목사
14:00~14:50	전도자의 사명	최종철 목사
15:00~15:15	양육 시연	양육위원
15:15~15:40	양육 실습(Role Play)	박영준 목사
15:50~16:50	세족식	박영준 목사/ 스텝
16:50~17:00	권면의 말씀 및 폐회기도	함택 담임목사

25기 양육위원학교 영성수련회는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해당 기수의 친화와 단결을 도모하여 수료이후에도 후속 모임이 가능하도록 훈련하였다. 또한 제자훈련의 마지막 과정인 ‘전도자의 사명’을 통해 양육위원의 영혼사랑과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특별히 ‘양육실습’을 통해 훈련생들이 양육과정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실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마지막 ‘세족식’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님의 섬김과 헌신을 따라 새신자를 섬기는 양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든 순서가 끝나갈 때 교회의 최고 리더자인 담임 목사의 권면의 말씀과 기도는 헌신하고자 하는 양육위원들에게 좋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제 2 절 양육위원 심화과정

1. 전문양육위원 과정

전문양육위원이란 기존의 양육위원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 장석교회에서 양육위원 2단계 교육을 실시해 왔었다.²⁵³⁾ 그러나 전문양육위원 과정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봉사자를 더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현재 새신자를 양육하는 양육위원들이 현장에서 새신자의 상황에 맞게 양육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양육위원 간담회에서 양육위원들이 양육 현장에서 갖는 문제들을 토론하며, 새신자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양육위원의 인간 이해가 보다 전문화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양육위원이 새신자 양육의 전문가로서 새신자의 유형에 따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갖게 한다면 양육위원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가. 현대인의 문제와 이해

노승수는 목회의 현장은 실제로 구도의 여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최우선적인 필요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인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나고 구원의 여정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신 상태로 많은 정서적 . 가정적 .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교회에 온다.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노력하지만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여러 교인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 있는 돌봄을

253) 양육위원 2단계 교육은 양육위원학교를 최근에 수료한 기수를 제외한 기존 양육위원들이 대상이 된다. 교회봉사를 겸하는 경우나 양육위원 봉사를 쉬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가능한 시간에 양육위원으로 봉사하게 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목회의 영역이다. 새신자가 구원 여정으로 인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는 그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²⁵⁴⁾ 그에 따라 구원 여정에 있는 새신자를 이해하고 필요 적절한 목회적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양육 이후에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어거스틴(Augustine)은 인간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한 기술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²⁵⁵⁾ 이를 더 발전시킨 인물은 청교도였던 토마스 보스턴(Thomas Boston)이다. 그의 저작, *인간본성의 4중 상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한다.

천국을 보게 될 모든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4가지가 있다. ①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무죄 상태, ②사람이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처하게 된 부패한 본성의 상태, ③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기 위한 은혜의 상태, ④모든 자의 재판관에 의해 완벽한 행복의 상태로, 또는 철저한 비참의 상태로 거하게 될 각 사람의 영원한 상태이다.²⁵⁶⁾

근래에 들어서 새신자 중에 우울의 문제와 정신 병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양육위원들 중에는 그동안 훈련을 받아 왔지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못했다.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건강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눅 5:31-32)고 말씀하셨다. 물론 양육위원들이 의사나 전문적인 상담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목회적 돌봄이 가능하다면 새신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점차 자아를 상실해 가고 있다. 지나친 생존경쟁으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양육위원은 하나님의

254) 노승수, “개혁신학으로 재구성한 정신분석적 인간이해모델 연구: 정신분석전통의 본성, 자기, 대상관계개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017), 38.

255) 어거스틴의 신망에 편람 *Enchiridion*-(Handbook on faith, hope, and love)에 나타나는데 이 저작은 기독교신앙의 요점을 정리한 교리서로서 기독교신앙 전체를 엄밀한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한 책으로써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Ibid., 39.

256) Thomas Boston, *인간본성의 4중 상태*(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스테반 황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21. 위의 책 41에서 재인용.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을 바탕으로 새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본 연구자는 양육위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양육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표 23> 장석교회 상반기 전문양육위원 교육과정

회기	교육과정	강사
1	내면의 상처와 치유	박영준 목사
2	정신질환과 신앙문제	송민호 목사
3	우울의 문제	송민호 목사
4	목양사역과 이단대처	박영준 목사

<표 24> 장석교회 하반기 전문양육위원 교육과정

회기	교육과정	강사
1	영적 무기력	박영준 목사
2	정신병리와 귀신들림	송민호 목사
3	촉진적 대화훈련(공감)	최효열 목사
4	전도와 양육	박영준 목사

<표 23>은 양육위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3월)에 실시하였다. <표 24>은 하반기 또는 다음 계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장석교회에서 새신자부를 지도한 경험이 있고 상담을 전공하여 장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송민호 목사와 상담을 전공한 본 연구자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지도하였다. 전문양육위원 과정은 양육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이단대처

이단은 기존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시한다(벧후 2:10). 이단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한다. 신학적으로 교리적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전도를 시도하고, 심리적

으로는 개인이 감지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필요를 악용함으로 포교한다.²⁵⁷⁾ 이단은 거짓 교리로 성도를 현혹하고, 이단의 정체를 숨기고 사회 봉사활동과 산업에 침투하며, 인터넷, 교육기관, 교회 침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소수 집단의 이단까지 합하면 약 200여종이 넘는 이단이 있다.²⁵⁸⁾ 김성훈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인교육을 강조하였다.²⁵⁹⁾ 양육위원은 새신자를 양육하며 처음으로 대면하는 첫 번째 관문과 같다. 양육위원이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는 태도는 지양하면서도 영적으로 새신자의 상태를 감지하고 분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양육위원을 교육할 때 현대의 이단의 특성과 상황, 대처 방법들을 가르치고 순수한 새신자를 보호하며 진리 안에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구원의 확신반

새신자를 양육하는 양육위원은 구원의 확신과 진리 안에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김남식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과 동행이 없이 기관적인 교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는 제자를 양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선순위는 제자 양육을 위해 동행 할 수 있는 핵심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신 모델 즉, 영적 자녀 관계, 친구 관계와 같은 동행적 관계를 세워야 한다.²⁶⁰⁾ 본 연구자는 새신자를 양육하는 양육위원 중에 이와 같은 핵심 그룹의 필요성을 새신자 목회 가운데 느끼고 있다. 단기간에 양육을 마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의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맛볼 수 없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지만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257) 김성훈, “이단에 대처하는 실천적 대안으로서 이단 예방교육 연구: 은성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37-39.

258) Ibid., 70.

259)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만 교인들이 이단 현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김성훈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정확한 creed로, 성서의 지식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는 cult로, 상징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충분히 동원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예배 의식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code로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는 인지적 차원의 교육, 정서적인 차원의 교육, 행동적인 차원의 교육으로써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bid., 68.

260) 김남식, *동행 전도학*, 63-64.

김남식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회심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가 필수 요건이라 하였다. 회심 없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회심 없이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²⁶¹⁾ 따라서 구원의 확신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제자반이다. 제자도를 위해 회심자와 동행하면서 ‘성결’과 ‘전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²⁶²⁾

대개의 경우 사영리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폭발을 하는 교회에서 전도폭발 전문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전부이다. 문제는 회심한 그 이후가 중요하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제자가 된 신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확신반이 양육위원 제도에 함께 하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기존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써 쓰임 받게 될 것이다.

261) 김남식, *동행 전도학*, 64.

262) 코이노니아를 바탕으로 회심자가 성령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내적 성결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결을 바탕으로 회심자가 또 다시 제자를 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도는 모든 회심자의 의무이다.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가리키듯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 영혼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전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Ibid., 65-66.

제 6 장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훈련 결과분석

제 5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양육위원학교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진행하였다. 본장에서는 장석교회의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생활 실태조사를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들의 신앙의식을 분석하고, 더불어 새신자 양육위원학교에서 실시한 사역 훈련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논의한다.

제 1 절 장석교회 양육위원의 신앙의식 조사

1. 조사 방법

장석교회에서 양육위원학교를 수료한 양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앙생활 실태를 통해 신앙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의 목적은 평신도들의 신앙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새신자 양육을 위해서 전문적인 양육훈련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신앙의 성숙도를 알아보고 새신자 양육위원들의 모습을 통해 평신도 사역의 함의를 찾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문 문항을 찾기 위해 2018년 1월에 한 달간 조사기간을 갖고, 설문지 수정작업을 2018년 2월에 시작하여, 3월에 2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3월에 실시한 전문양육위원학교에 참여한 양육위원들에게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2주차에 설문을 실시하였다.²⁶³⁾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전문양

263) 2주차에 설문을 실시한 이유는 전문양육위원학교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설문이 아닌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실태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를 피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다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주에는 추후 전문양육위원학교에 참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따로 조사하였다.

육위원학교에 참여한 75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새신자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 4명을 포함하여 총 79명이었다. 본 연구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분석에 적당하지 않은 20명을 제외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59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양육위원들의 신앙 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신앙생활 점검표’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고려신학대학원의 현유광 명예교수가 목회실습에서 사용한 개인신앙생활 점검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총 30문항이며 9가지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9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때때로 그렇다(3),’ ‘자주 그렇다(4),’ ‘늘 그렇다(5)’까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말씀과 경건생활(1~6번 문항), ②기도생활(7~11번 문항), ③예배생활(12번 문항), ④친교생활(13~16번 문항), ⑤봉사생활(17~18번 문항), ⑥전도생활(19~22번 문항), ⑦헌금생활(23~25번 문항), ⑧자기관리(26~28번 문항), ⑨존전의식(29~30번 문항)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데이터는 SPSS 23을 통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인신앙생활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 문항의 9가지 하위요소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알파검증을 하였다.

셋째,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직분과 나이, 신앙의 연수, 수료 후 연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가.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표 25>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양육위원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표이다.

<표 25> 양육위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측값 제외)

변수	항목	빈도	%	평균	표준표차
직분	서리집사	28	47.5		
	시무권사	12	20.3		
	안수집사	16	27.1		
	항존직 은퇴자	3	5.1		
나이	40대	3	5.2		
	50대	29	50.0		
	60대	22	37.9		
	70대	4	6.9		
신앙 연수	15년 이하	3	5.1		
	16~20년	7	12.1		
	21~30년	18	31.0		
	31~40년	13	22.4		
	41년 이상	17	29.3		
구원의 확신	예	58	98.3		
	모름	1	1.7		
부활 믿음	예	59	100		
	아니오	0	0.0		
천국과 지옥 믿음	예	59	100		
	아니오	0	0.0		
수료 햇수	1~5년	23	39.0		
	6~10년	11	18.6		
	11~15년	11	18.6		
	16~20년	11	18.6		
	21년 이상	3	5.1		

설문에 참여한 직분자를 살펴보면, 서리집사가 28명(47.5퍼센트)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 안수집사가 16명으로 27.1퍼센트, 시무권사는 12명으

로 20.3퍼센트, 향존직 은퇴자는 3명으로 5.1퍼센트로 나타났다.²⁶⁴⁾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29명으로 5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60대가 22명(37.9퍼센트), 70대는 4명(6.9퍼센트), 40대는 3명(5.2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신앙의 연수를 살펴보면, 21~30년이 31.0퍼센트(18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1년 이상 29.3퍼센트(17명), 31~40년은 22.4퍼센트(13명), 16~20년은 12.1퍼센트(7명), 15년 이하는 5.1퍼센트(3명)로 나타났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양육위원은 98.3퍼센트(58명)이었으며, ‘모름’이라고 응답한 양육위원은 1명(1.7퍼센트)으로 나타났다.²⁶⁵⁾ “성도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양육위원은 59명으로 100퍼센트로 나타났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양육위원도 역시 59명(100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양육위원들의 양육위원학교 수료 햇수를 살펴보면, 1~5년이 가장 많은 39퍼센트(23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10년은 18.6퍼센트(11명), 11~15년이 18.6퍼센트(11명), 16~20년은 18.6퍼센트(11명)로 각각 동일하게 나타났고, 21년 이상은 5.1퍼센트(3명)로 가장 낮았다.

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으로 9가지 요인을 묶어줌으로써 변수들을 단순화하였다.

<표 26>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표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전도생활	봉사생활	경건생활	기도생활	존전의식	헌금생활	예배생활	자기관리	친교생활	
전도생활21	.890	-.075	.076	.028	.145	.037	.050	.121	-.257	.792
전도생활19	.835	.179	.005	.146	.120	.143	-.169	.100	.267	
전도생활20	.731	.120	.516	.000	.062	.084	.097	.017	.096	
봉사생활18	-.020	.866	.133	.163	.142	.052	.202	.035	.125	
봉사생활17	.189	.749	.073	.225	.259	.160	.152	.204	.129	

264) 은퇴 향존 직분자는 은퇴 권사 2명과 명예 권사 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65) 응답지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예’와 ‘아니오’ 두 가지 답변 중 어느 곳에도 표시하지 않은 응답자에 대해서는 ‘모름’으로 구분하였다.

경건생활5	.115	.155	.874	.275	.021	.138	.055	.047	.013	.714
경건생활4	.207	.032	.674	.122	.293	.176	.370	.218	.167	
기도생활10	-.012	.233	.186	.848	.059	.204	.094	.192	-.091	.649
기도생활9	.186	.135	.202	.810	.260	-.018	-.028	-.222	.228	
존전의식29	.125	.202	.169	.071	.868	.056	-.144	.188	.132	.781
존전의식30	.206	.208	-.008	.345	.734	.229	.307	.082	.059	
헌금생활23	.044	.230	.186	.094	.152	.903	.037	.033	.051	.641
헌금생활24	.445	-.150	.091	.151	.052	.635	.075	.381	.148	
예배생활12	-.059	.352	.217	.047	-.012	.049	.843	-.018	.192	1.000
자기관리28	.224	.234	.160	-.020	.278	.169	-.012	.810	.223	1.000
친교생활16	.010	.277	.127	.088	.206	.142	.282	.265	.786	1.000
아이젠값	2.461	1.875	1.749	1.731	1.720	1.474	1.167	1.119	1.017	
변량	15.381	11.721	10.932	1.0821	10.753	9.214	7.294	6.993	6.353	
누적 변량	15.381	27.102	38.034	48.855	59.608	68.822	76.116	83.109	89.46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7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405.997(df=120, p<0.01)***

*p<0.05, **p<0.01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으며,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동시에 하였다. 먼저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보면,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KMO가 0.779로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 다음은 Bartlett으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검정으로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은 9가지로 전도생활, 봉사생활, 경건생활, 기도생활, 존전의식, 헌금생활, 예배생활, 자기관리, 그리고, 친교생활로 상위변수가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⁶⁶⁾ 먼저 전도생활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792을 보이고 있으며, 봉사생활의 신뢰도는 0.678을 보이고 있다. 경건생활의 신뢰도는 0.714이며, 기도생활의 신뢰도는 0.649, 존전의식의 신뢰도는 0.781, 헌금생활

266)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신뢰도 검증 또는 Cronbach 알파검증이라고 한다. 보통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

의 신뢰도는 0.641로 나타났으며, 예배생활과 자기관리, 대인관계의 신뢰도는 각각 1.000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다. 신앙생활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표 27>은 개인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에서 신앙의 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의 현재 형편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1점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3점은 보통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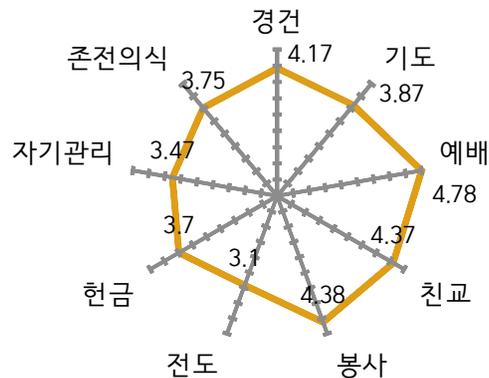
<표 27>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값²⁶⁷⁾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경건생활	59	1	5	4.17	.865	-1.117	.836
기도생활	59	1	5	3.87	.906	-.332	-1.032
예배생활	59	1	5	4.78	.789	-4.155	7.500
친교생활	59	1	5	4.37	.828	-1.180	.644
봉사생활	59	1	5	4.38	.697	-1.123	1.047
전도생활	59	1	5	3.10	1.011	.019	-.680
헌금생활	59	1	5	3.70	.888	-.922	.643
자기관리	59	1	5	3.47	1.096	-.282	-.685
존전의식	59	1	5	3.75	.835	-.052	-.903

신앙생활에 대한 각 문항의 평균을 보면 예배생활이 가장 높은 4.7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봉사생활(4.38), 친교생활(4.37), 경건생활(4.17), 기도생활(3.87), 존전의식(3.75), 헌금생활(3.70), 전도생활(3.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사형 그래프로 보면 <그림 8>과 같다.

267) 정규성 검정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에 대한 대칭적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 좌측에 몰려있고, 음의 왜도는 평균의 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대한 비대칭적 분포를 이룬다. 왜도는 절대값 3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자료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SPSS에서 첨도 값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된 첨도지수 값 3을 제외한 결과로 해석할 때는 3을 더해서 해석한다. 이 연구의 응답자료 정규성 검토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와 첨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개인신앙생활에 대한 신앙 성숙도



위의 <그림 8>을 보면 9가지 개인신앙생활에 대한 각각의 신앙 성숙도를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분포가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히 예배생활(4.78)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배 참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봉사(4.38)와 친교(4.37), 경건생활(4.17)에서 양육위원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도생활과 존전의식,²⁶⁸⁾ 헌금생활에서도 비교적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전도생활(3.1)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생활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불신자 전도와 복음 전도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자기관리(3.47)에서도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꾸준한 운동과 시간관리 등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의 어려움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라. 직분과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1) 직분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직분에 따른 신앙 성숙도의 차이를 보면 아래 <표 28>과 같다.

268)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자신이 ‘인생을 바꾼 7가지 지적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가운데 두 번째 경험으로 “신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존전의식(存前意識)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삶을 말한다. Peter Ferdinand Drucker,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재규 역 (서울: 청림출판, 2004), 157-158.

<표 28> 직분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경건생활	서리집사	4.08	.688	.830	.483	n/a
	시무권사	4.32	1.055			
	안수집사	4.09	1.036			
	은퇴자	4.83	.289			
	전체	4.17	.865			
기도생활	서리집사	3.76	.848	.948	.424	n/a
	시무권사	3.96	.988			
	안수집사	3.84	.978			
	은퇴자	4.67	.577			
	전체	3.87	.906			
예배생활	서리집사	4.75	.799	1.009	.396	n/a
	시무권사	4.50	1.243			
	안수집사	5.00	.000			
	은퇴자	5.00	.000			
	전체	4.78	.789			
친교생활	서리집사	4.29	.810	1.721	.173	n/a
	시무권사	4.08	.900			
	안수집사	4.63	.806			
	은퇴자	5.00	.000			
	전체	4.37	.828			
봉사생활	서리집사	4.24	.561	1.334	.273	n/a
	시무권사	4.38	.882			
	안수집사	4.50	.775			
	은퇴자	5.00	.000			
	전체	4.38	.697			
전도생활	서리집사	3.07	.962	1.701	.178	n/a
	시무권사	3.06	1.033			
	안수집사	2.94	1.056			
	은퇴자	4.33	.577			
	전체	3.10	1.011			
헌금생활	서리집사	3.57	.917	.536	.660	n/a
	시무권사	3.83	.718			
	안수집사	3.72	1.032			
	은퇴자	4.17	.289			
	전체	3.70	.888			
자기관리	서리집사	3.43	1.034	1.011	.395	n/a
	시무권사	3.17	1.193			
	안수집사	3.60	1.183			
	은퇴자	4.33	.577			
	전체	3.47	1.096			
존전의식	서리집사	3.71	.713	.313	.816	n/a
	시무권사	3.71	.838			
	안수집사	3.81	1.063			
	은퇴자	4.50	.000			
	전체	3.75	.835			

신앙생활 전체	서리집사	3.76	.525	.708	.552	n/a
	시무권사	3.80	.623			
	안수집사	3.88	.707			
	은퇴자	4.63	.000			
	전체	3.82	.600			

*p<0.05, **p<0.01

<표 28>에서 경건생활을 살펴보면, 향존직 은퇴자가 4.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무권사가 4.32이고, 안수집사는 4.09, 서리집사가 4.08로 나타났으나,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직분에 따른 경건생활($F=.830$, $p=.483$)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도생활을 살펴보면, 향존직 은퇴자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무권사는 3.96이고, 안수집사는 3.84, 서리집사가 3.76으로 나타났으나, 직분에 따른 기도생활($F=.948$, $p=.424$)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예배생활을 살펴보면, 안수집사와 향존직 은퇴자가 동일하게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리집사가 4.75이고, 시무권사는 4.50으로 나타났으나, 직분에 따른 예배생활($F= 1.009$, $p=.396$)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친교생활을 살펴보면, 향존직 은퇴자가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수집사가 4.63이고, 서리집사가 4.29, 시무권사는 4.08로 나타났으나, 직분에 따른 친교생활($F=1.721$, $p=.173$)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봉사생활을 살펴보면, 향존직 은퇴자가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수집사가 4.50이고, 시무권사는 4.38, 서리집사가 4.24로 나타났으나, 직분에 따른 봉사생활에 통계적($F=1.334$, $p=.273$)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도생활을 살펴보면, 향존직 은퇴자가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리집사가 3.07이고, 시무권사는 3.06, 안수집사가 2.94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분에 따른 전도생활($F=1.701$, $p=.178$)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헌금생활을 살펴보면, 향존직 은퇴자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무권사가 3.83이고, 안수집사는 3.72, 서리집사가 3.57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분에 따른 헌금생활($F=.536$, $p=.660$)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관리를 살펴보면, 향존직 은퇴자가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안수집사가 3.60이고, 서리집사는 3.43, 시무권사가 3.17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분에 따른 자기관리($F=1.011$, $p=.395$)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존전의식을 살펴보면, 항존직 은퇴자가 4.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수집사는 3.81이고, 시무권사와 서리집사가 동일한 3.71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분에 따른 존전의식($F=.313$, $p=.816$)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신앙생활 전체를 살펴보면, 항존직 은퇴자가 4.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수집사가 3.88이고, 시무권사는 3.80, 서리집사가 3.76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분에 따른 신앙생활 전체($F=.708$, $p=.552$)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 전체를 살펴보면,²⁶⁹⁾ 15년 이하의 평균이 3.59이고, 16~20년은 3.29, 21~30년은 3.89, 31~40년은 3.82, 41년 이상은 4.01, 그리고 전체는 3.84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앙연수가 41년 이상(4.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1~30년(3.89), 31~40년(3.82), 15년 이하(3.59), 16~20년(3.2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값이 1.570이고 유의확률이 0.199이므로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마.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 성숙도의 차이를 보면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경건생활	1~5년	3.88	1.011	1.663	.173	n/a
	6~10년	4.09	.944			
	11~15년	4.41	.664			
	16~20년	4.32	.603			
	21년이상	5.00	.000			
	전체	4.17	.865			

269)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통계자료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기도생활	1~5년	3.68	.933	1.155	.341	n/a
	6~10년	4.05	1.060			
	11~15년	3.68	.929			
	16~20년	4.05	.650			
	21년이상	4.67	.577			
전체	3.87	.906				
예배생활	1~5년	4.52	1.163	1.116	.358	n/a
	6~10년	4.82	.603			
	11~15년	5.00	.000			
	16~20년	5.00	.000			
	21년이상	5.00	.000			
전체	4.78	.789				
친교생활	1~5년	4.22	.850	.626	.646	n/a
	6~10년	4.27	.905			
	11~15년	4.45	1.036			
	16~20년	4.64	.505			
	21년이상	4.67	.577			
전체	4.37	.828				
봉사생활	1~5년	4.15	.760	1.452	.230	n/a
	6~10년	4.50	.707			
	11~15년	4.35	.709			
	16~20년	4.73	.344			
	21년이상	4.50	.866			
전체	4.38	.697				
전도생활	1~5년	3.07	1.044	1.499	.216	n/a
	6~10년	2.82	1.058			
	11~15년	3.70	.949			
	16~20년	2.79	.734			
	21년이상	3.44	1.347			
전체	3.10	1.011				
헌금생활	1~5년	3.52	1.017	.506	.731	n/a
	6~10년	3.82	.560			
	11~15년	3.68	1.168			
	16~20년	3.82	.681			
	21년이상	4.17	.289			
전체	3.70	.888				
자기관리	1~5년	3.39	.941	.252	.907	n/a
	6~10년	3.45	1.214			
	11~15년	3.73	1.348			
	16~20년	3.30	1.059			
	21년이상	3.67	1.528			
전체	3.47	1.096				
존전의식	1~5년	3.63	.772	.667	.618	n/a
	6~10년	3.59	.889			
	11~15년	3.91	.944			
	16~20년	4.05	.850			
	21년이상	3.50	.000			
전체	3.75	.835				

	1~5년	3.65	.640			
	6~10년	3.82	.607			
신앙생활	11~15년	4.02	.741			
전체	16~20년	3.96	.301	.806	.528	n/a
	21년이상	3.69	.000			
	전체	3.82	.600			

*p<0.05, **p<0.01

경건생활을 살펴보면,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21년 이상이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1~15년(4.41)이고, 16~20년(4.32), 6~10년(4.09), 1~5년(3.8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정통계량을 보면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경건생활($F=1.663$, $p=.173$)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도생활을 살펴보면, 수료 후 21년 이상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10년(4.05)과 16~20년(4.05)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고, 1~5년(3.68)과 11~15년(3.68)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기도생활($F=1.155$, $p=.341$)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예배생활을 살펴보면, 수료 후 11~15년과 16~20년, 21년 이상이 각각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10년(4.82), 1~5년(4.52) 순으로 나타났으나,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예배생활($F=1.116$, $p=.358$)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친교생활을 살펴보면, 수료 후 21년 이상(4.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6~20년(4.64)이 높고, 11~15년(4.45), 6~10년(4.27), 1~5년(4.22) 순으로 나타났으나,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친교생활($F=.626$, $p=.646$)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봉사생활을 살펴보면, 수료 후 16~20년(4.7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10년(4.05)과 21년 이상(4.50)이 동일하게 높고, 11~15년(4.35), 1~5년(4.15) 순으로 나타났으나,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봉사생활($F=1.452$, $p=.230$)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도생활을 살펴보면, 수료 후 11~15년(3.7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1년 이상(3.44)이고, 1~5년(3.07), 6~10년(2.82), 16~20년(2.79) 순으로 나타났

으나,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전도생활($F=1.499$, $p=.216$)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헌금생활을 살펴보면, 수료 후 21년 이상(4.1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10년과 16~20년이 3.82로 동일하게 높고, 11~15년(3.68), 1~5년(3.52) 순으로 나타났으나,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헌금생활($F=.506$, $p=.731$)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관리를 살펴보면, 수료 후 11~15년(3.7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1년 이상(3.67)이 높고, 6~10년(3.45), 1~5년(3.39), 16~20년(3.30) 순으로 나타났으나,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자기관리($F=.252$, $p=.907$)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존전의식을 살펴보면, 수료 후 16~20년(4.0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1~15년(3.91)이 높고, 1~5년(3.63), 6~10년(3.59), 21년 이상(3.50) 순으로 나타났으나,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존전의식($F=.667$, $p=.618$)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신앙생활 전체를 살펴보면,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11~15년(4.02)에서 신앙 성숙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6~20년(3.96)이 높고, 6~10년(3.82), 21년 이상(3.69), 1~5년(3.6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정통계량을 보면, F 값이 0.806이고 유의확률이 0.528이므로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바. 신앙생활의 상관관계 분석

개인신앙생활 9가지 하위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을 보면, 경건생활은 기도생활($r=.471$, $p<.01$)과 예배생활($r=.421$, $p<.01$), 그리고 친교생활($r=.403$, $p<.01$), 봉사생활($r=.410$, $p<.01$), 전도생활($r=.441$, $p<.01$), 헌금생활($r=.440$, $p<.01$) 및 자기관리($r=.415$, $p<.01$)와 존전의식($r=.401$, $p<.01$)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건생활이 성숙할수록 기도와 예배, 친교, 봉사, 전도, 헌금생활 및 자기관리와 존전의식의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기도생활은 친교생활($r=.296$, $p<.05$)과 봉사생활($r=.462$, $p<.01$), 전도생활($r=.270$,

$p < .05$), 현금생활($r = .313$, $p < .05$), 존전의식($r = .411$, $p < .01$)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도생활이 성숙할수록 친교와 봉사, 전도, 현금생활 및 존전의식의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예배생활은 친교생활($r = .418$, $p < .01$)과 봉사생활($r = .488$, $p < .01$)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예배생활이 성숙할수록 친교와 봉사생활의 수준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표 30> 개인신앙생활의 상관관계 분석표

	경건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친교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현금 생활	자기 관리	존전 의식
경건생활	1								
기도생활	.471**	1							
예배생활	.421**	.251	1						
친교생활	.403**	.296*	.418**	1					
봉사생활	.410**	.462**	.488**	.546**	1				
전도생활	.441**	.270*	.042	.201	.299*	1			
현금생활	.440**	.313*	.163	.388**	.364**	.430**	1		
자기관리	.415**	.167	.162	.544**	.477**	.441**	.482**	1	
존전의식	.401**	.411**	.048	.395**	.497**	.387**	.353**	.518**	1

* $p < 0.05$, ** $p < 0.01$

친교생활은 봉사생활($r = .546$, $p < .01$)과 현금생활($r = .388$, $p < .01$), 자기관리($r = .544$, $p < .01$), 존전의식($r = .395$, $p < .01$)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친교생활이 좋을수록 봉사와 현금생활 및 자기관리와 존전의식도 성숙해짐을 보여준다.

봉사생활은 전도생활($r = .299$, $p < .05$)과 현금생활($r = .364$, $p < .01$), 자기관리($r = .477$, $p < .01$), 존전의식($r = .497$, $p < .01$)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봉사생활이 성숙할수록 전도와 현금생활 및 자기관리와 존전의식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전도생활은 현금생활($r = .430$, $p < .01$)과 자기관리($r = .441$, $p < .01$), 존전의식($r = .387$, $p < .01$)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전도생활이 성숙할수록 현금생활 및 자기관리와 존전의식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현금생활은 자기관리($r=.482, p<.01$)와 존전의식($r=.353, p<.01$)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금생활이 성숙할수록 자기관리와 존전의식의 성숙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자기관리는 존전의식($r=.518,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기관리가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존전의식 수준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제 2 절 장석교회 양육위원학교 훈련 분석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서울의 장석교회에서 25기 양육위원학교에 참여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육위원학교 훈련을 위해 2018년 3월 25일부터 3주간 정원 25명을 모집하여 22명이 훈련에 참가하였고, 2018년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하여 수료한 사람은 총 19명이었다. 양육위원학교 프로그램은 영성수련회를 포함하여 8회기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수료자 19명 중 분석에 적당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새신자를 양육하는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25기 양육위원학교 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²⁷⁰⁾ 훈련 참가자들이 양육위원학교 훈련을 마치는 날 설문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실시한 4가지 주제의 집중훈련에 대한 자기 보고식 검사를 위해 제작하였다. 설문은 ‘25기 양육위원학교’ 훈련을 통해 가지게 된 본인의 현재 모습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이며, 4가지 훈련의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조금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조금 그렇다(4),’ ‘매우 그렇다(5)’까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훈련을 통해 변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섬김훈련(바나바훈련, 1~2번 문항) ②제자훈련(3~6번 문항), ③양육의 실제(7번 문항), ④사명과 헌신(8~10번 문항)

270) 25기 양육위원학교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112-123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양육위원학교 훈련에서 조사된 데이터는 SPSS 23을 통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문항의 4가지 하위요소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알파검증을 하였다.

둘째,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훈련생들의 소감과 평가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가.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²⁷¹⁾

<표 31> 양육위원학교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표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섬김훈련	양육실제	사명헌신	제자훈련	
섬김훈련1	.953	.050	-.025	.298	1.000
양육실제7	.048	.992	-.010	.113	1.000
사명헌신10	-.019	-.010	.997	.072	1.000
제자훈련4	.315	.132	.087	.936	1.000
아이젠값	1.010	1.005	1.003	.983	
변량	25.239	25.124	25.067	24.570	
누적 변량	25.239	50.363	75.430	100.000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9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²=6.728(DF=6, P<0.01)**

*p<0.05, **p<0.01

<표 31>과 같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4가지 요인을 묶어줌으로써 변수들의 단순화를

271) 요인분석이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공통성향의 변수들을 추출하고, 적은 수의 구조로 축약 또는 요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하였다.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으며,²⁷²⁾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동시에 하였다. 먼저 KMO를 보면,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KMO이 0.792가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 다음은 Bartlett으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검정으로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은 4가지로 섬김훈련, 양육의 실제, 사명과 헌신, 그리고 제자훈련으로 상위변수가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을 보면, 4가지 요인명인 섬김훈련과 양육의 실제, 사명&헌신 및 제자훈련이 각각 1.00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나.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은 아래의 <표 32>와 같다.

<표 32> 양육위원학교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값²⁷³⁾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섬김훈련	16	1	5	4.75	.683	-2.509	4.898
제자훈련	16	1	5	4.81	.544	-3.030	9.093
양육실제	16	1	5	4.31	.946	-1.266	.833
사명헌신	16	1	5	4.44	1.094	-2.440	6.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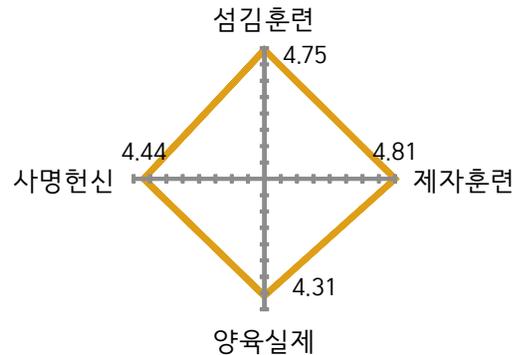
먼저 섬김훈련을 살펴보면 평균이 4.75(표준편차 .683)로 나타났고, 제자훈련은 4.81(표준편차 .544)로 나타났다. 양육실제는 4.31(표준편차 .946)로 나타났으며, 사명

272) 베리맥스 회전이란 다중공전상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직각회전의 요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귀분석을 말한다.

273) 정규성 검정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에 대한 대칭적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 좌측에 몰려있고, 음의 왜도는 평균의 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대한 비대칭적 분포를 이룬다 왜도는 절대값 3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자료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SPSS에서 첨도 값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된 첨도지수 값 3을 제외한 결과로 해석할 때는 3을 더해서 해석한다 이 연구의 응답자료 정규성 검토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와 첨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헌신은 4.44(표준편차 1.094)로 나타났다. 이를 방사형 그래프로 보면 <그림 9>와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9> 양육위원학교 훈련의 효과



<그림 9>를 보면 25기 양육위원학교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의 섬김훈련과 제자훈련, 양육의 실제, 사명과 헌신이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점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3점은 보통이고, 5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사역자 훈련 중에 제자훈련(4.81)이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내었다. 제자훈련 질문 문항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과 영적으로 무장하며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높은 값은 섬김훈련(4.75)으로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양육자가 된다면 바나바가 되어 새신자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설문 을 통해 상당수 반영하고 있다. 셋째로 사명과 헌신(4.44)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새신자 양육을 맡길 때 기꺼이 순종하겠다,” “영성수련회가 양육위원으로 헌신 하는 시간이 되었다,”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들의 높은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양육의 실제(4.31)에 대한 평가도 높은 수준이지만, 나머지 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의 실재를 통해 새신자 양

육에 대하여 자신감을 얻었다”는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써 새신자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데 있어서 방법론과 훈련의 양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훈련생들의 소감과 평가 부분에서 다를 것이다.

다. 양육위원학교 훈련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표 33> 양육위원학교 훈련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표

	섬김훈련	제자훈련	양육실제	사명헌신
섬김훈련	1			
제자훈련	.583*	1		
양육실제	.129	.251	1	
사명헌신	-.022	.147	-.012	1

*p<0.05, **p<0.01

<표 33>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섬김훈련이 제자훈련($r=.583$, $p<.05$)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섬김훈련이 성숙할수록 제자훈련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라. 양육위원학교 훈련에 대한 소감 및 평가

25기 양육위원학교를 마치고 난 후 참가자 16명에게²⁷⁴⁾ 전체 평가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무기명으로 작성하게 하여 도우미가 수집하여 본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움이 된 훈련 주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중복 체크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는 ‘바나바 사역’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성수련회(사명과 헌신)’로 13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훈련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제자훈련’이 11명이었고, ‘양육의

274) 설문 응답자는 수료자 19명 중 분석에 적당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16명으로 양육위원학교 훈련 분석대상과 동일하다.

실제'가 8명이었다.

(2) 도움이 된 훈련에 대한 소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소감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로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는 “바나바 사역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5명),” “양육자가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3명),” “양육위원과 새신자가 서로 함께 가는 훈련인 것 같다(2명),” “바나바 사역을 통해 새신자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1명)” 등의 피드백을 보였다.

둘째,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의 주제였던 예수님의 제자되기, 성령충만, 영적무장, 전도자의 사명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3명),” “나의 믿음 생활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다(2명),” “믿음과 마음가짐을 재점검하는 시간이었다(2명),” “예수님의 사람, 독후감을 쓰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었다(1명)” 등의 소감을 보고하였다.

셋째, 양육의 실제에 대해서는 “양육 실습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아 더 노력해야겠다(2명),” “양육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2명),” “교육받은 자에서 양육자로 이동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 것 같다(1명),” “양육교재를 통한 주별로 하는 새신자 양육방법이 도움이 되었다(1명)” 등으로 반응하였다.

넷째, 영성수련회(사명과 헌신)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동시간에 내 믿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4명),” “영성수련회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모두 좋았다(3명),”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명의 중요성과 삶의 의미, 그리고 서로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시간이 좋았다(2명),” “세족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찌 그리고 고마운지 눈물이 났다(1명),” “강의 시간 목사님의 짜여진 말씀이 좋았다(1명)” 등의 소감을 보고하였다.

(3) 양육위원학교에 제안사항

“다음 양육위원학교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체 활동과 양육 실습 등 피교육자가 발표하고 실습하며 나누

는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②토론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③실제적으로 새신자를 대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가미하면 좋겠다. ④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⑤양육 실습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⑥평일에도 훈련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등이었다. 이에 따른 제안을 종합해 본다면, 주로 공동체 시간에 가졌던 상호 교류하는 시간과 양육의 실습을 더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하기 원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양육위원학교 훈련에 대한 참가자 전체 평가 결과를 요약해 보면, 먼저 바나바 사역을 통해 새신자를 이해하고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으며 믿음과 마음가짐을 재점검하게 하였다. 양육의 실체는 양육 실습을 통해 용기를 얻기도 했지만,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찰하게 하였으며, 영성수련회(사명과 헌신)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시간으로 감동이 있었으며 강의와 세족식 등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양육 실습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공동체 활동 시간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늘려서 서로 토론하고 참여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논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장석교회의 새신자 목회를 진단하면서 새신자 양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고찰하고,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양육위원학교 훈련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장석교회의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생활 실태조사를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들의 신앙의식을 분석하며 목회적 함의를 찾아보고, 더불어 새신자 양육위원학교에서 실시한 사역 훈련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육위원의 신앙의식 조사에 대한 논의

첫째,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양육위원 59명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에서 먼저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29명으로 50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60대가 22명(37.9퍼센트), 70대는 4명(6.9퍼센트), 40대는 3명(5.2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위원의 연령대가 50대와 60대가 87.9퍼센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위원의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10년 뒤에는 양육위원의 고령화 문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30~40대의 양육위원 배출이 시급하며, 30~40대가 새신자 양육과 제자 양육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양육위원 활동 햇수를 보면, 1~5년이 가장 많은 39퍼센트(23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10년과 11~15년, 16~20년이 18.6퍼센트(11명)로 각각 동일하게 나타났고, 21년 이상은 5.1퍼센트(3명)로 가장 낮았다. 이는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에 1~5년 사이가 양육위원으로 섬기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료 후에 양육위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수료 햇수가 6~20년까지 동일한 분포를 보임으로써 양육위원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고 기간이 오래되어도 지속적으로 섬기는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양육에 대한 의식과 동참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수료 후 세월이 흘러도 새신자 목회에 긍정적인 자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장석교회가 새신자 목회에 25년간 중점을 두고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영태가 소그룹 목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교회 사례(화평교회)에 대한 연구 결과 소그룹 환경에서 평신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목회를 통해 이미 훈련된 평신도를 많이 배출한 상태였음을 평가한 부분과도 일치한다.²⁷⁵⁾

둘째,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생활에 대한 9가지 신앙의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변수들이 성숙하게 나타났다. 특히 예배생활(4.78)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봉사(4.38)와 친교(4.37), 경건생활(4.17)에서 양육위원

275) 김영태, “소그룹 목회 시스템을 통한 교회성장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 251.

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도생활과(3.87) 존전의식(3.75), 헌금 생활(3.7)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도생활(3.1)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자기관리(3.47)도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양육위원이 예배생활을 중시하고 봉사와 친교, 경건(말씀) 생활에서 신앙의 열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기도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존전의식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보통 이상의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도생활에서 가장 낮은 ‘때때로 그렇다(3)’는 응답자가 평균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실생활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불신자 전도와 복음 전도에 대한 실천의 어려움을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자기관리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실생활에서 꾸준한 운동과 시간관리 등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의 실천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양육위원들의 직분과 신앙연수, 그리고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분’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를 보면, 신앙생활 전체에서 항존직 은퇴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63), 다음으로 안수집사(3.88)이고, 시무권사(3.80), 서리집사(3.7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분에 따른 신앙생활 전체($F=.708$, $p=.55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목회적으로 보면, 항존직 은퇴자의 신앙의 모범은 9가지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은퇴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량이 은퇴와 함께 단절되는 것이 아닌 은퇴 이후에도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목회의 파트너로서 동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김봉진은 노인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봉사를 통해 교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²⁷⁶⁾ 박순오는 그의 연구에서 에릭슨이 제기한 노년기에 ‘일생을 통한 생산성의 욕구’는 ‘성취와 능력에 대한 욕구’와 ‘명성과 신망에 대한 욕구’로 나타난다고 했다.²⁷⁷⁾ 에릭슨은 노년기에 자아통합감이 좌절되면 절망감에 사로

276) 김봉진, “노인 봉사학교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123.

277) 박순오는 그의 연구에서 여성의 연령별, 종교별 자아통합감 차이 분석에 의하면, 60대 기독교인 여성의 자아통합감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여성도들은 60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생산성 제고에 힘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순오,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본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목회

잡힌다고 하였다.²⁷⁸⁾ 이러한 욕구들이 은퇴한 노년에 꺾이지 않고 자신의 일생과 후회 없이 살아왔음에 대한 자아통합감을 가지며 목회의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역량으로 발휘되도록 교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가야할 것이다.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를 보면, 신앙연수가 41년 이상(4.01)에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1~30년(3.89), 31~40년(3.82), 15년 이하(3.59), 16~20년(3.2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 전체($F=1.570$, $p=.19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를 보면, 신앙생활 전체에서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11~15년(4.02)에서 신앙 성숙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6~20년(3.96)이 높고, 6~10년(3.82), 21년 이상(3.69), 1~5년(3.6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 전체($F=.806$, $p=.528$)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이 직분이나 신앙연수,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양육위원을 선발할 때 직분과 관계없이 봉사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견해와도 일치한다.²⁷⁹⁾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양육위원을 선발할 때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보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의 자질이 사역자로서 더 중요한 기준임을 통계가 반증해 주고 있다.

넷째,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생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건생활이 성숙할수록 기도와 예배, 친교, 봉사, 전도, 헌금생활 및 자기관리와 존전의식의 수준도 높아졌고, 기도생활이 성숙할수록 친교와 봉사, 전도, 헌금생활 및 존전의식의 수준도 높아졌다. 예배생활에서도 예배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친교와 봉사생활의 수준도 높아졌으며, 친교생활이 좋을수록 봉사와 헌금생활 및 자기관리와 존전의식도 성숙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생활에서도 수준이 높을수록 전도와 헌금생활 및 자기관리와 존전의식의 수준이 높아졌고, 전도생활에서도 수준이 높을수록 헌금생활 및 자기관리와 존전의식의 수준이 높아졌다. 헌금생활에서도 성숙할수록 자기관리와 존전의식의 수준이 높아

상담신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12), 182-183.

278) Ibid., 70-71.

279) 본 연구에서 양육위원 선발과정과 선발기준에 대해 논의한 101-102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졌다. 자기관리는 존전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관리가 성숙할 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존전의식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개인신앙생활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평신도 사역자의 개인 신앙의 영역들이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박영수는 건강한 교회확립을 위한 전교인 교회교육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내적 성장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은 물론,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한 분명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신앙교육의 원리와 함께 실질적이고 현장성 있는 교육의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교회교육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요청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⁰⁾ 부산 호산나교회는 향존 직분자들을 피택 후에 다시 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²⁸¹⁾ 이는 개개인이 평신도 지도력을 갖게 하며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신앙의 전인 건강을 위해서 내적 성장과 더불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신앙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양육위원학교 훈련 결과에 대한 논의

장석교회에서 실시한 25기 양육위원학교 훈련에 22명이 참가하여 19명이 수료하였으며, 그중 분석에 적당한 16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양육위원학교에서 실시한 4가지 훈련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섬김훈련에 대한 평균이 4.75로 나타났고, 제자훈련은 4.81로 나타났다. 양육의 실체는 4.31로 나타났으며, 사명과 헌신은 4.44로 나타났다. 평균을 보면 ‘조금 그렇다(4)’와 ‘매우 그렇다(5)’에 대한 응답으로 훈련의 효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나바 훈련’을 통해 섬김훈련의 효과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박무종이 바나바 훈련을 실시하여 참가자가 훈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새가족을 대하는

280) 박영수, “건강한 교회 확립을 위한 전교인 교회교육시스템 개발,”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7), 136.

281) 부산 호산나교회는 향존 직분자중에서 장로들을 제자교육을 시켜서 목양하는 사역장로로 임명하여 목회의 일선에서 목양을 하게 한다. 송서철, “향존 직분자의 신앙성숙을 위한 교육목회,”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133.

것이 71퍼센트가 많이 바뀌었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²⁸²⁾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제자훈련의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김대성이 제자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에 대하여 일반 교인들에게 설문한 결과, 교인들의 반응은 훈련생들이 교회의 갱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교인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자의 평가에서 훈련생들이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와 일반 생활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²⁸³⁾ 오난영은 제자훈련이 전인격적 영성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지성, 감정, 의지, 사회성 등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왔다.²⁸⁴⁾ 물론 제자훈련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한다는 기본적인 논지에서 본다면 제자훈련의 효과성이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훈련’을 통해 양육자로서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손성민은 새가족 양육자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이전의 사역은 목회자 위주로 모든 사역과 활동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평신도가 사역자로 확실하게 서게 되었으며, 평신도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²⁸⁵⁾ 또한 새가족 돌봄과 양육을 위한 성인 지도력 개발을 연구한 김유현은 새가족 돌봄과 양육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인 지도력이 나타남을 위원회 사역을 통해 평가하였다.²⁸⁶⁾ 이와 같이 새가족을 양육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양육자로서 도움이 되었음이 일치하고 있다.

‘사명과 헌신’은 양육위원회에서 일일 영성수련회로 진행하여 양육위원으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효과성을 살펴보면, 손성민은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실시한 양육자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282) 박무종,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부산 성광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6), 70.

283) 김대성,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갱신에 관한 연구: 군산 다운교회를 중심으로,” 90-91.

284) 오난영, “제자훈련이 전인격적 영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랑의교회 사역현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0), 135-137.

285) 손성민, “새가족 양육을 통한 교회 활성화 연구: 은성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99-100.

286) 김유현, “새가족 돌봄과 양육을 위한 성인지도력 개발 연구: 남대문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0), 119.

되었고, 새가족 양육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가족 양육은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배우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²⁸⁷⁾ 최봉철은 제자훈련의 단계별 프로그램(새신자반-양육반-제자대학)을 통해 제자훈련을 받는 성도들에게서 주님의 심정과 경건의 능력, 섬김과 사랑을 관찰하고 평신도의 지도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²⁸⁸⁾ 이에 따라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며 오늘 교회가 붙잡아야 할 사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육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돕는 부분에서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양육위원회 학교 훈련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면, 섬김훈련과 제자훈련($r=.583$, $p<.05$)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섬김훈련이 성숙할수록 제자훈련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섬김훈련은 바나바 훈련을 통하여 새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평신도 사역훈련 과정이다. 바나바 훈련을 통해 참가자에게 물은 질문은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와 “양육자가 된다면 바나바가 되어 새신자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다. 즉 바나바 사역에 대한 이해와 양육자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제자훈련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것”과 “성령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기 원하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기 원하는 것,”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응답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오석규가 바나바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사역자(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바나바 사역 담당자는 잘 훈련된 사역자를 선별하여 바나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부분과도 일치한다.²⁸⁹⁾ 또한 김성덕이 바나바 훈련을 통해 본인(참가자)의 신앙 성장에도 유익하였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바나바 사역과 제자훈련 간의 상관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287) 손성민, “새가족 양육을 통한 교회 활성화 연구: 은성교회를 중심으로,” 99-100.

288) 최봉철,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사천 용현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112.

289) 오석규, “새 바나바사역을 통한 새가족 정착 활성화: 광장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123.

알 수 있다.²⁹⁰⁾ 이는 바나바 섬김훈련이 평신도 사역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에 유익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인식이 제자훈련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장석교회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지역의 특성과 교회적인 상황, 그리고 평신도의 개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양육위원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 연구에서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도 고려되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자기 보고식으로 되어 있어서 분석에 제약점이 따를 수 있다.

290) 김성덕, “새가족 소그룹 모임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39-40.

제 7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이 연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고 세우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훈련 교육과정을 만들고,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 양육위원이 어떻게 성장하며 변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이 연구를 통해 새신자 양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교회 현장에서 평신도를 양육의 주체로 세워 양육자로 섬길 수 있도록 가능성을 고찰해보고 새신자 목회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한국교회가 공신력을 잃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오늘날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장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신자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로버트 우스노우(Robert Wuthnow)는 교회 안의 다양한 소그룹에서 평신도 리더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소그룹에 역동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지 헌터(George Hunter)는 회심을 재사회화로 이해할 때, 소그룹을 통해 세계관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김남식은 이에 대하여 평신도와 평신도 리더들의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Person of Peace)’에 대한 공감과 동행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²⁹¹⁾

291)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Person of Peace)’은 누가복음 10장 1-11절에 나타나며, 이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회의 본질에 입각하여 새신자를 양육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문헌을 연구하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새신자 목회의 방안을 제시하며 새신자 양육위원 훈련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개하고자 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새신자 양육의 중요성을 서술하며 그에 따른 교회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새신자를 양육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 양성훈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이해를 위해서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평신도 사역의 의미와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제자도에 따른 평신도 훈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평신도 사역자 훈련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였다.

제 3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양육의 성경적 고찰을 통해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문헌 연구를 통해 새신자 목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교회의 본질에 따른 새신자 양육과 제자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새신자 양육의 유형을 비교하며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목회 전략으로 장석교회와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장석교회의 새신자 양육과 정착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새신자 양육체계를 소개하고 양육과정과 정착현황을 살펴보며 장석교회 새신자 목회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신자 양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세울 것인지 논의하며 평신도 사역훈련 준비 과정과 훈련의 목표,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 구성이 된 양육위원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 훈련 방안을 살펴보았다. 새신자 목회를 위한 양육위원학교 훈련의 내용은 첫째로 섬김훈련(바나바)과 둘째 제자훈련, 셋째 양육의 실제와 넷째 영성훈련(사명과 헌신)을 주요 부분으로 다루었다. 또

은 전도 대상도 되며, 주안에 들어와 살게 될 새신자로도 볼 수 있다. 김남식, “동행 전도와 교회 증식,” 61-62.

한 양육위원학교를 위하여 고안하여 실시한 양육위원학교 프로그램을 8회기 교육과정으로 제시하며 주제 선정 이유와 훈련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평신도를 주체로 새신자 양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새신자위원회 스텝 훈련에 대해 소개하고 양육위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사례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심화과정인 전문양육위원 과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 6장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훈련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장석교회에서 기존의 새신자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평신도 사역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평신도 사역의 목회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양육위원학교에서 실시한 평신도 사역훈련 결과를 분석하여 논의하고 새신자 목회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연구 분석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숙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예배생활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²⁹²⁾ 하지만 전도생활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자기관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예배와 친교, 봉사, 말씀을 따르는 경건생활 등에서 높은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자기관리와 전도생활과 같은 실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도와 자기관리에 대한 돌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양육위원들의 직분과 신앙연수, 그리고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양육위원학교 수료 후 연수에 따른 신앙의 차이가 각각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평신도가 훈련을 통해 성숙해지는데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수료 후 연수 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연구를 통해 항존직 은퇴자의 신앙의 모범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은퇴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목회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셋째, 기존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생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인 신앙의 영

292) 9가지 개인신앙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예배생활(4.78), 봉사생활(4.38), 친교생활(4.37), 경건생활(4.17), 기도생활(3.87), 존전의식(3.75), 헌금생활(3.7), 자기관리(3.47), 전도생활(3.1) 순으로 나타났다.

역들이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개인의 평신도 지도력을 위해 어느 한 부분만 강조되는 것이 아닌 전인 건강을 위해 내적 성장과 더불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총체적이며 목회적인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양육위원학교 훈련 결과, 4가지 훈련의 효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위원학교에서 실시한 섬김훈련과 제자훈련, 양육의 실제, 영성훈련(사명과 헌신)의 적용 사례가 모두 긍정적임에 따라 양육위원을 양성하는 새신자 양육을 위한 평신도 사역훈련이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위원학교 훈련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섬김훈련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자훈련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나바 섬김훈련이 평신도 사역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에 유익하며 제자를 만드는 제자라는 인식이 제자훈련 과정에도 평신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새신자 양육의 현장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양육위원들의 개인신앙생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른 신앙 영역들에서는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전도와 자기관리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평신도 사역자들의 단점으로 보이지만, 사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²⁹³⁾ 교회는 전도와 양육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재생산의 원리와 훈련을 통해 평신도가 주님의 제자로서 실제적으로 삶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양육자들의 역할이 곧 전도의 현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새신자에 대한 헌신 역시 전도의 연장이라는

293) 하도균은 최근 교회 전도 동향을 보면 다양한 전도 방법을 사용하지만 전도의 주체인 교인들이 전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복음 안에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전도의 동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균, “복음 전도의 동력은 성도의 변화된 삶입니다,” *목회와 신학*, 2018년 7월호, 78.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위원들이 현재의 사역에 더 큰 책임과 자부심을 갖도록 전도와 양육을 하나로 보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관리가 약하다는 것은 결국 양육자의 자리가 고갈되기 쉽고, 영적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자리임을 인식하고 양육을 위한 교육 이상으로 그들에 대한 영적 돌봄의 교육을 제공해 줘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양육 체계를 위하여 새신자를 양육하는 동행자로서의 평신도 사역자 양성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동행 전도를 통해 열두 제자를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셨다.²⁹⁴⁾ 오석규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나바 사역자와 새가족의 동반성장의 성과처럼²⁹⁵⁾ 새신자와 양육위원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동반자반이 필요하다. 동반자반은 새가족이 양육수료 이후에도 교회에 정착을 돕고 새신자가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평신도 사역팀을 말한다.²⁹⁶⁾ 평신도 사역자가 새신자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동반적으로 성장하는 기회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목회적인 지원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신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육위원과 정착위원 간에 크로스 관리가 중요하다. 동반자반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동반 성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필식 검사와 훈련 대상자의 자기 보고를 통해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찰자들에 의한 보고양식과 자기보고식 검사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294) 김남식, *동행 전도학*, 33.

295) 오석규는 대부분의 바나바 사역이 환영하는 수준에서 머물지만, 새 바나바 사역에 대해 돌봄, 가르침, 제자 됨을 하나로 묶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이 사역을 통해 새가족이 교회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르게 되고, 예수제자훈련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불신자를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준 바나바가 일대일로 훈련기간 동안 함께 예배, 식사, 교육 등에 참여함에 따라 새가족들도 영적인 자극을 받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 헌신하는 일들을 늘어나게 되었고, 새가족의 성장을 지켜보는 바나바 사역자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동반적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음을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오석규, “새 바나바사역을 통한 새가족 정착 활성화: 광장교회를 중심으로,” 123.

296)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동반자반은 은누리교회에서 실시하는 일대일제자양육의 과정처럼 새신자와 평신도가 일대일로 16주간 만남을 갖고 성장하며, 장석교회에서 실시하는 정착부원의 6개월~1년 동안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정착을 돕는 체계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넷째, 새신자 양육을 위해서 새신자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양육위원의 연결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위원이 연령별, 특성별로 양성되어야 한다.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하여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아래 있는 자 같이 되며, 때론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전 9:19-23).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특성화 교육으로 전문양육위원 과정을 실시한 바와 같이 새신자 목회의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새신자들의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자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양육위원학교 훈련에서 제안한 것처럼 평신도 사역자들이 양육의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에서 ‘양육 실습’을 더 늘리고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토론 시간과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목회적으로 제공하여 이 사역의 본질인 평신도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도 목회자의 수준에 따라 교회와 평신도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영성이, 믿음이, 자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삶에 모범이 되지 않을 때,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²⁹⁷⁾ 평신도 사역의 중요한 멘토인 목회자의 헌신과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실천이 실제적인 삶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한다. 목회자가 앞장 서갈 때 평신도 사역의 현장은 풍성한 풀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목회자의 헌신과 실행일치의 삶보다 더 뛰어난 동력은 없다. 실행일치의 삶이 강력히 요구되는 현 시대에 평신도 사역은 목회의 본질과 사명을 재조명해 주고 있다.

297) *목회와 신학*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국교회 성도의 신앙 성숙 인식과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500명과 목회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신앙 성숙에 방해되는 교회 요인”이라는 질문에 ‘목회자 혹은 지도층의 윤리 자질 문제’가 36.9퍼센트였다. 2017년 한목협 조사에서도 개신교인의 24퍼센트가 ‘목회자의 윤리성’을 꼽았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울 때 영적 성숙에 선한 영향을 준다. 목회자가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며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송지훈, “기자의 눈으로 본 2018 신앙성숙 조사 보고서,” *목회와 신학*, 162-164.

부록 1

개인 신앙생활 점검표

1.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성도 ②서리집사 ③시무권사 ④안수집사 ⑤시무장로
⑥은퇴 항존직 ⑦명예집사 ⑧명예권사 ⑨협동권사 ⑩기타()
2.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30~39세 ②40~49세 ③50~59세 ④60~69세
⑤70~79세 ⑥80세 이상
3.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5~10년 ②11~15년 ③16~20년 ④21~30년
⑤31~40년 ⑥41년 이상
4.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5. 성도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6.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7. 양육위원학교를 수료하고 햇수로 몇 년째이십니까? ①1~5년 ②6~10년 ③11~15년
④16~20년 ⑤21년 이상

◎ 다음 질문을 읽으시고 당신의 현재의 형편에 해당하는 곳에 '√' 표 하십시오.

	질 문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때때 로 그렇다	4.자주 그렇다	5.늘 그렇다
1	나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1	2	3	4	5
2	나는 성경공부 모임에 배우는 자로서 주 1회는 참여한다.	1	2	3	4	5
3	나는 매주 최소한 성경 한 절은 외우려고 한다.	1	2	3	4	5
4	나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낸다.	1	2	3	4	5
5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한다.	1	2	3	4	5
6	나는 신앙과 교양의 증진을 위해 매일 2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1	2	3	4	5
7	나는 매일 기도하며, 1년에 2회 이상 금식을 한다.	1	2	3	4	5
8	나의 기도에는 찬양, 감사, 고백, 간구, 다른 사람과 사회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1	2	3	4	5

9	나의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찾기) 위한 침묵(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기도 시간에 지난번에 했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 감사하거나, 계속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한다.	1	2	3	4	5
11	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주일 예배에 항상 참석한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나에게 잘못하는 이들을 잘 용서한다.	1	2	3	4	5
15	나는 교우들의 형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도와준다.	1	2	3	4	5
16	나는 나의 모든 가족들(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나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하며, 나의 은사를 계발하여 사용하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다.	1	2	3	4	5
18	나는 현재 봉사하고 있으며, 섬김을 통해 기쁨을 얻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한 사람 이상의 불신 이웃을 정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1	2	3	4	5
20	나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항상 찾고 있다.	1	2	3	4	5
21	나는 매주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돕고(양육하고) 있다.	1	2	3	4	5
23	나는 수입의 10% 이상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1	2	3	4	5
25	나는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한다.	1	2	3	4	5
26	나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한다.	1	2	3	4	5
27	나는 건강을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하고 있다.	1	2	3	4	5
28	나는 장,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관리를 잘 한다.	1	2	3	4	5
29	나는 홀로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보낸다.	1	2	3	4	5
30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 감격, 열정이 있다.	1	2	3	4	5

부록 2

25기 양육위원학교 설문조사

1. 다음 질문을 읽으시고 ‘25기 양육위원학교’ 훈련을 통해 가지게 된 당신의 현재 모습에 해당하는 곳에 ‘√’ 표 하십시오.

	질문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조금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1	2	3	4	5
2	양육자가 된다면 바나바가 되어 새신자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1	2	3	4	5
3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	1	2	3	4	5
4	나는 성령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기 원한다.	1	2	3	4	5
5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기 원한다.	1	2	3	4	5
6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	1	2	3	4	5
7	양육의 실재를 통해 새신자 양육에 대하여 자신감을 얻었다.	1	2	3	4	5
8	새신자부에서 양육을 맡길 때, 주님의 부탁으로 믿고 기꺼이 순종하겠다.	1	2	3	4	5
9	영성수련회가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양육위원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다.	1	2	3	4	5
10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1	2	3	4	5

2. 25기 양육위원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래의 주제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바나바 사역, ②제자훈련 (주님의 제자되기, 성령충만, 영적전쟁, 전도자의 사명)
 ③양육의 실제, ④영성수련회 (강의, 공동체 활동, 양육실습, 세족식)

3. 다음 양육위원학교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록 3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위원 지침서

▸ 양육자가 하는 일

1. 인도자를 통해 새신자를 만나고 찾아가서 양육하는 일을 한다.
2. 짝지어 준 새신자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3. 주어진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한다.(4주, 7주)
4. 매 주일 교회에 초청하여 모시고 온다.
5. 매 주일 예배 후에 새신자에게 교회의 목회자나 관련 있는 사람들을 소개 한다.
6. 자기에게 맡겨진 새신자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기도제목 참조)
7. 새신자 양육일지를 기록한다.

▸ 양육자의 자세

1.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를 사용하라.
2.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
 - 1) 언어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며 존댓말을 사용한다.
 - 2) 표정은 약간 미소짓는 듯한 상냥함이 있어야 한다.
 - 3) 외모(옷차림, 악세사리 등)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한다. 너무 화려하거나 상대방에게 어울리지 않는 외모는 삼가는 것이 좋다.
 - 4) 자녀가 있을 때는 간단한 선물을 사 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3. 상대방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대하라.
 - 1)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 2) 영적 어린아이를 성인 수준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 3) 너무나 많은 것을 하라고 강요하듯이 말하지 않는다.
4.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 1) 집에 들어 갈 때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핀다.
 - 2) 꼭 필요한 내용을 미리 메모해서 정중하게 질문을 한다.
 - 3)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을 주시하면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러세요. 네~. 힘드셨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등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 4) 말의 중간을 끊지 않는다.
 - 5)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이나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했더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5. 한 번 새신자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6.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 1) 교회에 관한 것이든 교인에 관한 것이든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2)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7. 자기의 자랑을 하지 말라.
 - 1) 오직 주님과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자랑하는 말을 한다.
 - 2) 가능한 한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나 직분, 재물, 과거 세상 경력, 교회 경력 등에 대해서 특별히 새신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하지 않는다.
 - 3) 혹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할 경우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말한다.
8. 상대방에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 1) 양육자를 신뢰하고 새신자가 말한 내적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 2) 상대방의 과거를 너무 캐내려고 취조하듯이 질문하지 않는다.
9.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 1)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
 - 2) 자신의 간증이나 주님이 주신 은혜(새신자에게 도움이 되는)를 나눈다.
 - 3) 새신자의 어려움이 있으면 짐을 함께 짊어진다.
 - 4)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간단한 선물을 한다든지 사랑도 물질도 함께 나눈다.
10. 새신자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 1)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 2)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더 원한다.
 - 3)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인정을 받을 때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새신자를 위한 기도제목

1. 새신자가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2. 새신자가 인도자, 양육자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3.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계속 교회에 출석하여 나오게 하여 주소서
4. 인도자, 양육자가 접촉할 때에 새신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긍정적으로 양육 받게 하소서
5.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매주 후속양육(교재공부 등)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6. 매주 교재와 듣고 읽는 자료들을 통해 새신자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소서

7. 인도자, 양육자, 새신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사단의 방해로부터 지켜 주소서.
8. 인도자, 양육자가 새신자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적으로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9. 장석교회(아니면 다른 교회라도)에 꼭 등록하여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소서
10.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성장하게 하소서.

▸ 교재준비와 시간 진행

1. 교재를 미리 예습하라.
2.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라.
3.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하라.
4. 가르친다는 자세보다 함께 공부하며 나누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
5. 전체 시간은 30-40분 정도로 한다. 길어도 한 시간은 넘지 않도록 한다.
6. 순서
 - 1) 그들의 일반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 2) 기도로 시작한다.(길게 하지 말 것)
 - 3) 간단한 찬송을 한 곡 부른다.(쉬운 곡으로 미리 준비해 간다)
 - 4) 교재를 함께 읽어 나간다. 읽어 나가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질문하도록 하여 대답을 해주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다음 주에 대답해주겠다고 하라.
 - 5) 마무리를 하면서 그 날 교재 내용을 2-3 문장으로 요약해 준다.
 - 6) 교재 공부를 마무리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묻고(남편, 아내, 자녀, 물질, 질병 등) 그 날 배운 내용과 영적인 삶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 7) 다음 교재를 예습 하도록 주고 간단한 선물을 준다.
 - 8) 다음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헤어진다.

* 결신자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면 교재를 활용하는데 융통성을 가지라.

부록 4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경건생활	15년이하	3.50	.866	1.665	.173	n/a
	16~20년	3.90	1.084			
	21~30년	3.97	.977			
	31~40년	4.29	.916			
	41년이상	4.53	.514			
	전체	4.18	.868			
기도생활	15년이하	3.50	.707	.552	.698	n/a
	16~20년	3.86	.988			
	21~30년	3.75	1.004			
	31~40년	3.81	.902			
	41년이상	4.15	.825			
	전체	3.89	.906			
예배생활	15년이하	5.00	.000	1.992	.109	n/a
	16~20년	4.14	1.574			
	21~30년	5.00	.000			
	31~40년	4.62	1.121			
	41년이상	4.94	.243			
	전체	4.79	.789			
친교생활	15년이하	4.67	.577	2.032	.103	n/a
	16~20년	3.86	.900			
	21~30년	4.61	.778			
	31~40년	4.08	.954			
	41년이상	4.59	.618			
	전체	4.40	.815			
봉사생활	15년이하	4.83	.289	2.216	.080	n/a
	16~20년	3.93	.450			
	21~30년	4.44	.583			
	31~40년	4.19	.902			
	41년이상	4.65	.580			
	전체	4.40	.678			
전도생활	15년이하	3.33	1.732	1.241	.305	n/a
	16~20년	2.38	.731			
	21~30년	3.10	1.079			
	31~40년	3.41	.954			
	41년이상	3.14	.943			
	전체	3.11	1.018			
헌금생활	15년이하	3.17	1.443	2.366	.065	n/a
	16~20년	2.83	1.252			
	21~30년	3.83	.924			
	31~40년	3.85	.658			
	41년이상	3.91	.566			
	전체	3.72	.881			

자기관리	15년이하	4.00	1.732	2.039	.102	n/a
	16~20년	2.57	1.272			
	21~30년	3.65	.996			
	31~40년	3.23	.927			
	41년이상	3.76	1.033			
	전체	3.47	1.104			
존전의식	15년이하	4.17	.764	1.207	.319	n/a
	16~20년	3.29	.699			
	21~30년	3.86	.967			
	31~40년	3.58	.732			
	41년이상	3.97	.790			
	전체	3.77	.836			
신앙생활 전체	15년이하	3.59	1.105	1.570	.199	n/a
	16~20년	3.29	.463			
	21~30년	3.89	.695			
	31~40년	3.82	.588			
	41년이상	4.01	.383			
	전체	3.84	.594			

신앙연수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의 137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록 5

장석교회 정착부 활동보고서 양식

새신자

성명: _____ (남,여) /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연락처: _____
 구역장 (성명 _____, H/P _____)
 자치기관 (성명 _____, H/P _____)

1개월차

점검항목 \ 기간/확인	기간	확인	기간	확인	기간	확인	기간	확인
1. 주일예배	1 주 차		2 주 차		3 주 차		4 주 차	
2. 구역연결 및 참여								
3. 자치단체 연결 및 참여								
4. 주중 메시지 및 전화								
5. 취미, 봉사부서 연결 및 참여								

2개월차

점검항목 \ 기간/확인	기간	확인	기간	확인	기간	확인	기간	확인
1. 주일예배	5 주 차		6 주 차		7 주 차		8 주 차	
2. 구역연결 및 참여								
3. 자치단체 연결 및 참여								
4. 주중 메시지 및 전화								
5. 취미, 봉사부서 연결 및 참여								

3개월차

점검항목 \ 기간/확인	기간	확인	기간	확인	기간	확인	기간	확인
1. 주일예배	9 주 차		10 주 차		11 주 차		12 주 차	
2. 구역연결 및 참여								
3. 자치단체 연결 및 참여								
4. 주중 메시지 및 전화								
5. 취미, 봉사부서 연결 및 참여								

부록 6

장석교회 정착부 활동 지침서

1. 1.2.3부 예배 후 접견실에서 양육수료자(등록자)와 만난다.
2. 성별, 연령을 따라 연결을 시킨다.
3. 반드시 주중에 1차 이상 연락을 드리고(구역.자치단체 참여 후는 1회), 매주 1회 이상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다. 항상 잊지 않고 등록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4. 구역장, 자치단체장(남.여선교회)에게 확인 전화를 드린다.
5. 주일예배 참석을 확인하고 권면한다.
6. 주일에 예배 참석 후 정해진 장소에서 교제를 한다.
7. 등록자의 취미와 은사를 발견하여 교회 내 소그룹이나 봉사부서에 연결한다.
(예) 배드민턴, 축구, 주차, 찬양대, 교사, 생활교양부 등
8. 새신자의 경우 세례에 대해 안내한다.
9. 매주 정착부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한다.
10. 정착팀은 양육수료 후 6개월까지 등록자를 돌본다.
11. 양육수료자(등록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여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한다.
12. 수료 및 환영식에 참석하여 축하해준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가스펠서브 편.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편. *한국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고원석 외 5인. *기독교교육개론*. 개정.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3.
- 교회성장연구소 편. *교회 선택의 조건*.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_____. *한국교회 경쟁력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 국제제자훈련원. *교회와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김남식. *동행 전도학*. 인천: 한국전도학연구소, 2015.
- _____. “동행 전도와 교회 증식.” *목회와 신학*. 2018년 7월호, 62.
-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도서출판 멘토, 2002.
- 김명용. “한국교회의 새신자 양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새신자 목회VI* (1997): 9-32.
- 김문석.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십니까.” 유기성 대담. *목회와 신학*. 2012년 10월호, 130.
- 김민정.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 김성환. *2017 노원통계연보*. 서울: 노원구청, 2017.
- 김영규. *기독교교육학 개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 2011.
- 김영한. “성장둔화에 대한 요인분석과 그 대안에 관한 논구.” *한국 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2.
-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평신도지도위원회. *총회 평신도지도 지침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 무학교회 새가족부 교재. “행복한 만남.” 서울: 무학교회, 2013.
- 배창돈. *제자훈련, 실패는 없다*.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5.
- 송민호. “새신자 목회 13년의 how를 공개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세미나 자료집*. Vol. 14 (2004): 49.
- _____.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 15 (2005): 40.
- 송지훈. “기자의 눈으로 본 2018 신앙성숙 조사 보고서.” *목회와 신학*. 2018년 7월 호, 162-164.
- 안종화. “양육 생명을 살리는 손: 장석교회 양육체계.”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18 (2008): 30.
- _____. “장석교회 양육체계.”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17 (2007): 28.
- 양창상. *21세기가 원하는 크리스천 리더*.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2004.
- 온누리교회 새가족사역팀 편. *온누리반*. “새가족 8주 과정.” 서울: 온누리교회, 2018.
- 온누리교회 서빙고 새가족사역위원회 편. “온누리교회 새가족 매뉴얼.” 서울: 온누리교회, 2017.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출판, 1996.
- _____.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개정54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유기성. *영성일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서울: 규장, 2016.
- _____. *예수님의 사람 1*. 개정2판. 서울: 넥서스, 2018.
- _____. *예수님의 사람 2*. 개정2판. 서울: 넥서스, 2017.
- 육홍근. “새신자 목회 건강진단 프로그램.”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14 (2004): 32.
- 이상근. *신약주해 옥중서신*. 서울: 기독교문사, 2003.
- 이석철. “새신자 교육의 구조와 운용.” *새신자목회(상)*. 서울: 돌곶이출판, 2000.
- 이용남. “새신자 양육, 이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강의집*. Vol. 21. (2011): 8.
- _____. “양육, 행복한 첫 출발.” *교회 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세미나 자료집*, Vol. 20. (2013): 91-208.
- _____. *장석교회 33년사*. 서울: 세양문화기획, 1988.
- _____. “21세기를 향한 새신자 목회 전략.” *새신자 목회VI* (1997): 40.
- _____. “양육, 예수님으로 옷 입는 첫 단추.”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16 (2006): 9-12.
- 이용남 편. *새신자목회*. 서울: 도서출판 이레아트, 1993.
- _____. *새신자목회(상)*. 서울: 도서출판 돌곶이, 2000.

- _____. *새신자목회II*. 서울: 임마누엘미디어, 1994.
- _____. *새신자목회IV*. 서울: 도서출판 그린파스츄어, 1995.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목사님의 교육철학을 듣는다.” 박봉수 대담. *교육교회*. 361권 0호 (2007): 5.
- 장석교회 새가족성경공부 교재. “뿌리 내리기.” 서울: 장석교회 새신자위원회, 2018.
- 장홍길. *신약성경윤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 정남용. “양육위원 제도를 통한 교회성장 모색.” *양육위원 훈련교재: 어리다가 정성한 나무*. 서울: 도서출판 돌곶이, 2000.
-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 세움박스, 2016.
- 정재학. “양육위원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얻어진다.” *교회성장*. 2002년 3월호, 31.
-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서울: 제자원, 2006.
- _____.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제1-9*. 서울: 제자원, 2006.
- _____.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도행전 제1-7*. 서울: 제자원, 2006.
- _____.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상 제1-10장*. 서울: 제자원, 2006.
-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서울: 대한기독교문서회, 2012.
- 조석기. “새신자 목회에 있어 필수적인 양육위원 제도.”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 세미나 자료집*. Vol. 20 (2010): 25.
- 지용덕. *팀 목회: 21세기 새로운 목회 구조로서의 팀 목회론*. 서울: 콤파출판사, 2002.
- 총회교리교육지침서편찬위원회 편. *평신도 교리교육 지침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최원준, 김문석.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회 대담.” 유기성 대담. *목회와 신학*. 2011년 2월호, 36.
-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8.
- 하도균. “복음 전도의 동력은 성도의 변화된 삶입니다.” *목회와 신학*. 2018년 7월호, 78.
- 한국목회신학연구원. *교회임원 훈련교재*. 서울: 세미한, 1991.
- 한소망교회. *사역매뉴얼 2016*.
-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웨마 1*. 서울: 웨마, 2006.

2. 번역 서적

- Banks, Robert and Banks, Julia.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 학생회출판부, 1999.
- Beeke, Joel R.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Bringing the Gospel to Children)*. 김진선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1.
- Barrett, C. K. *요한복음 2*. 한국신학연구소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4.
- Bortolini, Jose. *요한복음 읽기: 생명의 길*. 김수복 역. 서울: 성바오로, 1997.
- Capps, Donald.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문희경 역. 서울: 이레서원, 2002.
- Culpepper, R. Alan. *요한복음의 해부*. 권종선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 Drucker, Peter Ferdinand.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재규 역. 서울: 청림출판, 2004.
- Gelder, Craig Van. *교회의 본질 (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최동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 Guthrie, Dornald. *신약서론*. 김병국 . 정광욱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Hull, Bill. *제자삼는 교회 (The Disciple-making church)*. 장택수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6.
- Kraemer, Hendrick. *평신도 신학: 평신도신학의 신학적 기초*. 유동식 역. 6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Kouzes, J. M. & Posner, B. Z. *크리스천 리더십 챌린지 (Christian Leadership Challenge)*. 정옥배 역. 서울: 디모데, 2009.
- Kuhne, Gary W.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2.
- Labberton, Mark. *제일소명*. 하보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 Ladd, G. E. *신약의 중심사상*. 이남종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4.
- Laurie, Greg.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 (Let God Change Your Life)*. 김진선 역. 서울: 도서출판 토기장이, 2012.
- Long, Thomas G. *현대성서 주석: 히브리서 (Hebrew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김운용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 McClung, Floyd. *제자도의 본질 (Follow)*. 김진선 역. 서울: 도서출판 토기장이, 2012.
- Moore, Waylon B. *새신자양육의 원리와 방법 (New testament Follow-up)*.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4.

- Mounce, William D. *목회서신*. 채천석 .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9.
- Murray, Andrew. *사역과 제자도*. 임은목 역. 서울: 샘솟는 기쁨, 2018.
- Sherrill, Lewis J. *기독교교육의 발생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이숙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Stevens, P. Paul.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 Vocation, Work and Ministry in Biblical Perspective)*.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 Viola, Frank. *다시 그려보는 교회*. 이남하 역. 대전: 대장간 2013.

3. 외국 서적

- Atkins, William A. *Education Philosophies and Practices in the old Testament. Religious Education* (2006): 507.
- Driver, S. 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973.
- Webber, Robert E. *Ancient-Future Evangelism*. Grand Rapids. MI: Baker, 2003.

4. 학위 논문

- 김대성.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갱신에 관한 연구: 군산다운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0.
- 김봉진. “노인 봉사학교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 김성덕. “새가족 소그룹 모임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 김성훈. “이단에 대처하는 실천적 대안으로서 이단 예방교육 연구: 은성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 김영태. “소그룹 목회 시스템을 통한 교회성장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
- 김유현. “새가족 돌봄과 양육을 위한 성인지도력 개발 연구: 남대문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0.
- 노승수. “개혁신학으로 재구성한 정신분석적 인간이해모델 연구: 정신분석전통의 본

- 성, 자기, 대상관계개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017.
- 박무중.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부산 성광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6.
- 박순오.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본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목회상담신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12.
- 박영수. “건강한 교회 확립을 위한 전교인 교회교육시스템 개발.”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7.
- 손성민. “새가족 양육을 통한 교회 활성화 연구: 은성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 송서철. “항존 직분자의 신앙성숙을 위한 교육목회.”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 오난영. “제자훈련이 전인격적 영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랑의교회 사역현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0.
- 오석규. “새 바나바사역을 통한 새가족 정착 활성화: 광장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 이전호. “코칭훈련을 통한 소그룹 리더십 향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 주재필. “평신도제자훈련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제자교회와 충신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1.
- 최봉철.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사천 용현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5. 인터넷 자료

- Online: <http://cafe.daum.net/2124071/HL2R/97.htm>.
- Online: <http://gsmch.org.htm>.
- Online: <http://jeja.sarang.org.htm>.
- Online: <http://www.choongshin.or.kr/disciplen/sub01.asp.htm>.
- Online: <http://www.hansomang.or.kr/sub-ranch/ranch-core.asp.htm>.
- Online: <http://www.hansomang.or.kr/sub1-info/sub1-vision.asp.htm>.
- Online: http://www.moohak.net/bbs/board.php?bo_table=sub0101&sca.htm.

Vita of
Young Jun Park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Jangseok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26, 1976.
 Marital Status: Married to Hyun soon Lee
 with one Child, Si Hyun
 Home Address: 780, Wolgyedong, Nowongu, Seoul, Korea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30, 2009

Education:

B. A.: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Gwangju, 2001
 M. 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03
 M. Div.: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7
 Th. M.: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1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9

Personal Experience:

01/2017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Jangseok Presbyterian
 Church, Seoul
 12/2013 to 12/2016: Assistant Pastor of Seoul Presbyterian Church,
 Seoul
 12/2011 to 11/2013: Assistant Pastor of Sungdo Presbyterian Church,
 Seongnam
 01/2004 to 12/2009: Youth Pastor, Evangelist, Assistant Pastor
 Shinsungbuk Church, Seoul